

束草文化

1997 · 제13호



특별
법인

속초문화원

1957년 6월 첫 점등으로 벚길 지켜온 지 40년 세월 속초 등대(束草燈臺)



1957년 6월 8일. 첫 점등으로 출발하여 '9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 세월을 걸쳐 벚길의 길라잡이로 성황봉(城隍峰)에 우뚝 솟아 있다.

여기가 속초 1번지. 속초시 영랑동(永郎洞) 1의 1번지이며, 1통 1반에 속한다.

성황봉을 경계로 영랑동과 동명동(東明洞)으로 행정 구역이 나누어지고 지금도 토박이들은 새쪽¹⁾(영랑동 쪽)과 마쪽²⁾(동명동 쪽)으로 부르는 곳이다.

위도 상으로는 북위 38° 12' 06"이며, 동경 128° 36' 01"에 위치한다. 기초상의 높이 10.3m, 둘레 10m 흰색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축광은 500w~1000w로 18초 간격으로 4번의 섬광을 45초 동안 방사한다.

안개와 폭우, 폭설이 내릴 때면 마치 황소의 울음을 연상시키는 공기 압축 무신호가 40초 간격으로 울리며, 1회 울림은 5초 동안이다.

주(註)

1) 동쪽. 2) 남쪽을 가리키는 벚사람들 말이다.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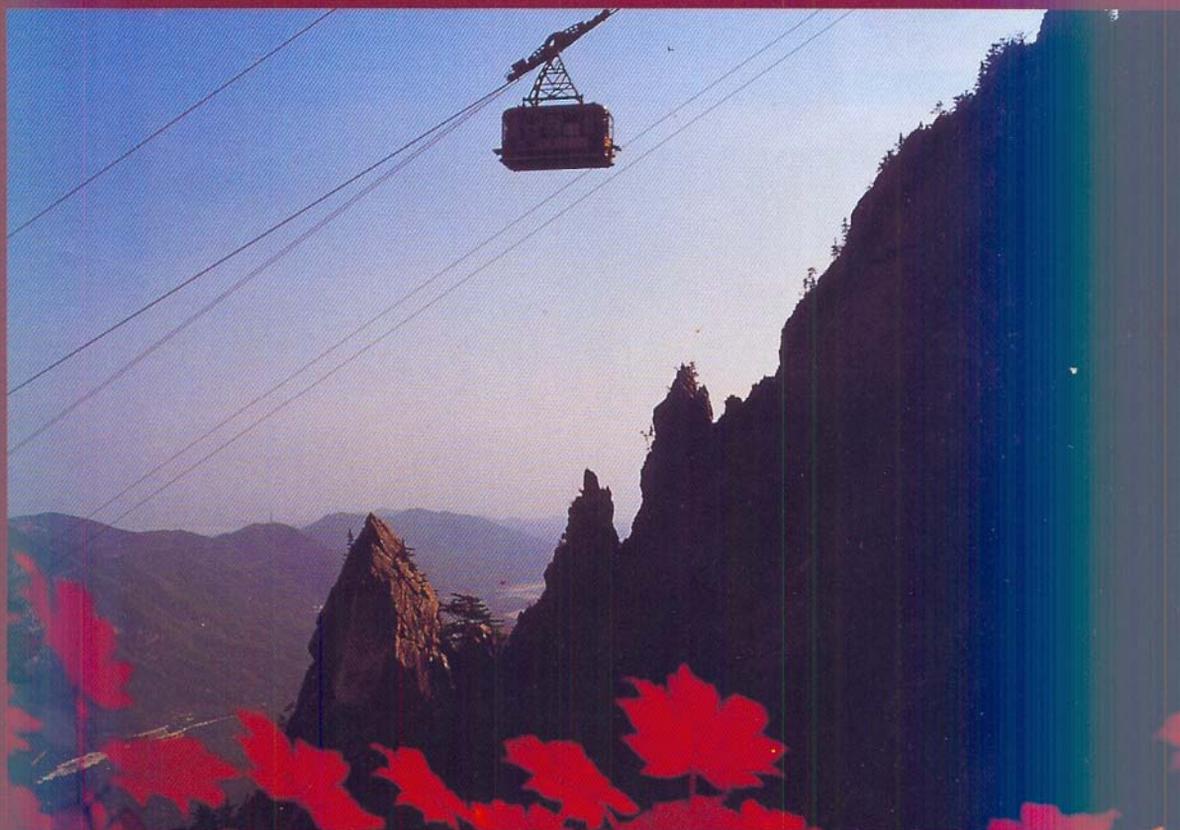
The 4th Conference of Major Cities in the East-Sea Rim Region
1997. 10. 9



속 초 시

신뢰와 정성으로
SORAK FOCUS TRAVEL이
열어갑니다.

설악관광(주) 케이블-카



회장 韓丙起



대표이사 慎容文

본 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0392) 636-7362

여행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82-5번지

☎ (0392) 636-1011

지 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13번지

☎ (02) 545-9726

◆ 해외여행 ◆ 신혼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 ◆ 각종 항공권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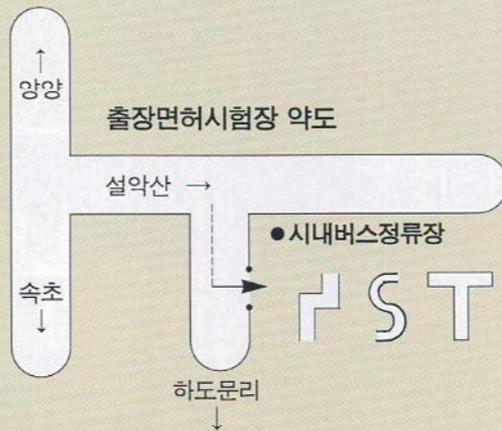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이 지역 사회단체장님을 비롯 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물심양면 지도편달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따라 전문학원에서 양질의 여유를 가진 운전방식의 운전교육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 사고 없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 험 장 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학원

문의및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 33-3333
속초자동차학원 ☎ 635-3366, 3377, 3388, 3399



강원도 경찰청 지정 속초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학원장 金光洙

동해에 오늘도 가리비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동해의 희망을 가리비밭에 거는 뜻이 무엇일까
 바로 가리비가 자라는 해역은 일러서 청정해역이라고 했다.
 오늘도 동해에 가리비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동해의 희망

가리비 양식



 태영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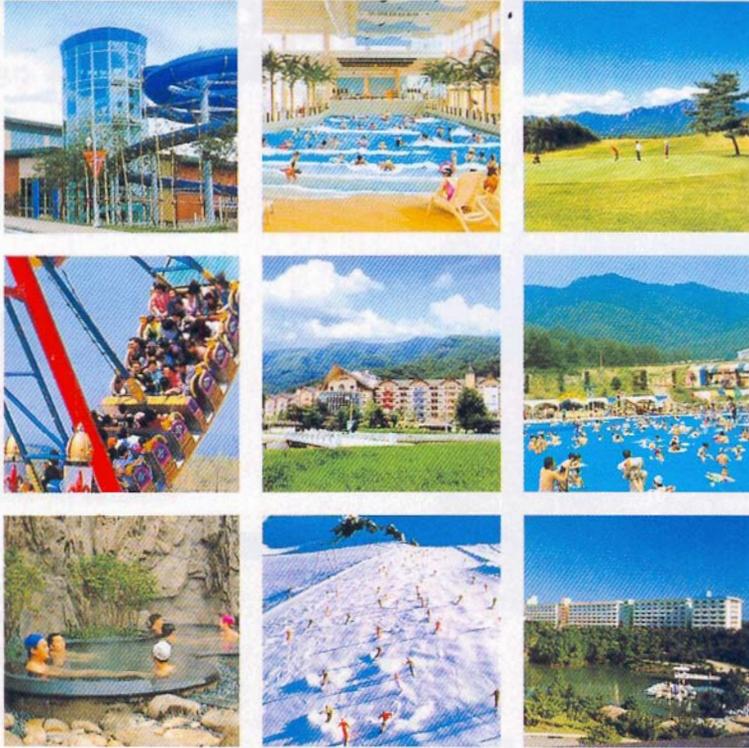
代表 尹義求



社團法人 江原道農漁村研究所理事長 TEL: (0392) 636-1815
 國際라이온스協會 354-E地區 (0392) 33-1336
 束草클럽會長 (32代) FAX: (0392) 33-6542
 束草市繁榮會副會長 自宅: (0392) 635-1629
 束草市野球協會副會長 H·P: 011-375-8464

설악워터피아 새 단장

즐거운 365일, 한화리조트로 오세요



사계절 누구나 즐기는 레저의 천국-한화콘도

4개 체인이 더 늘어 12개 체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 천연 온천수 테마파크 설악워터피아, “백상어” 그레노먼이 직접 설계한 골프코스
스키장까지 갖추고 선보일 춘천한화리조트, 복합리조트 개념의 콘도, 타워콘도,
실버타운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 조각공원까지 갖춘 제주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는 각종 레저·스포츠에서 숙박·휴양까지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종합휴양지입니다.



■ 회원가입문의 본사 : 02)729-5300 FAX : 02)729-3944 강남 : 02)553-3581 울산 : 0522)258-5500 전주 : 0652)232-6800
대구 : 053)252-0444 인천 : 032)434-6750 대전 : 042)523-4191 부산 : 051)463-4000 광주 : 062)232-4722

• 운영중 : 설악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용인한화리조트, 양평한화리조트, 백암한화콘도, 수안보한화콘도, 경주한화콘도, 상정호수한화콘도, 지리산프라자호텔
• 공사중 : 대천한화콘도, 해운대한화콘도, 제주한화리조트, 춘천한화리조트 • 계획중 : 지리산산동한화콘도

서울에서 제주까지 다양한 체이 린

사계절 전천후 종합휴양지

대명설악레저타운

- 천혜의 관광명소에 위치
- 골프장등 다양한 부대시설
- 순환관광버스 운행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만족을 드립니다.”

설악골프장 개장



- 숙박시설 : 683실
- 본관콘도(487실)
- 별관콘도(196실)

- 설악 레저타운 : (0392) 635-8311
- 홍천 레저타운 : (0366) 434-8311
- 양평콘도 : (0338) 71-8311
- 제주그린빌관광호텔 : (064) 32-8311
- 38선휴게소 : (0396) 672-3838

- 대구지사 : (053) 742-7472
- 수원지사 : (0331) 222-5981
- 인천지사 : (032) 432-8311
- 대전지사 : (042) 222-8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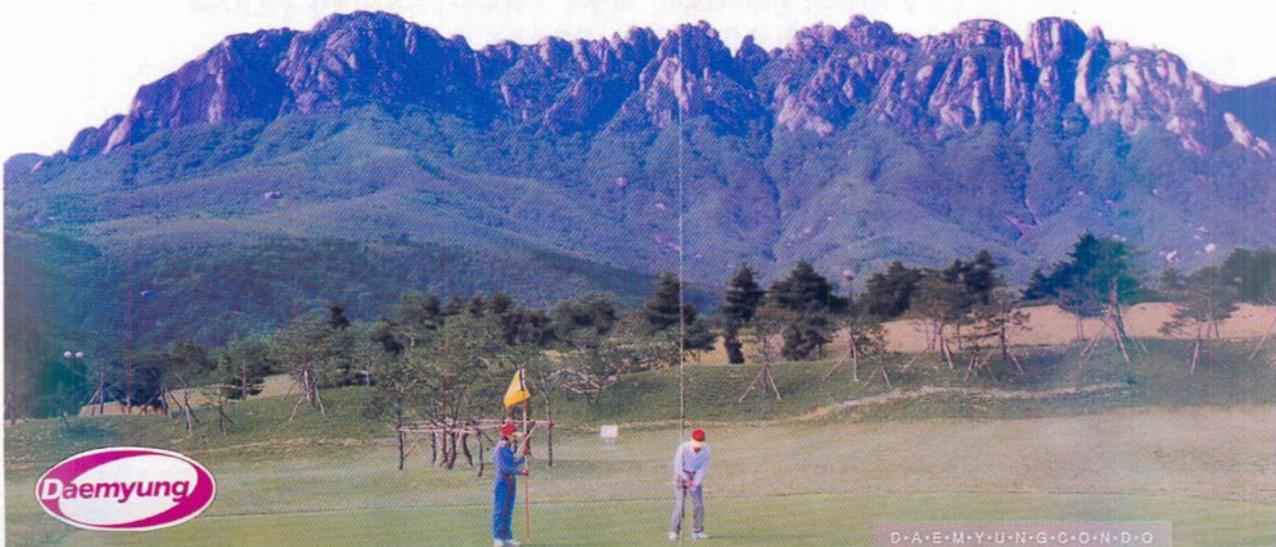


설악골프장

- 피칭골프장 9홀 운영중
- 골프연습장 20타석 운영중
- 대중골프장 9홀 공사완료 (98년 4월 개장)
- 회원제골프장 18홀 : 98년초 착공예정

본 사 : (02) 508-1311/(02) 222-7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5



D·A·E·M·Y·U·N·G·C·O·N·D·O



제1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The 15th Kangwon Folk Arts Contest



속초시 대표 출연 작품
공로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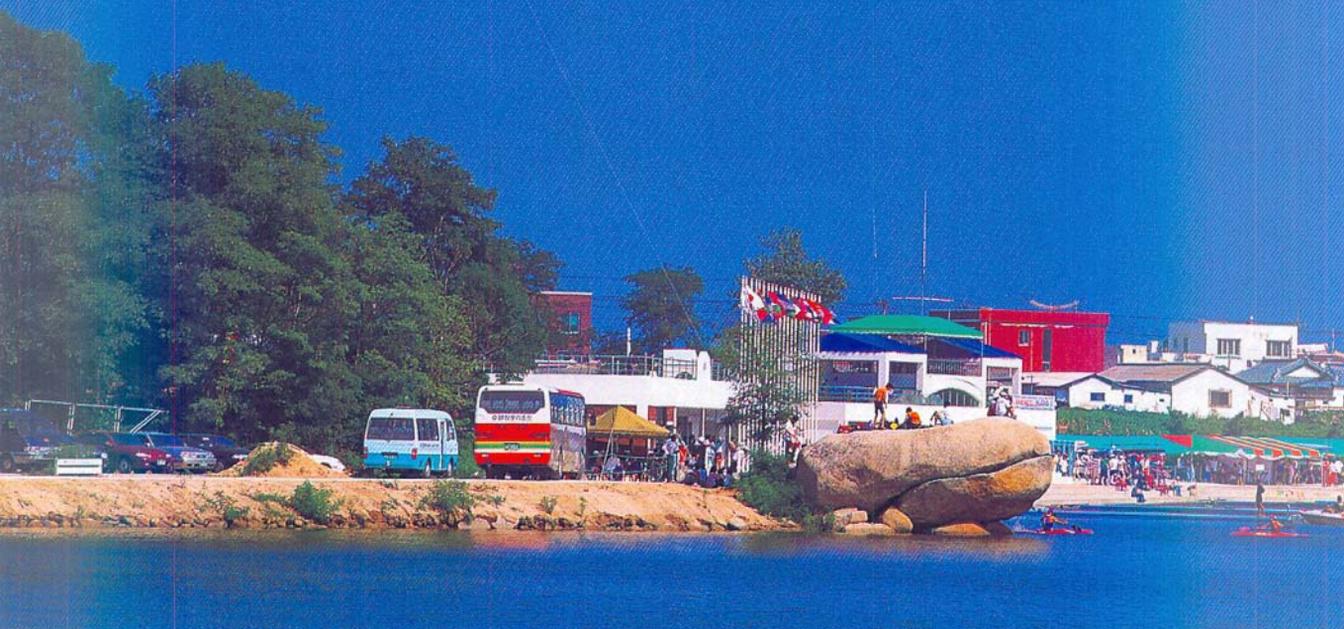
대포동 뱃소리

지난 10월 3일, 평창에서





한국 최초 · 속초 유치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1997. 8. 15~17. 영랑호



우리 나라 제일의 산줄기 백두 대간(白頭大幹)으로부터 흘러내린 산맥이 작고 야트막한 산봉우리를 빚어올려 호수를 둘러싸서 서쪽으로 설악산(雪嶽山 · 1,708m)을 중심으로 영봉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동쪽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곳 영랑호(永郎湖). 한국 최초의 제7회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1977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 한국 3위)는 17개국에서 420여명의 임원 선수들이 펼친 국제 경기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국제 대회를 치른 긍지를 유서 깊은 영랑호반(永郎湖畔)에 오래도록 기록으로 간직할 것이다.



17개국 선수단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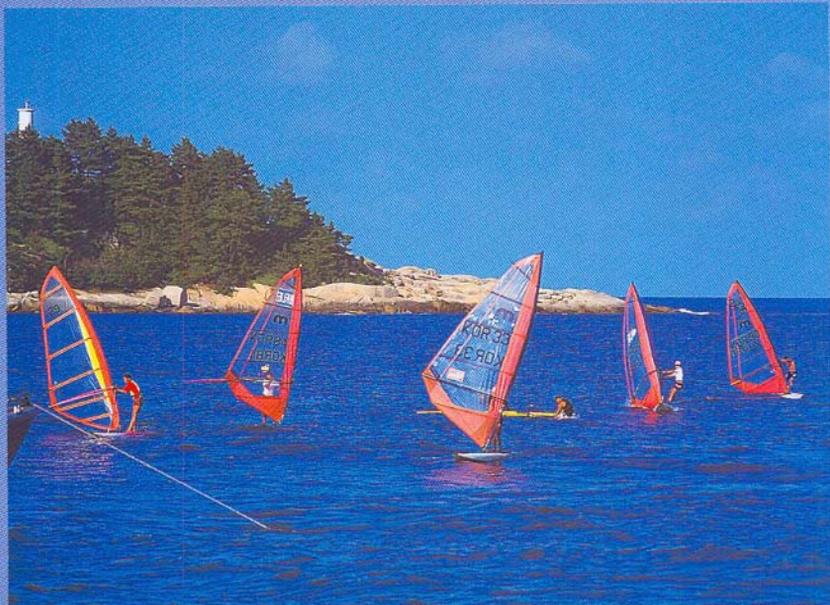


崔洛珉(최낙민)

- 제1회 대한민국 환경사진공모전 은상수상
 - 개인전 2회, 회원전 4회
 - 속초예술총연합회 감사
 - 양양읍 포털리 71-23
- ☎ (0396) 672-3457~8



카누(CANOE) 경기 모습.



제2회 윈드 서핑(Wind Surfing)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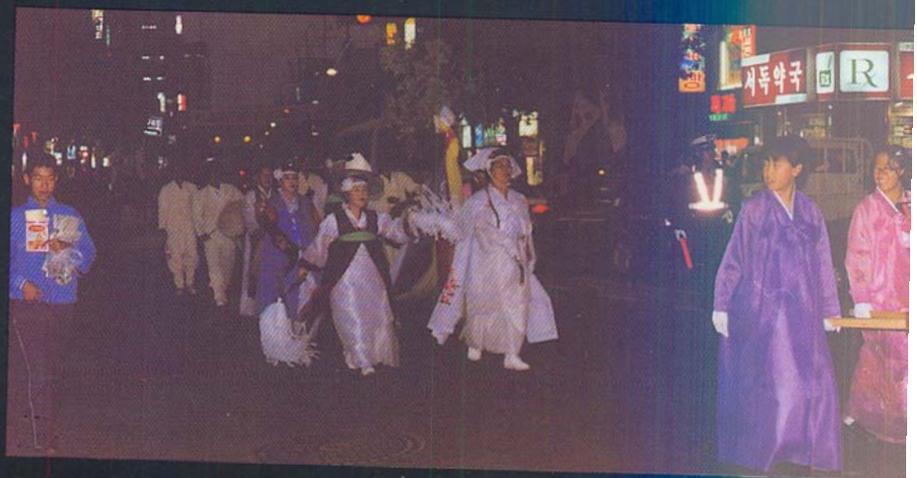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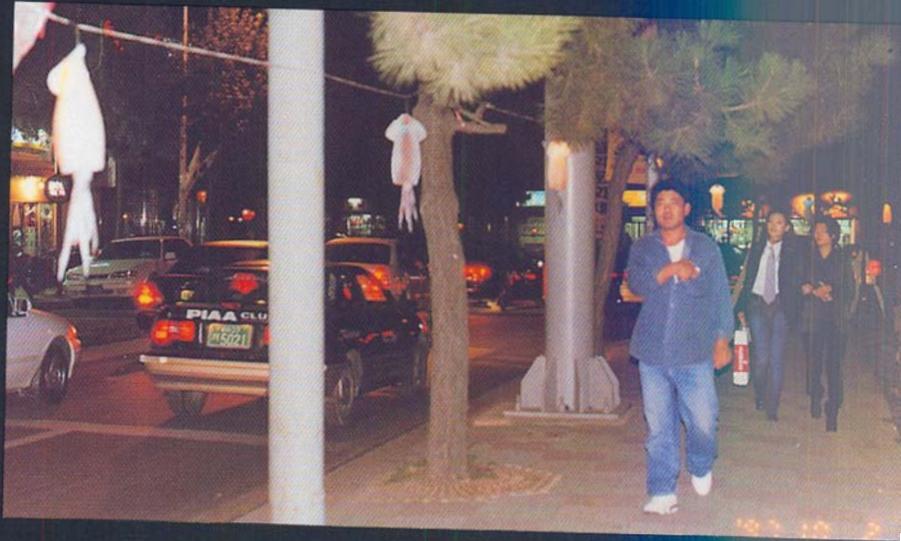




제32회 설악문화제

1997. 10. 2~4

서른 두 번째
설악문화제를 맞은
시내 밤풍광이 아름답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전에서 전야제 밤거리
모습으로 이채로운
것은 오징어 등이
더욱 정답다.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2회 주부백일장이 10월 9일, 551돌 '한글날'을 맞

아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본원 문화사랑방에서 주부 40여 명이 글솜씨를 겨루었다. 산문과 시 부문으로 나누어 겨룬 백일장



에서는 잔잔한 주부들의 생각을 잘 담았다는 평을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았다. 주부들의 투호(投壺) 경기는 일명 정신 투호라고

해서 옛부터 선비들의 몫이었다. 설악문화제에 빠질 수 없는 경기 종목으로 사랑받고 있다.



제32회 설악문화제 전야제인 10월 2일 밤, '통일염원의 밤'으로 방향의 한을 달렸고, 10월 4일 속초문화원이 선사하는



국악초청공연으로 가을 한때를 국악의 진수로 즐길 수 있었으며,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서예와 꽃꽂이 전시회가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을 보였고, 농악시연 또한 볼거리로 흥을 돋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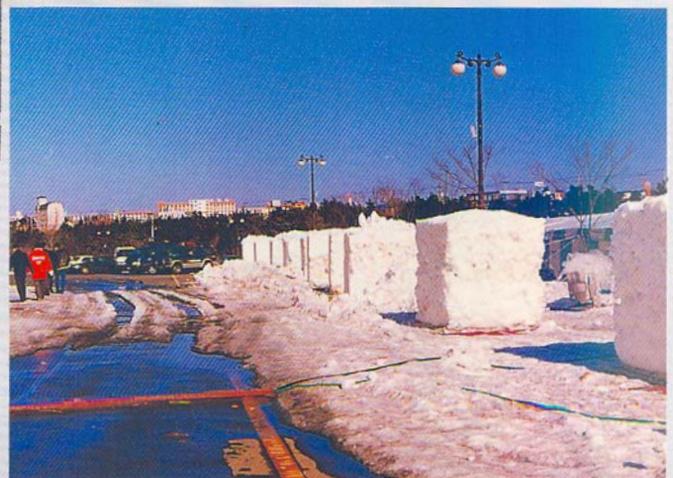
가을이면 설악문화
제가 절정을 이루어
민속행사를 비롯한
풍성한 문화행사들

이 펼쳐지고 있으나
겨울이면 한적하리
만치 텅텅 비우는 공
간을 '96년부터 '설
악눈꽃축제'가 마련



되어 눈이 많이 내리
는 겨울 공간을 채워
주고 있다. 이 고장
주민들 뿐만이 아니
라 설악의 설경을 찾

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는 관광객 유치의 하나로도 크게 각광을 받
고 있다.



6월 11일부터 13
일까지(2박 3일)
속초문화원 이사·
고문 관계 인사들
로 구성된 30여 명
의 탐방단은 서울
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을 돌아보았
다.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롯데
월드 민속관·전쟁
기념관·예술의전
당·민속촌 등으로
'속초향토사료 전
시관' 개관에 앞서
견문을 넓히기 위
한 탐방길이었다.

사진은 위/민속
박물관 앞에서의
일행이며, 가운데
와 아래는 경기도
민속박물관에서 서
울대 임효재 박사와
관장으로부터 설
명을 듣고 있는
일행이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5기생 30여 명이 10월
4~5일(1박 2일), 강원도 일
원의 문화유산 답사길에 올랐
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자장



율사의 숨결이 머무
는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국립공원과
구룡사 등 자칫 놓

치기 쉬운 가까운 곳의 문화
유산을 찾았다.

'문화학교는 노래교실을 비
롯해 장구교실, 꽃꽂이 교실,



서예교실, 어머니합
창단이 운영되고 있
다.

사랑하는 것을 지이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일을 췌라 하
 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禮라 하고 두루 통해하는 것을
 췌라 하며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을 信이라 한다 한뫼

仁 義 禮 智 信

속초서예 · 한문학원

원장 一淵 金東廈



- 대한민국의서예전람회 연4회 입선(94년, 95년, 96년, 97년)
- 강원미술대전 특선, 입선(연5회)
- 한·중서예전 은상(81년)
- 강원도교육감 표창(95년)
- 현 동우전문대학 서예부 지도강사(90년~현재)
- 현 설악여자중학교 서예부 지도강사
- 현 속초서예 · 한문학원장
- 현 속초시학원연합회회장

그리움

하늘도 너무 푸르면

눈물나느니.

이 동해 겨울날

나 빈 옹기 항아리로

달빛이나 담고

저 푸른빛보다 곱으로 푸르른

서리 하늘을 담고

눈물 나느니.

노을 스러지는 쪽으로

비뚜로

몸 기울이고 앉았네.

겨울의 맑음이 두려워

당신 그리는 마음

옹기 항아리로 앉았네.



이 성 선

■ 약 력

- 1941년 강원도 고성출생.
- 고려대 농학과 졸업.
- 1970년 문화비평으로 등단.
- '벌레시인' 등 시집 다수.
- 한국시협상, 정지용 문학상.
- 제1회 '시와시학상' 수상.
- '물소리' 시낭송회 상임시인.

창비 시선96 이성선 시집

《절정의 노래》에서.

속초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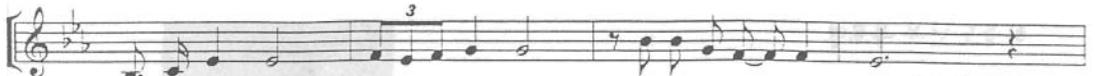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 = 92 - 96

mf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 침 해 떠 오 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 벽 잠 깨 - 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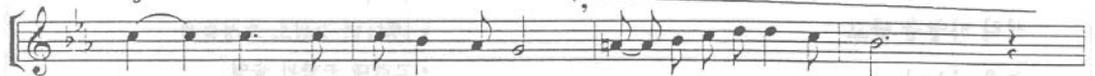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동 풀 - 짜 기 에 흰 구 름 몸 을 문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 닷 가 거 널 어 라

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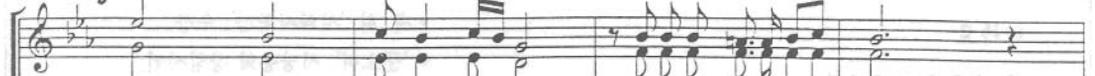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 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 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녀 이 그 - 우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무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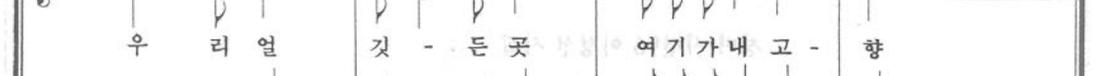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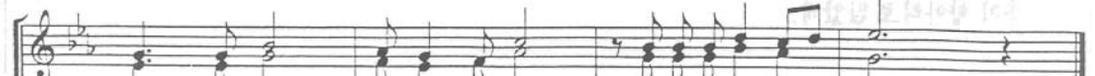


가 자 배 를 젖 - 자 산 으 로 바 다 향 - 해

f



우 리 얼 깃 - 든 곳 여기 가 내 고 - 향



文藝中興宣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의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린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言宜興中藝文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며



崔龍文
속초문화원장

문화적으로는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로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훈민정음(訓民正音·국보 제70호)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국보 제151호)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세계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 가질 수 있었으며 우리 것에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만하다.

속초로서는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치 성숙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좌로 첫째, 제7회 아시아 카누 선수권대회와 둘째, 제4회 '한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은 동해권에서 가지는 비중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99 강원관광 엑스포를 개최하게 됨은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약속 함이라 자부 하겠다.

시로 승격한 지 34년, 높은 건물들 만이 아닌 문화도시로서의 틀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도시의 시민들이 가지는 문화향수와 인식이며 얼마나 문화공간을 갖춘 도시인가가 문화도시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 전달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하려고 함에 있다.

그것은 바로 속초문화지의 지속적인 발간이며,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건립과 같은 문화공간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일이될 것이다.

《속초의 옛과 오늘》·《속초어로민속지》의 발간도 그 뜻을 같이 함은 물론이다.

이번 13호에서는 나름대로 전시민이 동참, 공감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것에 자유롭지 못함을 극복하면서 발간되는 속초문화지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장 문화를 생각하는 해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주체성을 가진 애향심



宋勳錫
국회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우리 고장 속초의 향토애를 고양하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속초문화원에서 「속초문화 13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시민의 정성과 힘을 모아 「속초문화」 발간을 준비해 오신 속초문화원 최용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사회·문화면에 널리 산재하고 있는 지방문화유산을 찾아 그것을 체계화하여 후진에게 알린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따라서 「속초문화」 지는 우리 속초시민에게 지역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시키고 사랑하며 나아가 주체성있는 애향심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OECD 가입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형성된 새로운 경제질서는 우리경제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본격적인 경제전쟁시대에 우리 속초지역이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가지고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지역민의 결속력과 애향심을 다져온 「속초문화」지의 역할과 이를 발간하기 위해 애써오신 속초문화원 관계자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더 또한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속초가 21세기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1997년 정축년(丁丑年)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인년(戊寅年) 새해에는 더 큰 성취와 보람이 전 속초시민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문화는 그 지역의 얼굴



董文星
속초시장

어디를 가더라도 문화는 그 지역의 얼굴이다. 문화의 수준이 그 지역 전체를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를 즐긴다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면 결코 그 지역을 우러러 보지 않는다. 문화는 배부름과 배고픈 것을 채는 단순한 척도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과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깊이를 채는 잣대인 것이다.

21세기를 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 세기를 살아갈 문화적 비결보다는 국가적 부와 개인적 소득에 대한 계산에 바쁘다 보니 우리 나라의 문화가 나아갈 방향과 각 지역들이 자기 지역 문화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까 하는데 대한 논의들은 약간 뒤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지금 챙겨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마가 오늘날 부를 누리는 것은 그들의 고대나 중세사에서 소득면을 따져 잘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역대 왕정들이 노예와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궁전터 등 장엄한 문화 유적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는 것이지 현실 정치가 이상적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부를 향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폭정이 만들어 낸 건축물 등이 문화라는 이름의 유산으로 남아 후대에게 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널리 쓰여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다. 문화와 예술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리고 또 지역의 도량이 문화와 예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을 통괄하는 행정의 기능일 수도, 주민들의 몫일 수도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와 예술에 공감된 인식이다. 문화 예술인의 의지가 합일하고 주민들이 일치된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함께할 때 지방이라는 토양에서 지역 문화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속초를 스스로 비하 하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속초에는 '고유한 문화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시정 실시 50년이 채 안된 이 시기에 그런 말들이 합당한 것인가를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속초처럼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없다.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자기 얼굴과 목소리를 내고 있음은 중앙의 문화계와 예술계, 문단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매년 펴내고 있는 '속초문화(東草文化)'가 바로 그것이고 이제 29집을 펴내려 하고 있는 '문학동인지'《갈피》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간되는 '속초문화' 제13집의 새모습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간사

자긍심을 높여 주는 매체



金鍾數
속초시의회 의장

우리 지역의 문화와 애환을 담은 '속초문화'지의 열세번째 발간을 1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변한 향토지 하나 없는 문화의 불모지에서 뜻있는 지역 인사들에 의해 창간된 '속초문화'지는 해를 거듭할 수록 새롭게 변모 발전하여 왔으며, 향토사 연구와 지역의 뿌리를 찾는 데 귀중한 자료로써 시민의 정서적 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삶의 터전이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상품 가치를 발휘하여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문화를 꽃 피우지 못하는 지역은 쉽게 외국 문화의 조류에 흡수되고 지역의 정신마저 선진 문화에 종속되는 현실에서 지방화시대의 지역 문화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들 가슴마다에 '우리'라는 애향심을 심어 주는 등 고유의 문화창달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향토 문화지의 꾸준한 행보는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려한 자연 환경과 따뜻한 인심 그리고 소박한 향토 문화로 전국은 물론 전세계의 사랑을 받는 복받은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전국의 기관 단체를 통해 우리 고장을 소개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문화를 대내외로 알려 주는 '속초문화'지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면상으로 심도있는 문화 토론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고양시키고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향토문화'지로 자리잡기를 바라 마지 않으며, 다시 한번 '속초문화' 13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속초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東 草 文 化

13호

속초문화원 1997.

인쇄 / 1997년 12월 15일

발행 / 1997년 12월 20일

펴낸이 원장 / 崔 龍 文

주간 / 이 기 을

편집위원 / 박익훈, 이성선, 지웅준,
김광수, 박영도, 최낙민,
최현식, 윤의구, 주상훈,
이인철, 오윤근, 정영래

펴낸곳 / 속초문화원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화 (0392)32-1231. 전송 (0392)32-1241.

박은곳 / 강원일보사 출판국

비매품

《속초문화》지 제작비 일부는 문예진흥기금
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화보/대포동 뱃소리 • 7
- 화보/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최낙민 • 8
- 화보/제32회 설악문화제 • 10
- 권두회호 김동하 • 16
- 권두시/그리움 이성선 • 17
- 속초시가 • 18
- 문예중흥선언 • 19
- 발간사/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며 최용문 • 20
- 축간사/주체성을 가진 애향심 송훈석 • 21
- 축간사/문화는 그 지역의 얼굴 동문성 • 22
- 축간사/자긍심을 높여주는 매체 김중수 • 23
- 논단/복지시책의 기본방향 광상옥 • 26
- 논단/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다 민태식 • 28
- 논단/관광은 유망한 전략산업 임창기 • 37
- 논단/환경해권 도시회의가 가지는 의의 신부용 • 42
- 논단/강원수산업의 발전방향 윤의구 • 45
- 문화유산의 해와 지역문화 최현식 • 51
- 제32회 설악문화제 • 53
- 제9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인 • 55
- 대포동 뱃소리 • 57
- 통일대불 박용렬 • 60
- 특집/설악산 국립공원<13> • 61
- 해상관광 유람선 속초항토기업 주식회사 • 63
- 학교탐방/청대초등학교 • 66
- 속초문화원 소식 • 68
- 한국예총 속초지부 '97 주요사업계획 • 75
-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97년 활동소개 최광호 • 100
- 속초항토사료관 건립에 즈음하여 윤홍렬 • 103

■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백운화 • 107
■ 는개	이태형 • 111
■ 영금정과 해돋이 정자	박영도 • 113
■ 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장규호 • 115
■ 북청사자놀이 속초를 울지 못하는 사자	이인철 • 122
■ 꽃이 나에게 준 선물	임재순 • 124
■ '97 속초서우회전	박학성 • 126
■ 한시/자규시	김종임 • 127
■ 한시/늦가을에 읊은시	문낙준 • 128
■ 한시/오색에서 시회	박익훈 • 129
■ 한시/늦은봄 산경치 외 1편	윤익현 • 130
■ 한시/서늘한 가을 맑게 놀다 외 1편	이기환 • 131
■ 한시/진전사지 답사	황재권 • 132
■ 창작시/여운포 갈대밭	김영미 • 133
■ 창작시/청호동으로 가는 배	지영희 • 134
■ 창작시/운단	장일선 • 135
■ 창작시/오이의 꿈	최숙자 • 136
■ 주부백일장 시/기다림	김미자 • 137
■ 주부백일장 시/기다림	한명옥 • 138
■ 주부백일장 시/계절의 기다림	김중희 • 139
■ 주부백일장 시/기다림	정찬순 • 140
■ 주부백일장 시/가정	김현주 • 141
■ 주부백일장 산문/나의 여고시절	여정은 • 142
■ 주부백일장 산문/내고장의 가을	강명화 • 143
■ 주부백일장 산문/내고장의 가을	안점이 • 145
■ 주부백일장 산문/가을에 묻어난 슬픈기억	안승인 • 147
■ 주부백일장 산문/내고장의 가을	차길자 • 149
■ 학생백일장 산문/용돈	신은영 • 151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153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곽상옥
속초시 부시장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제도다. 전생애를 통하여 건강, 소득, 고용, 교육, 지역활동, 복지, 여가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활동과 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정책결정, 시민사회의 낮은 참여도, 선별주의에 입각한 수혜대상의 한정, 시설보호중심의 사후적보호, 취약한 복지재정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로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조장하지 못했으며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등 요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에 따라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안정 및 질적개선을 위한 복지 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지역단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서비스의 지역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대비한 선진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회 복지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최저생계비 완전보장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



현재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생계·의료·주거등의 기본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완전보장하는 공적 부조의 내실화를 기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취업, 자영창업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립을 위한 생산적 예방적 복지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2) 취약계층 복지서비스강화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신입화, 핵가족화, 고령화시대를 맞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아동, 노인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공동체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편의 및 이용시설확대, 다각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재활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등 사회참여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는 취업기회제공 및 노인 의대책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노인치매질환센터, 노인종합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대등 이용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3) 적극적인 주민참여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복지에 충실을 기하고 능동적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 미만으로 선진국의 20% 수준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과 함께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체계정비, 홍보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와 요보호대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인력은행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주민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재력인사, 기업체등의 사회복지재단설립을 유도하여 민간복지자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4) 통합적인 지역복지 공동체의 구축

복지대상과 복지수요는 대폭증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취약성과 재원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만의 힘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세 부문이 모두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다



閔泰軾

강원도속초교육청 교육장

I. 머리말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당국의 노력에도 학생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의 학생범죄나 학생을 상대로한 범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당국이 내놓은 학교폭력과 성범죄와의 전쟁에는 경찰, 검찰, 학교말고도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책임자인 가정이나 학부모가 빠져 있어서는 학생 문제의 근본 대책은 공성하기 힘들다고 본다.

어느 교양있는 부모가 일곱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나들이를 갔다.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사려는데 「6세이하는 무료」라는 안내문이 보였다. 곧 부모는 아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여섯살이라고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더니 지금은 거짓말을 하라고요」라며 반문했다.

이것은 우리 가정과 사회와 성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자란 청소년들이 지금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스스로 갈등을 이겨내고 인내할 줄 모르는 청소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 사회, 정치의 이중적인 가치관 속에서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움과 기성세대에 대한 경멸감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잘 자랄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학교나 민간단체, 가정, 학부모등이 앞장서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실태, 폭력 요인을 파악하고 폭력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학교내 폭력실태

1. 청소년 비행의 실상

최근 청소년 비행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범죄 현황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표1>

연 도	전체범죄 (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1990	1,402,417	105,567	7.5	55,026	52.1
1991	1,540,914	102,537	6.7	56,496	55.1
1992	1,542,035	99,301	6.4	57,057	57.5
1993	1,738,952	110,604	6.4	66,074	59.7
1994	1,831,833	108,342	5.9	69,611	64.3

자료 : 대검찰청

학생범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이며, 소년범죄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0년도에 전체 소년범죄의 52.1%였던 학생범죄가 1994년에는 64.8%에 이르고 있다.

나. 학생범죄 유형 현황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표2>

(단위:명)

연도	계		폭력사범		절도사범		흉악사범		기 타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990	55,026	100	23,727	43.1	12,275	22.3	1,208	2.2	17,816	32.4
1991	56,496	100	21,333	37.8	13,410	23.7	756	1.3	20,997	37.2
1992	57,057	100	20,336	35.6	14,085	24.7	822	1.4	21,814	38.2
1993	66,074	100	23,286	35.2	14,968	22.7	1,167	1.8	26,653	40.3
1994	69,611	100	25,143	36.1	17,307	24.9	1,730	2.5	25,431	36.5

자료 : 대검찰청

1994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사범이 3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사범 24.9%, 흉악사범 2.5%의 순이다. 1994년의 경우 흉악사범은 1,730명으로 1990년보다 522명 증가하였다.

다. 학생 범죄 동기별 현황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표3>

(단위:명)

연 도		90	91	92	93	94
이 욕 (利 慾)	계	55,024	56,468	57,051	66,054	69,611
	소 계	5,915	4,644	4,834	5,382	11,628
	생활비	520	481	619	660	708
	유 흥 비	3,758	2,783	2,835	3,642	5,089
	허영사치심	1,637	1,380	1,380	1,079	1,045
	기 타					4,786
사행심	1,614	1,139	932	948	655	
원한분노	1,971	1,674	1,157	1,051	1,013	
가정불화	70	78	68	83	76	
유혹	1,033	2,237	1,088	1,618	725	
우연	18,937	16,180	15,629	16,497	17,400	
현실불만					795	
부주의					10,540	
기 타	25,484	30,516	33,343	40,475	26,779	

주 : 이욕(利慾)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을 보면 1994년의 경우 우연이 17,4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욕 11,628명, 주주의 10,540명의 순이다. 이욕중 유흥비 조달이 5,089명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라.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한 비율

<표4> 폭력 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한 비율 (단위:명, %)

구분	전체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금품갈취	1,249 (22.6)	855 (25.9)	729 (40.7)	126 (8.4)	394 (17.6)	352 (28.7)	42 (4.2)
폭행	766 (14.1)	435 (13.4)	374 (21.1)	61 (4.2)	331 (15.1)	300 (24.9)	31 (3.1)

구분	전체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협박	854 (15.8)	524 (16.3)	379 (21.5)	145 (10.0)	330 (15.2)	276 (23.2)	54 (5.4)
폭력범죄 (전체)	1,941 (36.1)	1,245 (38.8)	998 (56.8)	247 (17.0)	696 (32.1)	594 (50.1)	102 (10.5)

* () 안의 %를 구함에 있어서 분모에 사용한 것은 유형별 응답자의 수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수, 즉 그 문항에 대해서 직접 응답한 사례수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전체사례에서 금품갈취의 경우에 22.6%의 분모로 사용된 것은 전체표본 5,587명에서 무응답 49명을 제외한 5,538명이다.(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금품 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의 22.6%에 이르며 이는 조사한 1년 동안의 한 개반에서 10명 정도가 금품 갈취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이 협박으로 조사한 전체 학생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폭행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14.1%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운데 금품 갈취가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품 갈취를 학교유형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중학교에서는 금품갈취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9%로 855명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94명으로 17.6%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금품갈취의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했을 때, 중·고등학교 모두 여자 보다는 남자가 월등히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품갈취를 학교유형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중학교에서는 금품갈취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9%로 855명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94명으로 17.6%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금품갈취의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했을 때, 중·고등학교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가 월등히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측면에서본 비행의 유형

폭력의 의식이나 목적 등 동기에 따라 비행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존형 비행

생존을 위한 어쩔수 없는, 즉 빵을 위해서 시도되는 비행이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도시락을 훔쳐 먹거나, 체육시간에 금전을 훔치는 형태로 나타난다.

나. 장난형 비행

청소년 성장기의 특성을 모험심리에서 비롯되는 일회성 행위 유형이다. 예를 들면 친구 골탕먹이고, 따돌리기, 여학생 놀래주기, 나약한 학생 때려주기 등이다.

다. 모방적 비행

청소년기의 모방심리에 의한 비행이다. 예를들면 성인들을 모방한 유흥가 출입, 폭력행위, 도박, 성인영화 관람, 약물남용 등 또 다른 비행을 일으키게 된다.

라. 체념적 비행

현대사회는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에 엄청난 갈등 요인을 제공한 좌절의 갈등, 사회적 압력으로 부터의 회피나 탈출하려는 갈등이 있다. 무관심, 무계획, 무철학의 다무의식이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을 지배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교내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무관심, 무기력하며, 자살이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마. 청소년이 소속된 사회나 집단, 가정등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자기소외)에 기초한 행위가 일종의 비행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이다.

바. 신념적 비행

자신의 사고에 대한 절대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 외적인 요소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 나타나는 폭력 유형이다. 여호아교를 믿는 학생이 집총이나 수혈,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거나 빈곤가정 학생의 부유가정 학생에 대한 보복 등이다.

Ⅲ. 학교내 폭력 요인

1. 개인적 요인

가. 청소년기의 특이심리(特異心理)

청소년기의 정신적 발달은 육체적 발달보다 늦기 때문에 불안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욕구 불만족이나 갈등 의식을 느끼게 되며, 일체의 권위와 규율에 저항하려는 심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춘기적 특이심리로 인하여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hi)는 개인에 잠재하는 범죄생활을 자아통제력(Self-Control)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즉 자아 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그 만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 개인적 특성

청소년 범죄인은 정직에 대한 인식이나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이 낮으며, 대부분 흡연, 음주, 약물남용의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2. 가정적 요인

가정은 범죄 억제 역할도 수행하지만 범죄의 발생 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아 성장기 학생들의 인격과 품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으로는 각종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문제가정,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결손가정, 부모가 장기간 가정을 비워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재(不在) 가정, 불화로 인간관계와 융화가 결여된 갈등·긴장 가정 등이 있다. 또한 맞벌이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소홀로 인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 가정의 정신적 측면

가족 중에 교도소 복역자 유무와 정신질환자 유무, 부모 생존여부 등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함께 살지않는 경우, 부모의 결혼생활 상대가 정상적이 아닌 경우에 범죄율이 높다.

나. 가정의 물리적 측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내의 편의나 오락시설, 주거지역의 환경상태에 의하여 청소년은 영향을 받는다.

다. 가정교육과 환경

부모의 질책 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화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일관성 있는 훈계와 정확한 가치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자녀의 장래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가정에 대한 애착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가출경험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빈곤, 결손가정, 가정붕괴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행위로써 그자체가 청소년 비행으로 된다.

3. 교육적 요인

가정 다음으로 청소년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 학교이다. 학교는 거의 모든 청소년을 수용하며 하루 일과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써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교주위에는 청소년에 유해한 유흥업소나 선정적인 광고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시설, 수업방법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며, 보수나 지위 등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어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며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교우관계로 인하여 교내 폭력이나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사회적 요인

가. 거주지역

학교 주변의 불량한 환경이나 거주 지역에 술집, 여관, 당구장,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유흥을 모방하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 산업화, 도시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고, 전용적인 사회 규범이 해체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은 금전주의, 한탕주의, 인명경시, 놓고 보자는 풍조 등을 만연시켜 이러한 요인이 청소년 폭력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다. 메스컴

신문, TV, CATV, 영화, 비디오, 소설, 잡지, 광고, 컴퓨터 등의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범행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폭력이나 잔인성, 음란성 등 이를 충분히 소화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가치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IV. 청소년 폭력 대책

위에서 살펴본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인적 측면

학생 자신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힘써야 한다.



학교폭력 추방을 다짐하는 속초시 중학생

첫째,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미래사회와 인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둘째, 조화능력을 길러 다른 사람, 다른 문화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성실하게 일하고,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자기 통제력을 길러 이성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다섯째, 항상 인간 존제의 고귀함은 어떤 것과도 바꿀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2. 피해자 측면

피해자학(Viktimologic)이란 범죄 대상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품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내폭력에 대해서 그 예방과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둘째, 폭력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숨길 경우 계속해서 더욱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교내에서나 교외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혼자서 우범지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넷째, 부모는 평소에 자녀의 교우관계를 알아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 독서실을 가보고 그곳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통행로에서의 취약점 등을 알아두도록 한다.

3. 가정적 측면

청소년 비행이나 소년범죄는 가정교육의 결함, 가정불화, 가족내의 긴장과 대립, 지나친 기대, 무관

심이나 과잉 보호 등 가정 기능의 상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가정교육은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공평하게 존중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 자녀의 능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부모와 청소년 선도를 협의하는 속초교육장

4. 교육적 측면

학교는 청소년의 주된 생활의 장이며, 지역사회에 깊게 결합되어 있는 교육의 장이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입시위주 교육의 지양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은 과감히 고쳐져야 한다. 본래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올바른 가치관 교육, 전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학교 주변의 정화

학교 주변의 정화가 시급하다. 학교주변의 폭력배, 유흥업소의 규제, 심야 배회 학생의 단속 등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전개한다.

다. 또래상담과 실질적 상담활동

청소년은 내적 고민을 주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요선도 학생에 대한 상담은 매일 해야한다. 그래서 그의 심리상태와 고민, 욕구불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특별활동을 적극적 추진

예술제나 음악회, 특별활동 등 청소년들의 특기나 취미를 살려 그들의 정열을 불태울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준다.

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제고
교내 거주 교사나 학교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많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지역사회의 노력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행동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을 유발시키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유해 환경의 정화

타락한 일부 악덕업자들이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묵인, 주류를 판매하고, 전자오락실, 만화가
계 등에서 음란 비디오를 상영하거나 이용업소, 숙박업소 등에서 각종 변태영업을 자행하여 청소년 비
행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자들의 반성이나 지역사회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나. 불건전 대중매체의 규제

신문, 잡지, 영화, 연극, 라디오, TV, 컴퓨터, 비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는 그 내용이 폭력성과 음란
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는 성충동이나 이로 인한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단속과 자율적 규제가 전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청소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성인 오락 시설의 출입을 막고 건전한 청소년의 밝은꿈을 키워 갈 독
서실, 체육관, 지역사회 복지관, 오락시설 등 청소년들이 이를 선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
다.

라. 불우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정부가 지역사회 단체는 소외감을 갖기쉬운 불우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긍지를 갖게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의욕과 정열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V. 맺은말

일련의 학교폭력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가 다함께 타
락한 탓이다. 그 중에서도 원초적 책임은 기성 세대의 과오가 더 크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근본적 치
유는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인분석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효과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별도 교육과 관리에 힘쓰는 한편 전교
원 학생 생활지도 요원화로 총매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위한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해 가정내 교육자로서의 자질함양에 힘써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주고, 교육자들은 교내
에서의 관찰력 있는 생활 지도와 방과후 이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에 힘써야 한다.

거국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청소년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
을 때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의 미래

관광의 미래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1980년 관광진흥법을 제정하고, 1985년 관광진흥법령을 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광은 유망한 전략산업



林昌基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 (주) 동보상사 대표이사
- (주) 동보교역 대표이사
- 속초 상공회의소 회장
- 자유총연맹 속초시 지부장
- 한국수산회 부회장
- 속초시 체육회 상임수석이사
- 속초시 레슬링협회 회장
- KBS방송국(속초)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속초 로타리클럽 회장
- 새 강원 장학회 이사
- 속초 검찰청 장학회 감사
- 무궁화 장학회 이사장(속초 경찰)
- 방위협의회 위원(속초시)
- 보안 지도위원 부위원장(속초 경찰)
- 범죄 예방 고문(속초 경찰)
- 영북지구 충청도민회 고문(전회장)
- 신용보증기금 신용회 위원
- 신한국당 제5지부 후원회장
- 설악문화체 부위원장



◆ 問題의 提起

• 總體的 不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 지난 '97년 1월과 2월의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동기의 경상수지 적자(55억9천만달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 급증한 6억1천만달러(해외유학·연수포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우리는 『관광』이라고 하면 먹고 노는일로 간단히 정의를 내려버리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 경제 살리기에 대한 목소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 이는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 향락산업으로 분류했던 정부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선진국들과 일부 후발산업국에서는 『관광산업』을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발빠른 투자를 계속해 왔으며, 이미 알찬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 觀光産業은 情報産業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戰略産業입니다.

• 정보통신의 System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양보다 질적인 생활의 추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경의 개념은 이미 무너져 『지구촌 세계시민』의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자본기반시설 인력의 국가간 편중에 따른 해외시장 직접 진출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지식증대에 따른 욕구의 증가, 그리고 각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자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 모든 현상들이 관광산업의 향후 비약적인 팽창을 예단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 實態 및 問題點

• 세계관광기구(WTO)와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GNP(Gross National Product)의 12%, 전체 고용인구의 10.6%를 차지하여 단일산업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세계 최대의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국제여행이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세계관광객수는 평균 7.2%, 관광수입은 12.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오는 2000년에는 세계관광객이 6억4천3백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물가는 비싸고 말은 통하지 않으며, 물사용 문제가 어려워지며, 볼거리도 없고, 마땅히 묵을 곳이 없고, 즐길것도 없다. 이 중 몇%의 관광객이 『설악권』을 찾을 것인가?

•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의 장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그냥 묻혀있는 유물로만 비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제대로된 관광문화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어 보신관광과 사치와 낭비, 몰상식과 무질서·무례, 불친절로 민간외교의 역할 등 관광이 우리에게 주는 고부가 가치를 챙기기는 커녕 『어글리 코리아』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지금까지 『설악권』이 국제관광지로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광자원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설악권』과 『오대산』 일대의 관광레저산업, 속초의 항만사업, 양양국제공항의 물류사업, 동해·삼척의 시멘트사업 등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 강원도 영동권역에 몰려 있는데 그동안 이런면도 看過해 왔던 것입니다.

• 또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10년이상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구간별로 공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차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동서고속전철』 건설이 10년 가까이 漂流되고 있는 상황에서

• 『수도권』에서 『설악권』으로 접근하는데 관광 최성수기인 매년 6월, 7월, 8월과 연휴, 그리고 단풍 絶頂期인 매년 10월 1일~15일 여간에는 무려 10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국도와 지방도가 마치 주차장을 彷彿케 하는 등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거대한 주차장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계하는 관광개발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으나 개발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停滞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관광 최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은 말할것도 없고, 요일 집중과 시간 집중이 심하여 특정기간에 관광객이 집중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물가는 상승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또한 『재정경제원』은 속초를 비롯한 고성·양양 등 강원 영북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설악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 설계비 가운데 15억7천5백만 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 하였으나 양양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 이와같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신·증설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와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희생되거나 국토의 종합적 眺望에 없는 무책임 행정으로 『설악권』이 제외되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 지난 '96년도 강원도가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국제규모 『관광EXPO』의 구상을 밝힌 후, 1년 3개월만에 도정사상 최초·최대 규모의 국제행사가 본격 준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99강원관광EXPO』 선포식과 창립총회는 『강원관광 EXPO』의 성공적 개최의지를 도민과 함께 다짐하고 이 행사의 내용을 국내·외 널리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99江原觀光EXPO 선포식』은 江原道の 전략

산업인 관광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국제행사입니다.

• 『99강원관광 EXPO』는 강원도의 관광자원과 시설을 국내·외에 홍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관광시설의 확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XOC)의 확충 등 강원관광의 현안문제를 범도민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시발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또한 『설악권』은 지난 7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구역의 조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지역사정과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에서 그린벨트를 묶듯이 국립공원 경계도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 십수년을 끌어 온 경계조정은 공원구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국립』이라는 『족쇄』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社會間接資本(SOC) 擴充 等 對策 方案

• 지난 90년 이후 江原道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15% 정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내국인 관광객에 편중돼 있는데다가 여름 피서철 한철에만 연중 관광객의 48% 정도가 몰리는 등 심각한 불균형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 관광홍보가 국내위주로 짜여져 있어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아웃바운드』의 관광업체는 57개 업체(전국)나 되지만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업체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 이와함께 안내 유도판의 설치부족 등 미흡한 관광안내 체계가 다시 마련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관광문화 정착도 『설악권』 관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따라서 관광개발에 공개념을 도입, 환경보전과 경관조화를 의무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함

게 새로운 수요에 발맞춘 특수 관광상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관광지역 소득화를 기하려면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이나 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전원 민박 및 향토먹거리 존을 지속 육성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 속초·양양·고성 등의 항구를 관광 항구로 육성하여 『먹거리』나 『볼거리』 등을 집중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역사 문화 탐방코스도 개발해야 합니다.

• 여름편중의 관광수요를 4계절화 하기 위해서는 『비수기 Event』 개발에도 주력하여 겨울철에는 눈꽃, 얼음축제나 겨울바다 기행 등을 개최하고 사원연수회 등을 연중 유치, 관광객들이 계절과 관계없이 찾아오도록 유도해야 하였습니다.

• 또한 대부분 한계절용으로 개발된 시설을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체력단련시설을 묶는 종합휴양시설로 전환, 4계절 전용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관광 mind에 적합한 program을 개발하여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관광산업의 『민·관·학』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업계전문가·학계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현재 콘도 위주의 관광산업에서 『종합리조트형』으로 유도하고 해외위주의 관광홍보와 세일즈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란을 벌여오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정부안이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江原道와 같이 사회간접자본(SOC)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으로서는 민자 SOC 정책을 반기기보다는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 그리고 이와함께 기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류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는 그것 그대로가 江原道の 과제이기도 하므로 SOC에 참여하는 대기업도 강원도 배후 수송망

건설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설악권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천연자원 및 인적·물적 투자에 더하여 친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될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 江原道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환동해권 지방정부 모임』을 통하여 北江原道の 참여를 추진하면서 통일이후 통합 江原道 개발의 전략수립을 위한 노력이 온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 최근 경제현안으로 등장한 무역외 수지적자를 방어하고 『99국제강원관광EXPO』 개최, 2000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 축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내놓은 『관광진흥10개년 계획』은 정부가 『관광』을 『산업』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는 다함께 인식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유치에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 이제부터는 江原道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생각하여, 우선 『관광』과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관광을 단지 과시적 소비행위가 아닌 삶의 재충전 기회로 삼아서 성급한 해외여행 보다는 먼저 우리것을 보고 배우려는 학습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수출산업·문화산업으로써의 인식이 필요하며, 사회만족경영의 개념을 되새겨 보고, 단지 『경제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용하는 사회공동체로서의 경영이 필요합니다.

• 지역관광산업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지역 관광산업의 주인으로써 정열을 쏟게 됩니다.

• 이제는 관광행정, 관광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행태가 이루어져야만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민의식을 스스로가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 관광산업의 지역프로젝트도 관광 경쟁력이 주민경쟁력이라는 주민의식에 기초될 때 크게 성공할 수 있으므로 『관광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 『설악권』은 제주, 경주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연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어 설악산 국립공원의 자연을 활용한 『컨벤션』 육성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박람회』 등 Even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즐겁고, 다채로워야 하며 『개성』, 『목적의식』, 『독창성』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기획과 연출이 탁월해야 합니다.

• 최근 관광객들은 휴일과 주말, 휴가철에 자연이 아름다우며, 환경이 조용한 전원에서 휴식을 취하려 하는 것이 현대인의 욕구이므로 관광지의 콘도미니엄·별장·주말주택·방갈로 등도 『리조트하우스』에 포함시키는 관광문화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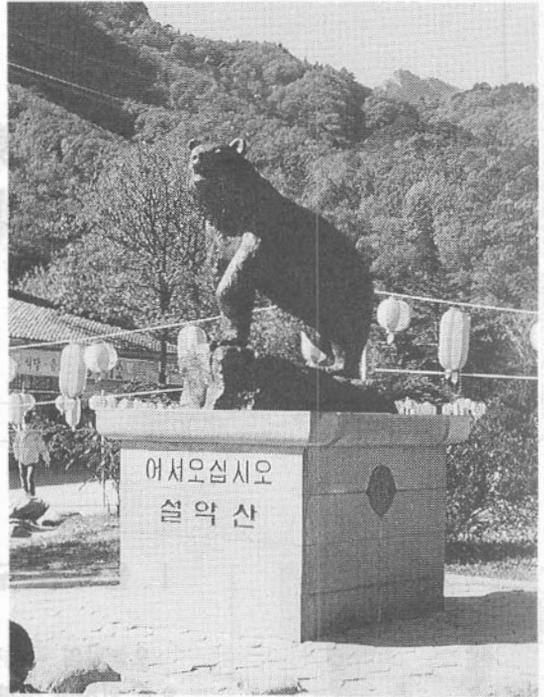
• 설악산 일대의 자연경관과 DMZ를 연계시키는 『평화관광지』도 개발하여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시대의 중심관광권』으로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 그동안 江原道 전역은 국민의 휴가지대로 선정되어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광역권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영동권』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벌여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설악권』은 『21세기 환동해권』 시대를 맞아 통일전진기지로써 관광·무역·수송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산악·해안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영동권』의 동해안 지역이 『U』字형의 개발골격을 갖추어 균형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에 왜 턱없이 비싸가 하는 것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무엇보다도 한국관광의 고비용 구조를 깨야만 합니다.

•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볼 것』, 『놀 것』이 너무나 없거나 비싸며, 별로 볼 것도 없으면서 턱없이 비싸고 사람들은 불친절한 인성을 하루속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고비용 구조 개선과 함께 『관광인프라』 강화와 전주민의 관광요원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 오늘의 관광이 자연경관을 지나가며 구경하는 식의 관광행태가 점차 바뀌어 가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에 인문자원과 스포츠·레저시설을 겸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합니다.

• 금강산과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정서가 깃들여 있으므로 단시일에 관광객을 크게 늘일 수 있으므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세계화하고 나아가서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환동해권도시회의(環東海圈據點都市會議)가 가지는 의의(意義)



申 富 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I.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급변하는 세계화와 역동하는 국제화의 흐름으로 인하여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지구촌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혁신적인 발달은 모든 국가들의 발전속도를 가속화 시켜나가는 정보화의 대변혁기에 접어 들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는 등 각국의 지방분권화 현상은 국가들간에 제각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 향상이 지역진흥의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작금의 국제적 상황은 경제권은 블럭화 현상과 자국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개방화의 흐름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세계경제권의 흐름도 아·태 지역의 경제교역량이 EU의 교역량을 능가하는 추세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오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임을 예고하는 한편 이러한 국제기류를 감지한 국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 교류의 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II. 束草市の 特性과 國際交流 實態

우리시는 알려진 바와같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국립공원 설악산과 푸른 동해바다 그리고 호수와 온천을 지니고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국내 제1의 관광도시로 매년 전국민의 1/5인 700만명이 즐겨찾는 4계절 레저휴양지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5개의 어항을 갖고 있으며 이중 속초항은 연간 하역능력이 100만톤에 달하며 5,000톤급 여객선 2척이 접안 가능한 무역항으로서 지리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관개로 북방교역면에서 가장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는 명실공히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대비하고 천혜적 자연자원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국제관광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는 국제관광항로 개설과 농업공무원 장기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홋토리현 요나고시와도 세계화를 대비한 인재양성차원에서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 하트산스키라이온과는 수산물 가공 원자재의 직교역을 위해 시장 고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미국 오레곤주 그레 샴시와는 문화예술교류와 학생들의 상호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III.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개최와 성과

1994년부터 시작된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는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대비코자 환동해권에 위치한 도시들중 국제적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풍부한 거점도시들로 하여금 우의증진

과 협력을 굳게 다져 나가기 위해 '94년 일본국 홋토리현 요나고시에서 발족한 이래 매년 개최하여 금년에 제4회 회의를 맞이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개최한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는 동해연안에 위치한 4개국 즉, 한국은 속초시와 동해시, 중국에서는 훈춘시, 연길시, 도문시 일본에서는 요나고시, 사카이미나토시, 쓰루가시 러시아 연방에서는 나홋가시 등 9개 거점도시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97. 10. 9 10:00부터 16:00까지 우리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동시통역에 의한 심포지움 형식으로 21세기 환동해권 시대를 위한 거점도시간 협력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회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살펴보면

1. 환동해 거점도시 국제회의체 기반구축.

지금까지 개최한 거점도시 회의에서는 도시간 우의증진과 제각기 도시현황 소개를 주의제로 다루는 등 단순한 국제회의로서의 기능을 보여 왔으나 금년 회의에서는 차기회의 개최지를 중국 훈춘시에서 유치하는 등 국제회의체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2. '99강원국제박람회 적극 참여

'99년 우리시 청초호변에서 개최되는 '99강원 국제관광EXPO는 우리시를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획기적인 모티브가 되므로 이번 회의에 참가한 4개국 9개 거점도시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의지를 다지었음은 매우 고무적 성과라 하겠습니다.

3. 환동해권을 잇는 국제항로 개설협의

국제항로 개설은 우리시 속초항을 개항시키는 동시에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가간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제협력 사업인 만큼 우리시로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속초~훈



춘시간의 국제항로 개설을 동문성 속초시장과 김석인 중국 훈춘시장간에 구체적으로 합의 하였음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여겨지며 본항로 개설이 이루어지면 일본국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와 이어지는 환동해권 국제관광루트 개설 사업이 기본적으로 협의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4. 수산물 원자재 직교역 가능성 진단

국제항로 개설이 이루어진후 속초항만의 기능이 확충되면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 원자재 물류유통과정을 직교역 방식으로 개선가능함을 보여주었음은 향후 우리시가 국제 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5. 본회의와 연계한 여성공무원 비교행정 기회부여

이번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국 대표단에 여성

분야 공무원을 대표단에 합류시켜 여성 공무원들에게 본 회의의 취지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여성분야에 대한 상호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짐으로서 세계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음에도 바람직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IV. 맺는 말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라고 말합니다만 환태평양시대가 목전에 와 있는 현실에서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발빠른 행보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환동해권을 주도해 나아갈 국제적인 비전과 전략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개최하였던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는 우리시가 환동해권의 핵심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하였다고 하겠으며 21세기 국제적인 관광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나큰 공헌과 함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여겨집니다.

■ 논단 ■

강원수산업의 발전방향 해면 이용 개발을 중심으로



尹 義 求
태영수산 대표

강원도는 우리나라 남·서해안과는 달리 파도가 거세고 수심이 깊어 지금까지는 주로 명태, 오징어, 콩치 등 어선어업에 의존하여 잡는어업에만 치중하여 이들 어획량의 풍흉에 따른 어업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왔다. 또한 파도를 막아주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이나 만(灣)이 없어 연안정착성 어류의 서식과 산란장으로도 좋은 환경이 유지되지 못하여 왔다. 해안선도 212km에 불과하여 양식어업도 그동안 우려했던, 다시마 등 일부품종에 국한되어 왔고, 그나마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시설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어 수산세력이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강원연안 외해역에 적합한 가리비 양식기술이 개발되므로써 지금까지 개척하지 못한 외해성 어장개발에 서광이 비치고 있으며, 금후 양식기술 개발이 확대되면 양식어업이 어선어업 소득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들 양식생물을 원료로하는 가공과 유통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본란에서는 강원연안 해면 이용개발을 중심으로 한 강원수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1. 강원연안 해면이용 개발현황

연안수역의 합리적인 어장이용 개발은 어업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어민소득과도 직결된다. 강원도의 어장이용 개발 현황은 표 1에서와 같이 인공어초어장을 제외하면 총개발 적지면적은 35,416ha로서 1994년까지의 기개발면적은 16,369ha이고, 미개발 면적은 19,047ha에 이른다. 이중 어업별 어장개발 현황은 공동어업은 적지면적 11,912ha에 11,126ha가 개발되어 93.4%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어업은 적지면적 4,908ha중 2,764ha가 개발되어 56.3%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다. 제2종 양식어업은 1,596ha의 적지면적중 329ha(20%)가 개발되어 있다. 최근 강원연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리비 양식은 총적지가 17,000ha로 파악되었고 그중 수하식 양

(표 1. 강원연안 해면이용 개발 현황)

(단위 : ha)

구 분		총개발 적지면적	기개발(ha)	미개발(ha)	비고
합 계		35,416	16,369	19,047	
공동어업		11,908	11,126	786	
정치어업		4,908	2,764	2,144	
제2종 양식어업		1,596	329	1,267	
가리비 양식	소 계	17,000	2,150	14,850	
	수하양식	1,000	165	835	
	씨뿌림(살포식)양식	16,000	1,985	14,015	

(1994년 현재)

식적지는 약 1,000ha, 씨뿌림(살포식) 양식적지는 16,000ha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금후 가리비의 증양식장 개발이 기대된다.

2. 해면이용개발의 문제점

강원도의 총개발 적지면적중 기개발된 어업별 어장의 활용 현황을 보면 공동어업은 지금까지는 전복, 성게 등 극히 일부 품종에 대한 소량의 자원조성이 이루어졌을뿐,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거의 자연상태로 재생산되는 자원의 채취 수준에 머물고 있어 어민소득증대에 따른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인 어촌계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정치어업의 경우는 그동안 연안자원의 감소에 따라, 강원북부해역을 제외하고는 어업생산성이 낮아져 점차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어 휴업하는 어장이 증가되고 있으며, 광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타어업의 어장개발 제한으로 수면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어업간 균형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제2종 양식어업 역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리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양식결과 동해안에 적합한 한해성 품종으로 금후 2000년대 강원도 연안 어민의 최소소득원으로 부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생산량을 우선 개인 또는 협업 양식의 경우, 수심 20m 외측은 연안 공동어장 바깥의 수역이나 양식면허 신청의 경우 대부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선어민의 어장사용 동의성 없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양식어장 면허를 얻어내기 힘들다. 또한 가리비 수하양식 어장이 연안의 어선어업 어장과 대부분 중복됨으로서 어업자간의 마찰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가리비 양식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육상항구는 어선어업자가 거의 점유하고 있고, 어촌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작업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유통 산업의 문제점

최근에 들어 빈번한 남해안의 적조 발생과 유류오염 등 양식장의 재해가 속출함에 따라 2000년대에는 강원도가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강원연안에서 지역특산품종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리비를 비롯, 다시마, 연어 등의 대량생산에 대비한 수산

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극히 미흡하다. 가리비의 경우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크게 못미쳐 자연 폐각 그대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량이 극히 적어 금후 소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외국산 저급품의 역수입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연어는 동해안 특산으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으나, 어획량이 적고 가공이나 요리 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아 단지 국민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할 뿐, 지금까지는 어업인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다시마의 경우에는 자연산의 생산량이 많으나, 거의 저서동물의 먹이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양질의 가공제품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지역특산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소량생산과 계절성으로 인해 거의 자생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양식어장의 환경관리

강원도의 양식어장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해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지역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다행히 바다보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후 도시화와 관광산업 및 공업화가 진행되면 오염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깨끗한 바다로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해면이용개발에 있어서는 과도한 어장개발이나 밀식 등이 양식어장의 생산성과 환경에 얼마나 큰 폐해를 주어왔는지를 우리는 남해안에서 지켜보았다. 강원연안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어장환경관리를 잘 해나가면 지속적인 어장보존이 가능하고 양식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어장별 해역별로 어장의 생산성 평가와 함께 환경수용능력을 결정하여 적정량의 양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해면이용 개발과 가공 유통산업의 발전대책

위에서는 강원도의 분야별 해면이용개발 현황과 가공유통산업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는데, 본란에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대책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해면이용을 보면 공동어업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93.4%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발상황은 아직 초기단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후개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연안해역의 공동어장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자원의 보고이나,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극히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어장에는 전복, 성게 등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적합한 품종의 중요생산 방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원관리를 통한 간접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낚시터 조성 등 자원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수면의 적극적 개방과 활용을 통한 소득원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어장에 대한 어촌계원의 주인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며 청년회, 부녀회 등 어촌계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시급할 것으로 본다.

정치어업의 경우에는 연안 자원감소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폐기 방치된 어장은 가리비 등 신제품 양식을 위한 어장으로 대폭정비 전환하여 어장의 합리적 이용과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며, 제2종 양식어업도 조업상태를 진단한 후 생산성이 적은 어장은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가리비 양식의 경우에는 수하식 양식은 이제 산업화 수준까지 기술개발이 확립되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어장확보의 어려움과 부대시설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요에 비해 생산 증가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리비 생산량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양식어업인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며, 양식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함께 기존어항의 공간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인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운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양식을 하고자하는 어업인이 양식어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규정에 없는 어촌계원의 동의서 첨부를 생략토록 하고, 분규발생시에는 양식어업인이 안심하고 양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가리비 씨뿌림(살포식) 양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험양식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효과거양을 위해서는 적지선정에 대한 기본조사 연구와 서식환경 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은 지금까지는 오징어를 제외하고는 대량생산품이 적어 가공이나 유통산업이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오징어의 경우도 연안산보다는 원양산의 가공유통에 의존하여 왔을뿐 가공 및 유통산업이 극히 미미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가리비 양식 등 금후 대량생산 가능 품종에 대한 통조림, 훈제품, 건패주 등 가공식품 기술개발이 착수되고 있으나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투자와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마 등의 해조류는 농어촌 산지가공공장으로 가공운영 되고 있으나 자연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확보가 곤란하고 양질의 제품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원료공급을 양식생산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어의 경우에는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가공 및 유통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연어의 주생산지인 강원도에 수입산 연어를 활용한 산지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해면이용개발을 중심으로한 현안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속적인 양식생산과 어업인의 참여유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수산 개발 관련 모든제도가 막연히 지선어민과 영세어가 및 지선 어촌계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수립되어 있으나, 반면에 모든 산업의 필수요소인 자본 및 자본가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제도인바 지선어민 및 지선어촌계가 발전적으로 자본 및 자본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이상 해면 이용개발과 가공유통 산업의 발전대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개략하였는바, 그 중에서 가급적 개발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몇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각분야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복 증묘 생산사업

전복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기호식품이며, 인근 일본에서도 고가로 유통되고 있는 1매패로서, 식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는 증가하나, 생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한국수산진흥원 강릉수산 증묘배양장이 전복치패를 생산, 도내 각 어촌계에 공급, 어촌계 지선별 어장에 씨뿌림 양식을 하고 있으나, 절대량이 부족하며 남해안 증묘배양장에서의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복 증묘생산 및 양식은 그동안의 많은 연구결과로 양식기술보급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경제성 시설개발 및 관리비 원가절감 등 관련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어 본 사업의 경제성이 높으며, 현재 육상수조 본 양성방법까지 적용되고 있어, 비 어민에게도 권장할 수 있는 해안이용 양식업이라 하겠다.

'95년 강원도립 증묘배양장이 의욕적으로 착공될 예정에 있어, 3, 4년후면 전복증묘도 일정량이 추가 보급되어 도내 연안 씨뿌림 양식장에 살포되겠으나, 강원도 연안은 많은 씨뿌림 양식 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증묘의 절대량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연안해역은 씨뿌림 양식가능적지의 여유외에 어촌계마다 오랜기간동안 전복양식장 관

(표 2. 전북 종묘생산 및 분양현황)

연도별	계	1979~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산량 (천마리)	4,866	3,766	400	300	300	100	200

리 능력이 축적되어 있어 전북종묘만 원할하게 공급된다면, 어촌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따라서 전북종묘생산 사업은 확실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많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기대된다.

2) 가리비 증양식사업

가리비 조개의 국제적인 생산변화와 가치 그리고 기호지역분포에 비추어 볼때, 강원수산에 있어 가리비양식개발은 강원수산의 개발전환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TO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수산물 대표품종으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9년 최초의 자연채묘 성공이후 6년간의 보급 실적은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가리비 증양식 사업의 더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는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문제점만 수하양식과 씨뿌림 증식으로 나누어 검토해 본다.

가. 수하양식

가리비 수하양식의 개발당면 문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면적 확대의 어려움에 있다.

도내 연안해역 가리비 수하양식 적지는 거의 전부 정치망 어업권 보호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해쪽은 수심 40m 이내 해역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정치망 보호구역은 그 득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

정치망 보호구역에 가리비양식면허를 신청할

-강릉수산 종묘 배양장-

경우, 정치망 어업권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어업형태 및 방법상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어 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망 어업권자 들에게 더 경제성 있는 가리비 수하양식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거나, 사업의욕이 저하된 어업권자를 파악, 적절한 가치를 정하여 매입, 가리비 양식희망 어업인에게 적정면적씩 분양이관하는 방법으로 정치망 어업권자의 득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리비 양식의 확대를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의 추진주체는 수산행정과 수산업협동조합이 연계 담당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사료된다.

어장면적 확대 방안이 해결될 경우 많은 어업인들의 양식의욕과 부합되어 항포구, 육상작업장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들도 시간과 함께 더불어 해결되어 가리비 양식이 순조롭게 발전될 것이다.

나. 씨뿌림 증식

가리비 양식 선진국의 예로보아 씨뿌림 증식의 정착은 상당한 세월이 소요된다.(일본의 경우 10년소요) 이는 바다밑 기존생태계에 가리비 서식권을 인위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씨뿌림 증식의 기본요소는 씨뿌림 대상지역에 대한 가리비 천적의 지속적인 제거와 종패의 연속적인 투하에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의 자금력에 비하여 획기적이고 의욕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혼합조성되므로 사업집행시 도는 시, 군별 안배 시, 군은 어촌계별 안배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여러 장소에 순차적으로 분산 살포하게 되어, 오히려 천적에게 먹이를 분산 공급해 주고 있는 현상이 아년가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기히 선정된 적지에 연속적인 종패투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시·군별로 1곳씩을 선정, 어업인 개인에게 제1종 양식어업권을 부여 민간 자본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증식단지 조성을 기하는 방법도 바람직 할 것이다.

3) 수산물 가공(다시마)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중 향후 가공 개발 가능한 원료로는 다시마, 가리비, 연어가 될 것이며, 기존 가공환경을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할 품목은 수입오징어를 원료로한 오징어어묵과 원양명태의 가공부산물을 소재로한 명태액젓을 들 수 있겠다.

가리비는 활패유통이 상당기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공식품개발 연구로 계속하며 개발사업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며, 연어 또한 선진국의 양식변화를 도입, 육상수조식으로 전환, 양산이 이루어진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마는 '70년대 하반기에 양식에는 성공하였으나 유통의 실패로 좌절한 아픈 경험이 있으며, 현재 강원연안 전 해역에는 자연산 다시마가 풍부하게 서식 가공자원 잠재력이 되고 있어, 사업착수가 용이한 품목이며, 계획적이고 양적인 원료수급을 위한 양식착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시마는 근년에 들어 국내에서도 건강식품으로 기호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가까이는 전남 완도를 중심으로한 다시마 양식, 가공의 급격한 발전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의 예로는 일

본이 60년대에 다시마 가공산업이 시작되다가 소비자의 의식미달과 가공기술의 열악으로 실패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가공산업화에 착수, 발전을 거듭하여 200여가지의 가공제품을 개발, 다시마 가공산업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하겠다.

현재 동해시에서 일부 진취적인 어민들이 다시마 가공품생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생산시설로는 산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업규모의 생산시설과 전문적인 경영 및 판촉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성 추진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생산시설들이 계속 확대되어 상품개발 및 판촉을 위한 연계협동조직을 결성 운영하는 것이 발전적일 것이다.

4) 관광어업(연어축제 : Salmon Festival)

세계적으로는 60년대부터 시작되던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정부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10여년이 경과해 오는동안 홍천, 인제 지역을 중심으로 몇개소의 관광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는 아직 관광어업으로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으며, 소형포구들에서 낚시 유어선이 부업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강원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깨끗하고 매력적인 해양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내륙지에 있는 관광소비자들의 호기심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더 해주고 있다.

또한 관광어업은 타 관광산업에 비하여 투자비가 적게들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수입원 부족으로 고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개발 사업으로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해외 지역 문화



崔顯植

속초고를 졸업하고 동국대와 동국대대학원 그리고 관동대 교육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했으며, 육군 소령(군종 법무사)으로 예편하여 현재 속초시민방위 소양 교육 강사이며, 낙산사 상임 법사로 근무하고 있다.

I.

문화유산이란 인류가 역사의 시작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남겨 놓은 모든 유·무형의 역사적 소산물로, 형태가 있든 없든간에 거기에는 그 민족만의 혼과 숨결이 깊숙하게 배어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그것의 가치가 있고 없고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작게는 한민족을 지구상에 존속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크게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보배라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동서가 구분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경쟁하는 혼돈속에 서있는 오늘날 국적없는 저질성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점차 우리의 전통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경제발전과 개발이라는 허울아래 마땅히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이 전국 각지에서 무참하게 파괴·훼손되어 가는데 대하여 국민 모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은 외국 문화유산에 비하여 비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하의 대상도 아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일찍부터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문화유산의 뛰어난 미적감각과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어 왔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95년도에는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 종묘 등이 당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올해에도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또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확정되었으며,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확정된 것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정부가 올 해를 특별히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한 이유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호심을 유발시키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문화대국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느냐와, 어떻게 하면 소중한 민족자산을 국민 모두에게 바로 이해시키고 동참케 하여 지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에 있다 하겠다.

II.

1997년 새해를 알리는 햇살이 채 부श्य지기도 전 1월 21일에 있었던

『문화유산의 해』 선포와 더불어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 문화유산 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라는 주제표어를 내걸고 많은 사업들을 기획·추진해 왔다.

각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내고장 문화유산 알기 운동전개와 문화유산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리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게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 국내·외에 보급하는 것 등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들을 조사·발굴하여 그 가치를 부여해 주고, 심지어는 북한지역에 기반을 둔 무형의 문화재까지도 재현을 통하여 복원하고자 했음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토록 하고, 숨어있는 문화유산 보존·보호 유공자를 발굴 표창한 것은 문화유산의 해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 모두의 문화유산 애호심을 유발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정부나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추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각계 각층의 관련기관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만큼 문화국민으로서의 마음자세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III.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한 나라의 문화는 각 지역의 특성, 즉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 풍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인간성까지도 함께 엿볼 수 있는 지역문화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미적감각이 그속에 배어있는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돌맹이 하나 풀 한포기로부터 나무, 시내, 들과 산, 공기 등 자연환경과 면면히 이어져와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사소한 전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가꾸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만 집착하여 결코 국가라는 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어 나아갈 때야만이 비로소 지역문화는 빛을 발하리라 생각된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하여 흔히 말하는 보물급 문화유산(유·무형)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끊임 없이 새로 발굴하고 복원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전통을 내것처럼 가꾸어 후손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틀림없이 그 지역만이 훌륭한 문화가 정착될 것이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지역문화를 지켜나가는 지역민들의 의무요 권리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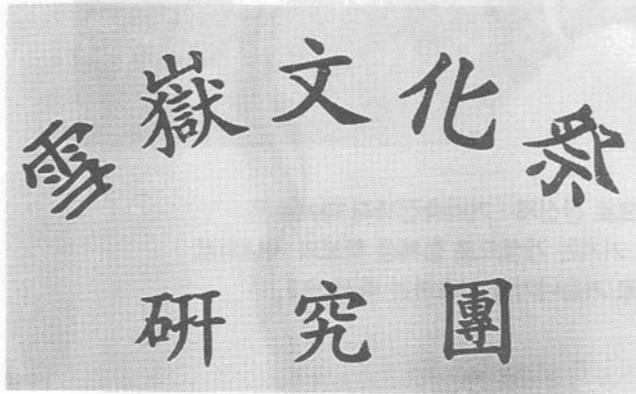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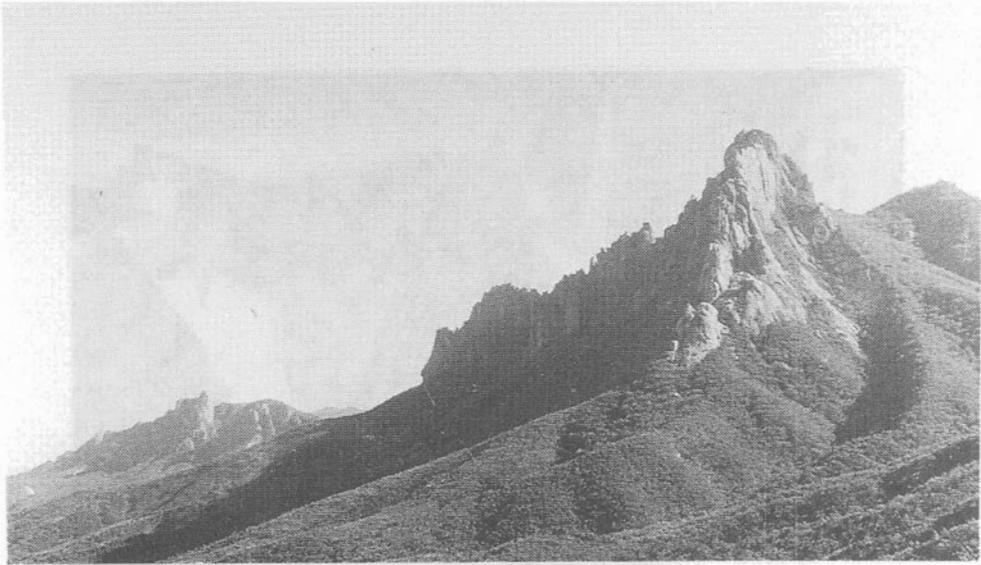
10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산신제·거리축전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설악문화제' 만이 가지는 개성으로 정체성 확보와 국내외로 각광받는 이 고장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지속하는 축전이다.

10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일까지 제32회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 산신제를 시작으로 거리축전까지

제의(祭儀)와 지역 주민과 산악인들의 축제로 30여년을 이어온 설악문화제가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일까지 동명항 향만매립지 주행사장을 비롯해 속초 도심과 설악산에서 사흘간 펼쳐졌다.

올 설악문화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시민화합을 위한 축전이면서 설악산과 속초를 세계에 알리는 관광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꾸며졌다.

2일 오후 설악산 설악동 소공원에서 거행되는 산신제(山神祭)와 오후 3시 대포동 수협어판장에



서 열리는 용왕제를 비롯하여 성황제·삼신헌동제·동해별신굿마당 등 전통적인 제례의식을 통해 시민들의 안녕과 산악·어업인의 무사고를 기원했다.

2일 오후 6시 속초시 전역 가로에 내걸린 오징어등에 불이 밝혀지고 교동 학생체육관~동명항 행사장 구간에서 한복으로 단장한 여학생 5백 명과 악대, 고적대 농악대가 참여하는 제등행렬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오후 7시 동명항 주행사장과 설악동 소공원에서 동시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면서 축전이 시작되

동명항 행사장에서는 실항민의 비원(悲願)을 담은 '통일염원의 밤' 행사가 열렸고, 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가을 콘서트가 각각 2시간 동안 열렸다.

3일 오전 시내일원에서는 가장행렬로 시작돼 동명항 주행사장에서 개최식을 가진 제32회 설악문화제는 설악제례, 산악제전, 통일염원의 밤, 설악예술축전, 해양문화제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 등으로 꾸며진 가을 축제이었다.



향토문화 발전의 주역이다. '83년에는 속초문화원장으로 수북담 복원에도 앞장섰으며 지난 '90년 사재 10억 원으로 '일신강학회'를 설립했다.

교육학술 李虎燾씨

지난 '48년 순천사범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평생을 후학양성에 이바지한 李虎燾씨는 속초지역 학교교육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70년 속초상고 초대교장, '72년 속초설악중 초대교장, '81년 속초상고 교장으로 정년퇴임시까지 향토인재 양성에 전력해왔다. 李씨는 현재 속초문화원 고문, 삼락회 속초시부회장을 맡고 있다.

효행부문 徐貞順씨

10여년간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徐貞順

씨가 효행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여관을 경영하는 徐씨는 지난 '85년 숙박업 종사자 26명으로 '한마음회'라는 봉사단체를 구성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결연활동을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해왔으며 정기적으로 경로당과 양로원을 방문 온정을 나눠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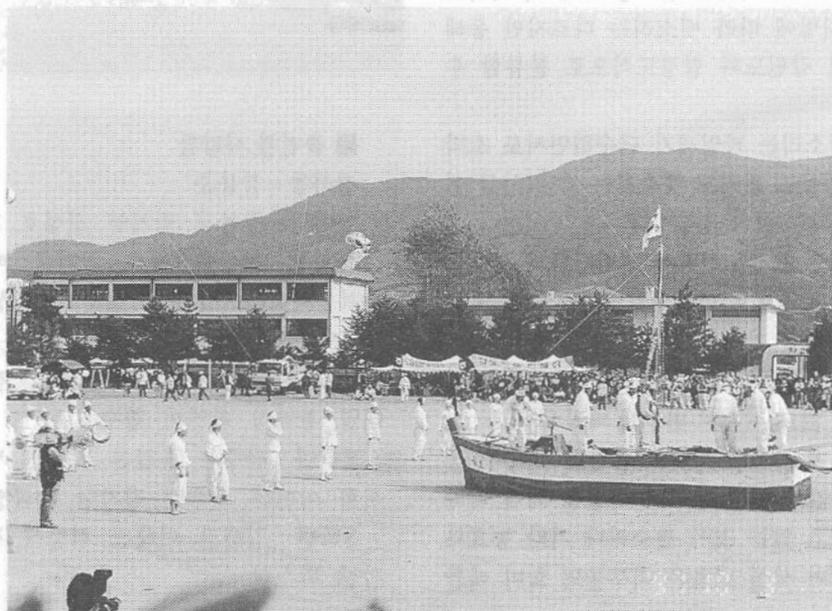
체육부문 李揆喆씨

李揆喆씨는 지난 '91년부터 속초시체육회 부회장 및 사이클연맹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선수육성과 체육발전을 위한 후원활동을 펼쳐왔다. 속초시청 사이클팀 창단에 이어 속초시 사이클팀이 도민체전에서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건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역봉사활동에도 앞장서왔다.

제15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공로상 수상작

출연작품 **대포동 뱃소리**

1997년 10월 3일,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대관령 종합고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5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본 문화원 '대포동 뱃소리(고증·최용문/속초문화원장), (지도·주동진/영북민속문화 연구단장), 노학동(도리원)' '속초농학대'와 속초 상고생, 풍물패 '갯마당' 단원, 소리꾼 김봉진(67·장사동) 등 40명의 단원으로 구성, 속초시 대표로 출연하여 공로상을 받았다.

지금은 관광 수산 도시로 탈바꿈을 하였지만 6, 70년대만 하더라도 수산업이 관광에 앞서던 시대였다.

속초는 해안선을 따라서 발달한 어촌으로 대포동은 자연 부락의 포구로 이곳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촌이 형성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생활 터전이 바다이므로 자연히 바다에 대한 신앙과 조업의 풍속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출어할 때, 그물을 당기며 산대에 담을 때,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끼면서 부르는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뱃소리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리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뱃소리에는 '지어소리'·'다리어소리'·'산대소리'·'베끼소리(가래소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방에 따라 뱃소리는 다르지만 동해안에는 크게 강원도와 함경도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원도 뱃소리는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고 함경도 뱃소리는 잡담(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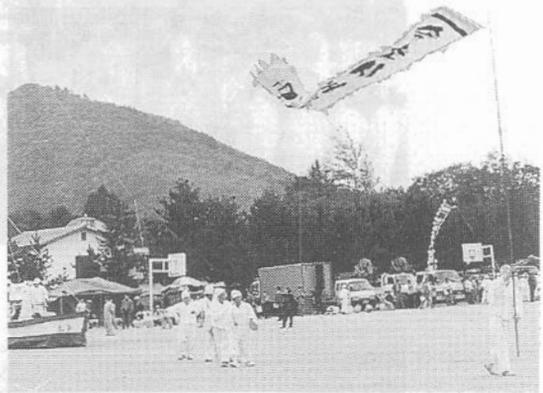
속초 지방은 강원도이면서도 함경도의 특색들이 교차되는 지역으로 나름대로의 뱃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뱃소리는 없고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시조, 고사, 판소리, 패설 등을 사설로 삼입된 것이며, 정형(定形)이 없이 일상 부르던 사설을 때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 판소리나 기타 농요와 다른 특징이며 사설 내용은 어부들의 희비 애환

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구성과 놀이의 과정은

- 제1과장 : 출어~노젓는 소리를 하며 《비아다리》 배가 바다로 나아감을 연출한다.
- 제2과장 : 조업~사공의 지시에 따라 처진 그물을 일제히 당기며 《다리어》 소리를 한다.
- 제3과장 : 산대질~사공의 선창에 맞추어 가래(산대)로 고기를 퍼담으며, 《산대소리》를 한다.
- 제4과장 : 선상 작업~끌어올린 그물안에 고기를 베껴내는 작업을 하는 《베끼소리》를 하며 만선임을 확인하고 만선기를 올린다.
- 제5과장 : 귀항~만선기를 달고 돌아오면서 흥겨운 《지어소리》를 하면서 돛을 내린다.



■ 출연한 사람들

장사동—김봉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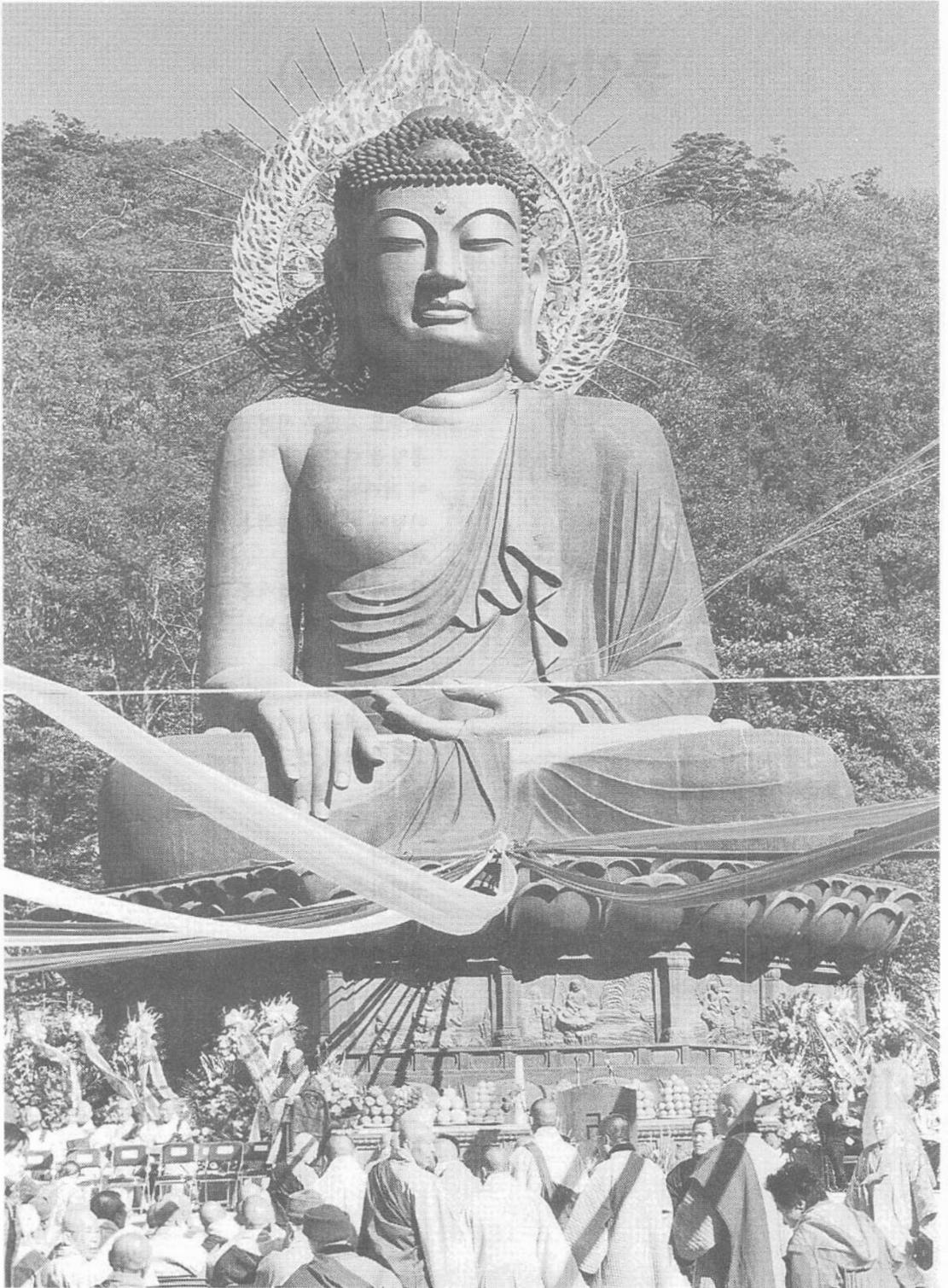
갯마당—주동진, 박치영, 전성호, 김동연

노학동—최철수, 정훈, 장기순, 이호성, 이주복, 최식윤, 김기영, 양춘석, 엄상원, 김덕수, 전상원

상고—1학년 : 함기식, 박종원, 김혜은, 김태열, 황미희, 최영미, 함수정

2학년 : 남주용, 홍길찬, 최승진, 박봉수, 박서희, 이미선, 최수경, 김지현, 추금정, 진정금

3학년 : 김혜진, 이혜진, 김정애, 김은정, 박진영, 박소현



통일대불(統一大佛)

박용렬 시인/속초 신진의원장

내 고운님 얼굴은
중생을 굶어 살피시는
황홀한 부처님의 미소

한 번 끄덕이면
다 알으심인가.

아름다운 금강산 지척에 두고
가로 막힌 휴전선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통일로 향해 가는
어머님동상이 서 있는
설악봉이 둘러싸인 기슭은
옛적부터
불국토의 원광이 서려있는
거룩한 호국의 도랑이었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중생의 고뇌를 헤아리시고
자비로운 자태로 나투어 주시니
번민의 물결 고향을 넘어
무량한 햇살로 번져 나옴은

이 땅 동해로부터
칠흙의 사바세계는
여명으로 밝아 오리라.

오늘도 수많은 시련 모든 고난 겪으며
통일을 다짐하며 염원하는
이 겨레의 소망
이렇게 가을이 높푸른 눈부신 날을
택하여 오신
당신의 말없는 눈매는
사랑으로 충만한 따사로워지는 마음인가.

두호 하소서
모든 오뇌를 씻어 주시옵는
고요에 싸인 섭리

온 누리에
축복이
충만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특집

설악산 국립공원 <13>

별다른 특집

이번호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설악산 통일대불(統一大佛) 점안대법회(點眼大法會)를 계기로 국내 외적 화제의 초점으로 떠오른 통일의 염원이 녹아진 세계적인 설악산 통일청동대불좌상(統一靑銅大佛坐像)이 봉안되기까지의 불법 대역사(大役事)를 약술하여 후일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놓칠 수 없는 특집으로 심는다.

주/편집인

통일을 향해 짓는 염화미소(拈華微笑)일까 설악산 통일대불 점안(雪嶽山統一大佛點眼) 1997년(불기 2541) 10월 25일, 설악산 신흥사

민족 통일의 비원(悲願)을 안은 청동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곳 설악에 나투어 대자비로 비추사 분단의 아픔을 끌어 안았다.

속초 설악산 신흥사(주지 度吼)는 10년간의 통일청동대불좌상(統一靑銅大佛坐像) 조성 불사(佛事)를 마치고 드디어 '97년 10월 25일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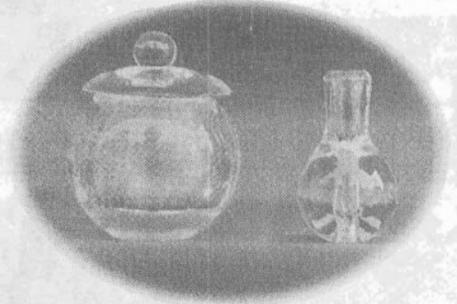
석가모니부처님을 형상화한 청동대불은 거불(巨佛)로서 좌대 높이 4.3m, 대불 높이 14.6m, 좌대 직경 13m, 아파트 6층 높이에 1백8t의 청동이 사용되었다. 8면 좌대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십육 나한상(十六羅漢像)이 섬세하게 돌을 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화려한 것은 지름 10cm의 인조 큐빅 1개와 8cm짜리 8개로된 미간 백호는 중생계의 무명을 밝

혀주듯 찬란한 광채를 발광한다. 점안식*에서는 '92년 미얀마 정부가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와 다리니경, 칠보 등 복장 유물도 봉안되었다.

20세기 불상양식으로 기록될 신흥사 통일대불(新興寺統一大佛)은 불상의 대가 황수영(전 동국대 총장), 정영호(교원대 박물관장), 고(故) 홍정식(전 동국대 교수), 김정기(한림대 교수)가 자문하였다. 불모(佛母) 김성호(불교미술관장)와 자문위원들은 수시로 만나 청동대불의 석고, 주물, 조립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며 제작에 헌신하였다.

'87년 8월 공사를 시작한 청동대불 법사는 4년 동안 석고로 불상의 원형을 만들었고 '94년에는 주물 작업을 끝냈으며, '95년에는 청동조각 조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10년



◇ 복장유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은 사리병.

간의 조성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30만 명이 동참하여 무사하게 봉안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인종과 종교, 종파를 떠나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뜻이 불상 조성에 녹아 들었다. 특히 실향민이 많고 북한과 인접한 신흥사에 통일대불이 봉안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강 같은 세월은 청동대불이 봉안되기까지 설악산 신흥사의 주지스님이 세 분이나(慧法·知洪·度吼) 바뀌는 동안 이른 대역사(大役事)로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불교 문화사에 큰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현대를 철기 시대라고 한다면 철기 시대의 유산으로 후대에 또한 기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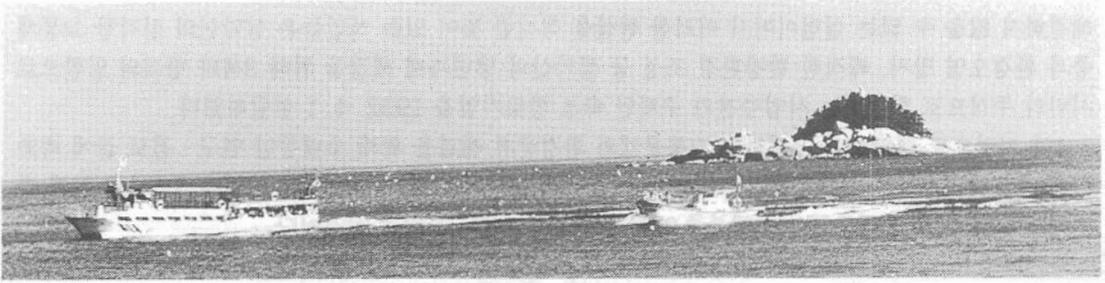
* 점안 의식(點眼儀式)은 불교 신앙의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으로 개안 의식(開眼儀式)이라고도 한다.

불상(佛像)을 점안할 때에는 팔부신장을 청하여 도량을 옹호하게 하고 시방의 불보살님께 오늘의 불상, 탱화에 대한 내력을 설명한다.

또한 오색실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천안통과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 신통력, 용맹력, 자비력, 여래력이 청정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한 뒤에 불상의 눈을 붓으로 그리게 되는 의식이다.



◇ 감은사지 동탑에서 출토된 사리함을 본떠 제작한 사리외함(사진 위)과 사리기(사진 아래).



해상관광 유람선 속초향토기업 주식회사

1. 설립 취지

속초 향토기업이 설립되게 된것은 지방자치체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알맞은 체계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설악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며, 국내에서도 금강산과 필적하는 우리 지역의 유산이다.

이러한 명산이 그간 중앙정부의 임의적, 편리적 정책시행으로 특정 외지인에게 관광개발의 혜택을 주었고, 지역 주민에게는 각종 규제법을 만들어 준법을 요구함으로써 보전, 보호해야 할 지역은 개발하여 훼손하고, 주민의 사생활과 생존권이 보호되어야 할 지역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설악산과 주민은 다같이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 공원구역내의 주민생활 규제 등 수년동안 시달려 왔었다.

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등 다양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관광욕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설악산과 동해의 푸른바다, 특산물인 오징어회와 가리비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고루 갖추고 있는 속초시로, 70년대 후반부터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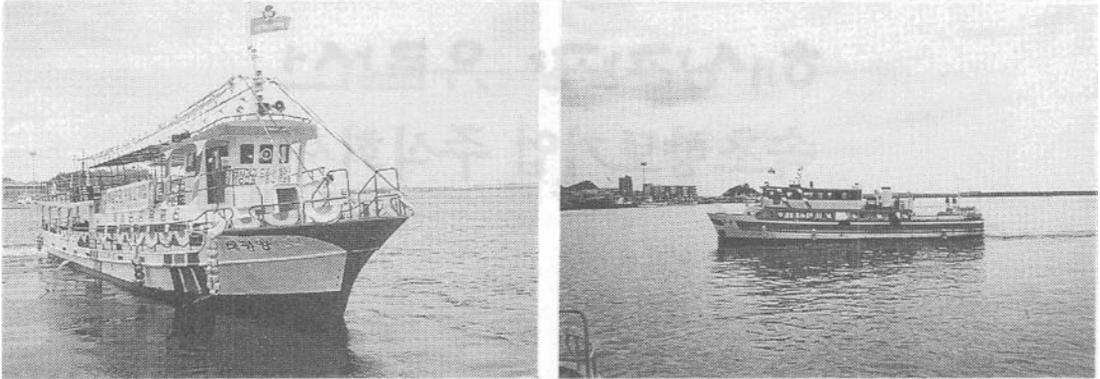
이제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잡이, 특히 성수기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해 많은 관광객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입하는 차량도 적정수준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관광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시설을 설치하므로써 극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가는 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도, 설악산의 상습적인 교통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호수동
8771
2501
속초-봉포섬(1시간 소요)
속초-낙산 1시간(20분 소요)
속초-낙산-수산(2시간 소요)
속초-봉포-송지호(2시간 소요)
1996년부터 운행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뜻이 있는 시민들은 설악산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방지,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등 설악산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3섹타 방식의 일환으로 시민의 주식으로 형성하는 사업추진의 주체인 속초 향토기업을 1992. 4. 1 설립하였다.

1차 사업으로 설악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검토 끝에 속초시와 속초시민기업은 소요자금의 51:49의 비율로 투자하기로 하고 모노레일 사업을 3년여에 걸쳐 추진해 왔으나 일부 중앙부서의 이해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설악산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에서도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고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속초 향토기업의 3섹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속초 향토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모색한 결과 설악산의 모노레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상관광사업에 착수하였다.

해상관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관광사업의 조화를 유지하여 설악산에는 모노레일과 바다에는 해상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기화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1996년 6월 15일부터 해상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이 이제 1년이 지났다. 향토기업은 현재 주주가 70여명이 넘는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8만 시민은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는 시민의 기업이다.

속초 향토기업은 그 설립취지가 그야말로 시민의 순수한 마음으로 속초시의 발전을 기원하며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2. 해상관광 유람선 제원

구 분	태평양호	경주호
정 원	98명	177명
총톤수	29톤	105톤
선 장	21.48m	25.42m
선 폭	4.7m	5.5m
속 력	14노트	15노트

3. 유람선 운항시간 및 코스

구 분	내 용	요 금
운항시간	일출 30분 전-일몰 30분 후	6500원 7000원 미 정 미 정
운항코스	속초-봉포섬(1시간 소요)	
	속초-낙산(1시간 20분)	
	속초-낙산-수산(2시간)	
	속초-봉포-송지호(2시간)	

4. 유람선 승선인원

구 분	승선관광객	비 고
1996년도	8만7천여명	북괴 잠수함사건의 영향
1997년도	15만명예상	

5. 속초 해상관광 유람선의 주요 편성

- 가. 대표이사(김형동)
- 나. 이사진-이사 15명, 감사 2명
- 다. 속초 해상관광 유람선 영업소(한종원)
 - 3개 부 : 영업부, 홍보부, 선박부 운영
 - 현인원 : 13명



한종원 대표이사



해상관광 유람선에서 바라본 속초등대와 영금정



열린교육의 선두주자 청대초등학교(靑垞初等學校)



金榮案
청대초등학교장

청대초등학교는 94년 11월 5일 141,740㎡의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아 95년 7월 12일 가칭 청대초등학교로 신설계획 확정을 받아 2년여의 공사 끝에 97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된 신설학교이다.

본교는 속초시 조양지구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및 고층 APT 단지 밀집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대초등학교의 모태인 71년 3월 1일 개교한 조양초등학교가 문을 연지 실로 26년만의 경사인지라 본교 학부모님들은 물론 속초시민의 크나큰 환대를 받으며 배움의 전당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현황》

■ 연혁

- * 1995. 7. 12 : 청대초등학교로 설립인가(28학급), 유치원(3학급)
- * 1997. 3. 1 : 초대교장 김영채 부임
- * 1997. 3. 1 : 청대초등학교 개교
- * 1997. 3. 3 : 제1회 입학식 및 시업식 거행
- * 1997. 4. 1 : 개교기념식 거행

■ 학생현황

('97. 6. 20 현재)

구분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반	5	3	3	3	32	2	18
학생수	개교당시	206	104	93	98	77	57	635	120
	현재 수	219	131	132	116	101	76	775	120
증가 수			13	27	29	18	24	19	140

■ 교직원 현황

구분	학 교 장	교 감	주임 교사	교 사	계	양호 교사	서 무	기 사	과학 조교	영 양 사	급식 경리	유 치 원			합 계	
												원 감	교 사	보육 사		
남	1	1	5	2	9		1	3								12
여			1	11	12	1			1	1	1	1	3	1	5	21
계	1	1	6	13	21	1	1	3	1	1	1	1	3	1	3	33

청대산의 정기를 받고 청초호의 푸른 기상을 닮아 영원히 뻗어나갈 청대초등학교는 열린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최신식 시설에서 새선생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공부하게 된 800여 학생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 표정들이다.

97년 3월 1일 부임한 초대 교장(金榮棠)은 교육목표를 애향·협동봉사 정신 함양으로 애국인(愛國人)을 기르며, 규범있는 생활을 통하여 예절인(禮節人)을 기르고, 열린 사고 확산으로 실력인(實力人)을 기르며 과학적 소양제고로 탐구인(探究人)을 기르고 기초 체력확보로 건강인(健康人)을 기르도록 하는데 두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에서 열과성을 다하고 희망을 주며 신뢰받는 교사가 슬기롭고 바르며 착한어린이로 길러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게 하자는 전제 아래 학교운명을 실천하고 있다.

특색교육으로는 정서함양과 애향정신 고취와 바른인성 인성지도를 위하여 「애향노래부르기」를 주제로 속초시가, 강원도의 노래, 인접군의 노래, 가족노래, 반가(班歌) 등을 반별, 학년별 대회를 통하여 애창하도록 하고 참가한 전원에서 상(賞)을 주는 전원 시상제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개혁 추진의 측면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위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산행(山行), 가족노래부르기, 어머니 체육대회를 실시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며, 학생들에게는 축하 불러주기를 통한 생일잔치, 나의 자랑 발표회, 취미, 오락교실 운영으로 즐거운 학교의 인상을 깊게 심어 주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에게는 도우미 어머니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지원해주고 자생씨클 활동을 적극 권장 하며 생일날 아침에 생일케익을 선물하는 등 가족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즐거운 교실 분위기 조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반(班)이름 아름답게 지어 부르기를 하고 있는데 1반은 '둥글레' 2반은 '물매화' 3반은 '솜다리' 4반은 '솔나리' 5반은 '해당화' 등 설악산에 자생하는 야생화의 이름을 빌어다 씀으로써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전략으로 태어난 본교가 열린교육의 요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97년 2월 28일

속초문화원 '97년도 사업계획 확정과 제9대 임원개선

제9대 문화원장에 현 崔龍文 원장 유임



속초문화원(원장 崔龍文), '97년도 정기총회가 2월 28일 오전 10시 속초문화원 '문화원 사랑방' 에서 개최되었다.

'96년도 사업과 운영보고, 결산, 감사보고에 이어서 '97년도 사업계획을 ▲민속예술 발굴 및 전승사업 ▲향토문화 학교개강 ▲제32회 설악문화제 경축행사 참여 ▲향토사 발간 ▲향토사료전시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소요예산 3억6천4백70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서 임원 개선에 들어가 현8대 崔龍文원장을 9대원장으로 유임시켰다.

총회는 이어 감사에 崔泓舜, 鄭然泰씨를 유임시키고 이사 선출은 원장에게 위임하였다.



학교장 추천으로 문화원이 시상 효행 청소년 시상 초등교생 9명, 중학생 4명

'97학년도 졸업 시기를 맞아 2월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본 문화원이 효행 청소년에게 시상하여 미풍 양속의 아름다운 미풍을 이어 가도록 이들을 북돋아주었다.

효행 청소년 시상 내역

■ 초등학교

교동/6의 2 김요한. 조양/6의 2 김채현. 영랑/6의 4 신은숙. 속초/6의 4 함승연. 청호/6의 2 김석중. 설악/6의 1 이희연. 온정/6의 1 김도완. 대포/6 김태우. 중앙/6의 1 엄갑자.

■ 중학교

속초중/3의 4 김찬웅. 설악중/3의 5 이영호. 속여중/3의 9 함지현. 설악중/3의 6 김선미.

제26회 전국소년체전 맞이 제2회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97년 5월 25일, 속초시문화회관

본 문화원에서는 영북 지역에서 우리 민속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부설 영북민속 문화연구회 갯마당(대표 지태수) 주관으로 풍물겨루기 한마당으로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속초시와 문예진흥원 후원으로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6개팀이 참가하여 겨룬 결과 금상 영랑초등학교/은상 속초여자중학교/동상 온정초등학교/특별상 양양청성패가 각각 수상하였다.

참가팀은 영랑, 온정, 죽왕 초등학교와 속초여중, 속초중, 양양청성패 등이다.

제3회 바둑대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하는 제7회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가 속초에서 개최됨을 경축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9월 7일(일요일) 본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60여 명의 아마추어 기사들과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교생에 이르기까지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제 본 문화원이 주관하는 이 바둑대회는 명실상부한 속초시민 바둑대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회 대국 결과는 아래와 같다.

미취학 아동부 : 노력상/김태희, 장려상/서현진, 준우승/김완수, 우승/김성기

초등부 저학년 : 노력상/정찰환, 장려상/조수민, 준우승/박민환, 우승/장호

초등부 고학년 : 노력상/박창훈, 장려상/박해룡, 준우승/조형주, 우승/신승민

일반부(병) : 장려상/김주호, 준우승/김준호, 우승/배봉수

일반부(을) : 장려상/최형철, 준우승/김제정, 우승/박용태

일반부(갑) : 장려상/박원석, 준우승/문태승, 우승/박상석



제3회 속초시민 바둑대회 하이라이트

본 문화원이 주관한 제3회 바둑대회 하이라이트는 교동초등학교 2년 진이환(9세) 군이었다. 초전에서부터 일반부 대국으로 4강전까지 진출한 2급의 꼬마 기사로 올해 7월 6일, '강원도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 최우수상을 획득한 만만찮은 재원으로 알려져 있다. 진 군의 대국에는 부모와 외할머니까지 나와 지켜 보는 열의를 보였다.



제32회 설악문화제 경축
속초문화원

제5회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서예 · 꽃꽂이 작품전

10월 1일~3일(3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별관(2층)

본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서예 교실(지도 강사/지웅준·설악서예학원장)과 꽃꽂이 교실(지도 강사/임재순·윤선꽃꽂이 영복지부장)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작품들을 모아 서른두번째 설악문화제를 맞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속초시 문화회관 별관(2층)에서 작품전을 가졌다.

이날 전시된 작품들은 서예 35점, 꽃꽂이 11점 등이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었다. 작품전에는 김여수 설악문화제 위원장, 동문성 속초시장, 최용문 문화회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작품전 테이프를 끊고 축하했다.

서예교실 출품인들

윤정순, 장수임, 윤후금, 최동춘, 한명희, 장연주, 한정희, 이춘애, 이계남, 김숙자, 남정임, 장순임, 남정련, 김령자, 윤일순, 최순자, 최연옥, 조종윤, 김기수, 홍월표

꽃꽂이 교실 출품인들

김정, 남춘자, 장은희(사범), 김분아, 김선자, 김영미, 손인중, 이봉선, 조선자, 최현주, 한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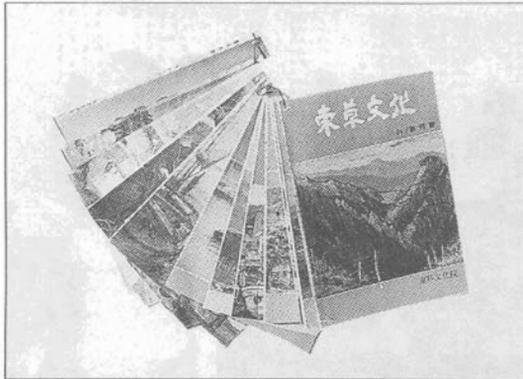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국악초청공연 10월 4일, 동명항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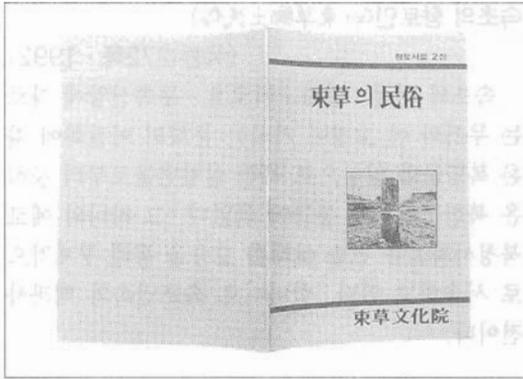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국악초청공연이 본 문화원 주관으로 10월 4일 동명항 매립지에서 우리나라 판소리의 명인 박동진 명창, 경기민요의 명인 이은주 명창, 선소리타령의 김원수, 우리국악순회 단장, 박동진 명인의 지정고수 오병수 악사, 이은주 명인의 문하생 박운종 명창, '96전주대사습 가야금 병창 김옥희 우수상 수상자 등이 초청되어 '국악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속초문화원 발행 도서목록



속초문화(束草文化) '96 제12호 발행
(4×6배판 1984 장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속초문화'는 명실상부한 이 고장 문화예술의 전달 매체로서 한몫을 착실하게 다져 나아가고 있는 속초문화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온 매체이다. 문화와 예술 행사, 고장의 문화재 유적 등 폭넓은 교양지로 자리를 잡아 속초의 유일한 문화선구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속초의 민속(東草民俗)

(국판 40쪽 ·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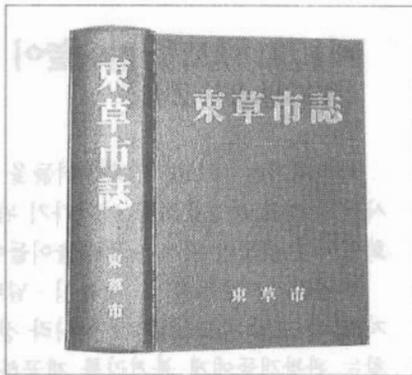
속초 민속의 개관에서부터 지리와 역사적 배경과 설악문화제의 뿌리가 되는 향토신제 설악제, 그 근거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찾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성황제와 용신제 속초의 설화 민요, 이 고장이 가지는 민속놀이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고증까지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속초의 지명(東草地名)

(국판 126쪽 · 1990)

속초의 땅이름이 어느 때 어떤 연유로 붙게 되었으며, 그 속내는 어떠한가 상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각동 이름과 함께 이름 있는 곳의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명산 설악산 곳곳의 이름을 전설과 유래를 찾아 기술하고 있는 속초의 지명사전이랄 수 있다.



속초시지(東草市誌)

(4×6배판 1344쪽 · 1991)

속초의 족보이자 백과사전이랄 수 있는 속초시지로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 · 고려시대 · 조선조 · 일제 강점기 · 북한 공산치하 · 수복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의 행정이양,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속초의 모든 것을 망라하여 엮었다. 지명의 유래와 민속, 전설 · 설화 향토인까지 말미에 수록하고 있다.

한국예총 속초지부 '97 주요사업 계획

각 분야별 예술 활동의 365일



제6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경연

총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 예총) 속초지부에서는 1989년 4월 7일 한국예총 인준이래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속초 사진가협회 등 6개 협회 지부로 구성되어있다.

'97년 현재 5대 김영복 회장을 비롯 간사22명 소속회원 2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속초시는 물론 영북지역 최대의 순수 예술문화 창출 단체로 종합예술제, 설악문화제 문예행사, 기타 정기, 비정기사업 지역간 문예교류사업 등 년 60여건의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양과 질적인 면에서 왕성한 활동 면을 보여 실로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우리고장의 문예발

전과 민족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해 오고 있다. 1997년 한해 동안 속초예총 사업은 아래와 같다.

신년인사회 참가

신년 인사회가 속초상공 회의소 주관으로 설악파크 호텔에서 1월7일 오전에 개최되었다.

김영복 예총회장, 최이권 사진협회장, 장규호 연극협회장 박종성 사무국장 등 예총 임원들이 본회에 참석하였다.

제8차 예총속초지부 정기총회

예총속초지부 연중최고의 의사 결정기구인 제8차 정기총회가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1월18일 오후3시에 개최되었다. 1시간 45분 동안 이어진 본회에서 지난해 결산(안)승인과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 등이 총 재적 대의원 30명중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결하였고 지역 문예창달에 기여하고 헌신하고자 함을 다짐하는 진지한 회의였다.

특히 본 정총에서는 올해를 속초예술회관 건립 원년의 해로 선포 지역 예술인들이 앞장서서 봄 조성을 선도, 순수 예술행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당 건립의 장기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독자적인 예총사무실 확보 및 단일협회 사무실확보의 중기계획과 전시실문제 문예진흥기금의 불합리한 집행 등 산적한 문예 현안들이 집중 논의 되었다.

또한 올해 예총 인준이래 1억원이 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끝으로 김영복 회장은 폐회사에서 50여건에 달하는 올해 사업의 성료에 따른 소속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단일협회간에 유기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하였다.

▶ 중구청 자매결연 참가

속초시와 서울 중구청과의 자매 결연식이 지난 1월22일 중구청 기획 상담실에서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 대표로 연극협회 지부장(장규호)이 예총 부회장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 97-1차 간사회의

97-1차 간사회의가 2월 5일 오후2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97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한 협회지부 상호협조 건

- 잊혀져 가는 설악속초 옛모습 기록사진전

- 제14회 강원연극제

- 강원미협전 (3월23 - 28일: 홍천)

▶ 전시실 확충을 위한 건의 건

- 예총 독자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건의서 채택키로 함.

▶ 제7회 학생예술상 수여

김영복 예총회장은 지난 2월10일과 14일 양일에 거쳐 지난 한해동안 예술문화 부문에 뛰어난 기량으로 지역을 빛낸 지역 중, 고교 졸업생들을 선발해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학생 예술상을 시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속초중학교-조성환

▶설악중학교-이영호

▶속초여자중학교-정상미

▶설악여자중학교-김하령

▶속초고등학교-박재덕

▶속초여자고등학교-정영

▶속초상업고등학교-김지희

▶양양여자중학교-양날개

▶ 최구현 사진전 (잊혀져 가는 설악속초 옛모습 기록전)

최구현 사진전이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사진협회(회장: 최이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제2회 설악 눈꽃축제에 초대된 작품으로 1950-60년대의 우리지역을 찍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작가 최구현씨는 지역 최원로 사진작가이며 현재 활동중인 지역사진인들의 대부분 인정받고 있으며 50년대 초반 지금까지 십 수년간 우리지역의 아름다움 풍광을 작품화해 대부분의 작품이 예술성뿐만 아니라 지역역사와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작가 최구현씨는 1960년대 비인준 상태에서 당시 지역 예술인의 집합체인 속초예총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설악제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예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현재의 설악산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관광

지로 각광을 받기까지에 초창기 최구현씨의 노력과 활동 등은 실로 다대하였다.

설악산 각 명소의 명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육담폭포, 비룡폭포, 문주담, 오련폭포, 염주폭포, 집선봉 등 현재 일반에게 널리 통용되는 명소들의 명칭을 부친 장본인으로서 그의 기여도를 엿볼 수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수 차례의 강원도지사 표창장은 물론 1992년 제4회 속초시민 문화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현재에는 속초 사진협회 교문으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사진활동을 하고있다.



▶ 설악문화제 정기총회 참석

설악문화제 정기총회가 2월 21일 오전11시에 설악문화 리조트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설악문화제 조직개편 후 예총에서는 24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속초 각 기관, 사회단체 중 가장 많은 위원을 배출, 6개 추진 분과에 고루분산되어 활동 중이며 설악문화제가 지역축제의 장과 문예행사로 거듭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예총에서는 당 회에서 이러한 기여도와 정황 설명 등을 통해 예총회장을 설악문화제 부위원장으로 추대됨의 타당성 등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강정균 판토마임

제14회 강원연극제 전야제 행사로 강정균 판토마임이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월 21일 오후7시에 개최되었다.

강정균씨는 한국마임협회 회원으로 춘천 국제 마임페스티벌 고정 출연자이기도 하며 국내에 널리 알려진 마임 이스트이며 속초극장에서 공연은 처음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어느 한 도둑의 이야기" 등 두편을 공연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공연시간은 50분이며 관람객은 350여명이 관람하였다.

▶ 제14회 강원연극제 축하 리셉션

제14회 강원연극제 축하 리셉션이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월21일 오후8시에 성대히 개최되었다.

강원극단대표, 강원연극인, 지역예술인, 초청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연극의 무궁한 발전과 6년만에 개최되는 속초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기원하는 자리였었다.

또한 이날 속초시 문화계 함경찬, 하나잔치위원회 이주동 사장, 두산경일 속초출장소 소장 등이 본 연극제 후원자로서 이영철 연극협회 강원지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 제14회 강원연극제

제14회 강원연극제가 2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오후4시, 7시에(1극당 1일 2회공연) 속초

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원도 최고의 극단들이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연을 벌였다.

91년이래 6년만에 강원연극제를 유치, 전국 연극계 최우수 대통령상 및 지난해 문체부상에 빛나는 속초연극협회가 개최함으로써 강원 제1의 연극 도시로써 위상정립은 물론 강원연극의 현주소와 정수를 시민과 함께 교감, 문예 한마당 큰 잔치로 승화, 문화 시민으로써 자긍심 고양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문예창달에 기여코자 함이었다.

연극협회 강원지회, 강원도, 춘천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연극협회 속초지부, 속초시가 공동 주관한 본 연극제는 최우수 수상팀은 제15회 전국연극제 강원도대표 출전권도 함께 부여된다.

관람료는 학생3,000원, 일반5,000원, 종합 관람료는20,000원이었다. 연극사회, 노뜰, 치악무대가 창작초연을 공연하여 역대 강원연극제에서 질적 향상이 가장 두드러진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이었다.

심사위원은 이영철(현 연극협회 강원지회장), 장규호(현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김경태(전 연극협회 강원지회장) 등이 맡았다.

공연일정은 아래와 같다.

공연일	시군명	극단명	작 품 명	대 표	작 가	연 출
22일	속초시	굴렁쇠	허탕-네팔가는 사람들	김귀선	장 진	김귀선
23일	삼척시	신 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오연수	이문열	오연수
24일	춘천시	연극사회	나의 성모여	엄해용	김현경	안인태
25일	원주시	노 뜰	1919년-사제리	원영호	원영호	원영호
26일	태백시	제4벽	작은할머니	오명환	엄인희	김용남
27일	원주시	치악무대	길동을 찾아서	박전하	박전하	김영수

2월27일 오후 8시30분에 거행된 본 대회 시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극단명	제목/수상자	시 상	상금(천원)
최우수상	노뜰	1919사제리	강원도지사	2,500
우수상	연극사회	나의성모여	(주)춘천 문화방송사장	1,500
장려상 1	굴렁쇠	허탕-네팔가는사람들	속초시장	1,000
장려상 2	제4벽	작은할머니	속초시장	1,000
연출상	노뜰	원영호	예총 강원도 회장	500
무대미술상	치악무대	함승택	연극협회 강원도지회장	500
연기상 1	연극사회	양홍주	속초 문화 원장	500
연기상 2	제4벽	황연경	예총속초지부장	500
무대기술상	노뜰	최위	협찬사	500



중구청 자매시 대표단 방문 행사참가

서울시 중구 자매위원 대표단이 속초시를 지난 3월13일 방한, 오후5시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자매시 결연에 따른 부속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예총부회장(장규호) 참가하여 문예 교류 사업에 대해(자매시 아동미술 교류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97-2차 간사회의

97-2차 간사회의가 3월 19일 오후5시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일정확정 건

- 강원도 청소년연극제 1일 연장
- 문협 백일장, 미협 미술실기대회 사업분리
- (이외사업 원안대로 확정)
- 문예진흥기금 미확보 등 시 보조액 2,600만원 속초시에 지원 협조키로 함.

▶ 속초종합예술제 전야제 건

-미협- 제22회 미협전과 연계하여 추기로 함.

-후원 기획단(단장 : 김귀선)구성 전야제 추진키로 결의

봄맞이 가곡의 밤

도레미 예술기획(음악협회 사무국장 : 원영백) 주최로 3월29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봄

맞이 가곡의 밤이 개최되었다.

오후3시, 7시30분 2회 공연으로 이어진 본 음악회에 테너 이상조(강원대 강사), 바리톤 이대우(중앙대 강사) 소프라노 김우순 (아시아 오페라단 단원) 바리톤 이용찬 (부천시립 합창단 상임단원)등이 동심초, 봄이 오면, 뱃노래 그리운 마음 등 주옥같은 우리가곡과 슈베르트의 들장미, 토스티의 최후의 노래 등을 불러 관람객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다.



제14회 전국예총 대표자 대회 참가

제14차 전국예총 대표자대회가 제주도 KAL HOTEL에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예총 81개 지회지부 및 본부 10개 협회 임원 등 전국예술계의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속초에서는 속초예총 회장(김영복), 사무국장(박중성)이 참석하였다.

1년에 한차례씩 연례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본 대회는 지역 예총의 활성화와 고급 문화예술 정보교환을 통한 민족문예 창달에 목적을 둔 대회로 특히 4년전 부터는 한국문예진흥원의 후원 하에 예술단체의 만남 주제를 설정 강의하여, 전국예술인 대표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예술인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있다.

문화체육부장관, 제주지사, 제주시장 만찬과 강연은 차범석 예술원 부회장), 김치곤(한국기업

메세나협의회 사무차장), 하철경(예총 전라남도 지회장)등이 강의를 했다.

▶ 김대진·조성은 조인트 콘서트
 속초예총이 후원하고 도레미 예술기획(음악협회 사무국장: 원영백) 주최해 지난 4월26일 오후 7시 30분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대진·조성은 조인트 콘서트 개최되었다.

피아니스트 조성은은 1994년부터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예음 실내악단 멤버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그는 불과 11살 때 국립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일찌감치 천부적인 음악재능과 12살 때 독주회를 개최하였고 중앙음악콩쿠르, 이화경향 콩쿠르, 등에서 1위 입상 줄리아드 음대 재학 중 제6회 로베르 카사드쉬 국제음악콩쿠르1위 입상으로 한국인 음악예지를 빛낸 피아니스트이다.

십 수 차례의 외국공연으로 뉴욕타임즈에서 솔리스트가 되기 위한 모든 능력을 갖춘 훌륭한 연주자라고 찬사를 받았다.

줄리아드대 박사학위 및 18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바이올 리스트 조성은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텃거리 뉴저지주립대 박사출신으로 88년 볼티모어 음악협회 주최콩쿠르 1등수상 및 화려한 음악활동으로 뛰어난 감수성과 진지한 탐구정신으로 늘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를 앞서가는 바이올 리스트란 평을 받는 음악가다.

본 조인트 콘서트에서는 요하너스 브람스의 Sonatensatz for Violin and Piano 등을 연주하여 지역음악 관객의 갈채를 받았다.



▶ 제8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
 지역청소년 최대 인기를 자랑하는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이 4월 27일 오후1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예협회 주관(지부장: 김동만)으로 개최되었다.

(총 82팀이 접수하여 이날13개 본선 팀을 선발했으며 건전가요제 본심은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



▶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전야제 및 축하의 밤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전야제 및 축하의 밤 행사가 예총(회장 : 김영복)주관으로 5월12일 오후 6시 30분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속초예총 소속 6개 협회지부(문인·미술·연극·연예·음악·사진협회)가 이후 1달여 간 12개 사업을 전개 명실상부 영북지역 최대의 순수예술 축제로써, 내적으로는 예술인 상호결속과 화합으로 성공적인 예술제로 평가될 수 있도록 다짐과 자축의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외적으로는 설명회를 겸해 종합예술제 개최 목적과 취지를 지역민에게 널리 알리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었다.

제7회 종합예술제인 지난해까지는 예총 자체적으로 전야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별도의 문예사업으로 전환 행사를 대폭 확대시켰다.

내빈으로는 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인, 문화예술인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연을 가졌으며 실내악은 강릉대 음악과 피아노 과에 재학중인 심영은 등 3명이 맡아 분위기를 돋구었다.

본 행사의 후원은 주식회사 보고건설, 속초리복 대리점, 씨혹 스카이라운지, 강원우드산업, 학산교통, 하안집, 하나잔치뷔페 등에서 협찬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속초예총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운 속초시청 문화제 전문위원 최재도씨에게 속초예총 예술인 이름으로 고마운 뜻을 감사패에 담아 김영복 회장이 전달하였다.



▶ 제22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22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5월12일부터 17일

까지(6일간)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20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 5개 장르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백종숙, 옥명준, 윤재복, 김광수, 김남수, 김영복, 박동국, 박종철, 박흥기, 서문일초, 정광섭, 정봉재, 박영근, 고주리, 황혜삼, 김광희, 김동하, 김은숙, 최홍영, 함연호, 등이다.

특히 본 전시회가 종합예술제 전야제 행사와 연계 추진되어 개막식에 속초시 기관단체장이 거의 참석하여 입추의 여지없는 초만원의 기록하는, 속초미협 탄생이후 최대규모로 대성황이었다.



▶ 제5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선

청소년들이 갖고 닦은 음악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숨어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역량 있는 음악도를 양성코자 마련한 제5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선이 음악협회(지부장: 심연흠)주관으로 5월14일 오전10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본 예선은 지난해에까지는 본심 당일날 일괄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사업확대와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신설했다.

피아노 중등부 5명, 피아노 초등 저학년부 9명, 피아노 초등 중년부 21명, 피아노 초등 고학년부 15명, 중등 성악 5명, 초등 성악 8명, 관현악21명 등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부문별 예선 지정곡 및 본선 곡은 다음과 같다.

◎ 피아노 부문 (모든 곡은 반복 없이 연주)

부 문		예 선	본 선
초 등	1, 2학년	클라우 소나티네 Op. 55 No 1(제1악장)	자
	3, 4학년	클레멘티 소나티네 Op. 36 No 6(제1악장)	
	5, 6학년	모짜르트 소나타 K. 279, 280, 330, 332	
중 등 부		베토벤 소나타 5번 Op. 10 No 1(1, 3악장) 10번 Op. 14 No 2(1, 3악장) 18번 Op. 31 No 3(1, 2, 4악장) 24번 Op. 78(1, 2악장)中 반복없이 한악장	유 곡

◎ 성악 부문

부 문		예 선	본 선
초 등 부	1, 2, 3 학년	2학년 교과서 中 추석날, 가을소풍, 바둑이방울, 우리할머니, 노래하자 춤추자 中 1곡	자 유 곡
	4, 5, 6 학년	4학년 교과서 中 고향땅, 새싹들이다, 꽃밭에서, 무지개, 방울꽃 中 1곡	
중 등 부		자 유 곡	

◎ 관현악 부문

부 문		예 선	본 선
초 등 부		자 유 곡	자유곡
중 등 부			

▶ 제5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예술 진흥과 회원간 창작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정기회원전인 제5회 속초사진협회 회원전이 속초사진협회(회장: 최이권)주관으로 5월19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구현, 최이권, 최홍영, 최낙민, 황병진, 김호정, 등 총 17명이 30여점을 출품하였다.
속초예총 소속단체 중 실질적으로 역사성이 깊으나 유일하게 중앙인준이 없는 단체이다.

하지만 금번전시회 평가에서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비약적인 발전의 성과와 안정적인 협회 운영 및 협회를 중심으로 한 내실있는 구심점 확보로 회원의 권익증진에 효과적인 지원 등을 통한 회원 각자간의 창작노력 배가에 힘입어 조속한 시일내 중앙인준이 기대된다.

▶ 제3회 주부백일장

제3회 주부백일장이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주관으로 5월23일 오후2시에 속초시 수복탑

놀이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제8회 학생백일장과 연계하여 진행된 본 대회에 평소 연마한 글 솜씨를 문학창작의 장에 직접 참가시켜 문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한 지역 문학인구 저변확대와 문학발전을 꾀하고자 마련하였다.

총 참가인원 100여명 중 산문부 원고지 12매를 기본으로 당일 발표된 재목 친구, 지는 꽃을 바라보며 시체는 꿈, 만남 등이 주어졌으며 모처럼 자모가 함께 하는 문학축제였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제3회 주부백일장 수상자명단

시

♥ 장 원-장영숙(교동 설악현대 APT 102동 1503호)

♥ 차 상-송민숙(조양동 부영APT309동 1404호)

임정혜(교동 나하나 2차APT 406호)

♥ 차 8383하-정찬순(교동 767-248 7/3)

김경애(삼척시근덕면 본촌리 3반 이종화씨대)
함영옥(영랑동양우APT A-1102호)

♥ 장 려-김은미 외 7명

산문

♥ 장 원-김미자(교동 충용APT 5동 104호)

♥ 차 상-김옥희(천진초등 5학년 김부민 자

모

안승인(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2반 36번지)

♥ 차 하-김산월(영랑초등 2학년 남휘림 자모)

안점이(영랑동 양우APT A동 1304호)

김미화(교동 초등2-6최민규 자모)

♥ 장 려-홍금표외 14명

▶ 제8회 학생백일장

제8회 학생백일장이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주관으로 5월23일 오후2시에 속초시 수복탑 놀이마당에서 제3회 주부(자모)백일장과 함께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 글 솜씨 대회로는 최대의 행사로 자리잡은 본 대회에 지역 청소년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평소 문학에 대한 사랑을 유도 청소년 정서함양과 문학인구 저변확대에 목적을 둔 대회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사랑 받는 대회로 거듭나고있다.

시·산문에서 각기 바다, 청소기, 모래성, 생일잔치, 소원, 가장 아름다운 것 등 주제에 맞춰 지역 초·중·고교생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솜씨를 뽐내었다.

산문은 초등저 원고지 5매, 초등고는 7매, 중등부는 10매, 고등부는 12매 내외의 조건 등에 맞추어, 시부는 원고지 제한없이 시작 솜씨가 이어졌다.

심사는 문인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수상자는 상장 및 도서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제8회 학생백일장 수상자명단

초등학교 저학년부 동시

♥ 장 원-임혜라(속초3-3)

♥ 차 상-김아름(설악2-1) 김태환(영랑3-3)

♥ 차 하-이준경(청대3-3) 최지예(교동2-7) 정미나(교동2-6)

- ♥ 장 려 - 양다비(속초3-6) 외21명
- ☞ 초등학교 저학년부 산문 ☞
- ♥ 대 상 - 정채리(교동3-2)
- ♥ 차 상 - 김소연(영랑2-민들레) 김은아(속초3-4)
- ♥ 차 하 - 강은지(설악3-1) 최수연(영랑2-민들레) 박민환(교동3-9)
- ♥ 장 려 - 백다미(온정2-1) 외6명
- ☞ 초등학교 고학년부 동시 ☞
- ♥ 장 원 - 박배운(설악5-1)
- ♥ 차 상 - 손한나(속초5-2) 김지숙(교동4-3) 김지연(회룡5-1)
- ♥ 차 하 - 조민지(속초5-6) 최은애(교동5-3) 김민성(교동4-6) 박경선(온정5-1) 조은진(영랑5-개나리)
- ♥ 장 려 - 김도연(영랑6-2) 외39명
- ☞ 초등학교 고학년부 산문 ☞
- ♥ 장 원 - 신은영(영랑4)
- ♥ 차 상 - 이수미(속초6-2) 김유지(교동6-2)
- ♥ 차 하 - 이인애(설악6-1) 이다혜(속초6-2) 정현진(영랑6-4)
- ♥ 장 려 - 전해영(온정6-1) 외15명
- ☞ 중학교 시 ☞
- ♥ 장 원 - 최경록(속초중3-1)
- ♥ 차 상 - 안철영(설악중2-6)
- ♥ 차 하 - 전효주(고성중3-3)
- ♥ 장 려 - 김영민(속초중3) 이재명(속초중3) 장용호(속초중3)
- ☞ 중학교 산문 ☞
- ♥ 장 원 - 박정혜(속여중2-8)
- ♥ 차 상 - 최영배(속초중3-8) 정세연(설악중3-8)
- ♥ 차 하 - 김선미(속여중2-6) 정승훈(설악중

- 3-2)
- ♥ 장 려 - 최훈옥(속여중2) 박민성(설악중2) 이용준(속초중1) 박지은(고성3)
- ☞ 고등학교 시 ☞
- ♥ 장 원 - 권주혜(고성고2-2)
- ♥ 차 상 - 김신옥(동광농공고3-2)
- ♥ 차 하 - 최문희(고성고3-2)
- ♥ 장 려 - 박영순(고성고3) 양원석(동광농공고3) 박숙현(동광농공고2) 정의재(동광농공고1)
- ☞ 고등학교 산문 ☞
- ♥ 장 원 - 김연수(고성고3)
- ♥ 차 상 - 김영임(동광농공고)
- ♥ 차 하 - 이권(동광농공고)
- ♥ 장 려 - 김민옥(고성고2) 박희찬(동광농공고)



▣ 제8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영북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지역 미술인구 저변확대를 꾀함으로써 미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한 제8회 청소년 미술실기대회가 5월23일 오후2시 설악한화리조트 프라자랜드 잔디광장에서 속초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금번 대회는 속초시에서 주관한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에 맞추어 설악의 우리 꽃 그리

기 대회를 속초시와 공동 주최하였다.

초등부 1-4년은 8절 캔트지, 초등 5년부터
고등부는 4절 캔트지, 화선지가 지급되어 크레파
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
름다운 풍광과 설악의 꽃 그리기에 지역청소년
2,000여명이 대거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
었다.

더욱이 금번 대회는 대상 3명에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상을 신설 시상 격을 높
였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시상품인 미술용품과 장
학금 100여만원을 별도 책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지도교사상(3명)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주) 신한화구에서 행사비 일부를 후원하였으
며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시상식은 6월2일 오후2시 속초시 문화회관 소
강당에서 수상자, 학부모, 지도·인솔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제8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수상자명단

초등학교 1-2학년부

♥ 대 상-김지윤(교동2-6)

♥ 최우수-고진원(속초1-2) 박단비(속초2-1) 황준형(교동1-7)

성지윤(교동2-4) 조한솔(교동2-4)

♥ 우 수-이 석(교동1-3) 엄인수(교동2-4) 고은하(교동2-6) 조정현(속초2-1) 이하늘(영랑2-봉숭아) 이예지(중앙1-2) 박혜인(교동2-2) 최

윤영(교동1-9) 박은성(속초1-3) 우중환(영랑2-1) 김은희(중앙1-1) 신민철(중앙2-1)

♥ 장 려-심재엽(교동1-1) 외49명

♥ 입 선-정명숙(강현2-1) 외97명

초등학교 3-4학년부

♥ 최우수-이지선(영랑4-1) 이윤휘(중앙3-1) 이지훈(영랑4-3)

♥ 우 수-박여령(교동3-9) 정선윤(교동3-4) 한송희(영랑4-진달래) 이은희(중앙3-1) 최민석(교동3-8) 임은수(영랑4-개나리) 김하나(영랑4-개나리) 진민곤(중앙3-2)

♥ 장 려-정설원(교동3-7) 외 39명

♥ 입 선-송인정(강현4-1) 외 58명

초등학교 5-6학년부

♥ 최우수-박성희(설악6-1) 유소연(속초6-4) 이윤솔(교동6-5)

♥ 우 수-어이지(속초5-6) 조아라(교동5-2) 박단비(교동5-2) 마민호(온정5-1) 최혜영(설악6-1)

♥ 장 려-김윤미(교동5-2) 외 29명

♥ 입 선-김진혁(속초5-5) 외 49명

중학교

♥ 대 상-박연실(양양여중3-2)

♥ 최우수-김정은(속초여중3-1) 황금순(양양여중2-1)

♥ 우 수-서아람(속초여중3-3) 김세롬(속초여중1-6) 국승림(설악여중3-2) 김혜림(양양여중3-1)

♥ 장 려-김진영(속초여중1) 외 3명

♥ 입 선-안동환(설악중1-1) 외 16명

고등학교

♥ 대 상-장지선(속초여고3-2)

♥ 최우수-김보묵(속초고3-3) 김태희(속초여고1-6)

♥ 우수-이미정(동광농공고 3-원예반) 궁남경(속초여고1-6) 박미례(속초여고3-2)

♥ 장려-최현주(속초고2-3) 외 2명

♥ 입선-박종근(속초고1-1) 외 3명

설악의 우리꽃 그리기 대회

♥ 1 등-함영은(설악초등5-1)

♥ 2 등-안은비(영랑초등6-봉숭아) 방재향(청대초등2-2)

♥ 3 등-조도은(속초초등1-3) 전창욱(속초초등5-4) 최윤진(속초초등6-2) 정유미(설악초등3-1) 오수연(설악초등6-1)

♥ 입선-김보배(광정3-1) 외 150명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

청소년의 달을 맞춰 역량 있는 음악인을 초청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청소년 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할 목적으로 음악협회 주관(지부장 : 심연흠)으로 푸른 오월을 위한 콘서트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월23일 오후 7시30분에 성대히 개최되었다.

박라나 하프, 성필관의 오보에, 현재 대진고등학교 교사인 문선옥의 소프라노, 속초여중 재직 중인 테너 황영승 등이 출연하였다.

박라나씨는 속초무대에서 수 차례 공연한바 있으며, 줄리아드음대 동대학원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 엘리자벳 하버트 호빈 콩쿠르 1위 등을 비롯 레닌그라드 국립콘서트 협연, 서울시향 등 국내외 저명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과 협연했으며 현 예원학교, 서울대, 중앙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성필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립음대졸업, UM학위 취득 및 미국 유립순회 공연과 84년 서울목관 4중주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연주활동 중이다.

이날연주에서 "발프의 말리브란이 좋아하는 아리아" "디스의 푸른 옷소매 환상곡" "셀톡의 한밤중의 하프소리" 등을 연주하여 많은 음악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제5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선

지난5월14일 예심을 거친 제5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 행사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흠) 주관으로 5월24일 오후1시에 개최되었다.

최고상을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상을 신설하는 등 시상규모와 시상범위 등을 대폭 확대시켜 지난해 대비 행사를 질적 향상을 꾀하여 추진하였다.

심사위원은 박희경, 강성애, 김지미, 박석자, 이현녀씨 등 외부 초청인사들로 위촉하여 심사를 보았다.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계	비고
피아노	초등1-2	성지윤	김혜민	유하나	김소연	4	금상, 속초시장상
	초등3-4	배슬기	송민영 이은아	권진주 박세경 이지은	최이슬 오정은	8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계	비고
피아노	초등5-6	김우영	김수현 채영은	김수정 이진	이은미	6	
	중 등	최예지	정혜신	유수아		3	대상, 음협이사장상
관현악	초 등	지혜민	김남희 정한솔	강선혜 정하빈	이도영	6	
	중 등	김지영 송수정	황미희			3	
성악	초등 저		최영한		고혜수 이상민	3	
	초등 고		정혜윤	조유선 박경희		3	
	중 등		임혜영	고은경		2	
계	1	7	12	11	7	38	



▶ 자매시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주관으로 제2회 자매시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지난 5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속초시 자매시인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중구, 전북 정읍시, 일본 요나고시 외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초등학교 학생 작품 등 총 350점이 본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외국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해볼 수 있

는 기회로 삼아 지역 아동 미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본 전시회에 지역초등학교 및 미술학원학생들 수천명이 대거 단체관람을 하여 초만원 을 이루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개막식에서도 국제문예 교류인 만큼 자매시 위



원장, 기관단체장 등 내빈들이 예술인 대표자, 시 관계자 등이 테이프 커팅에 참가했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연극협회(지부장: 장규호)에서는 제8회 속초 종합예술제를 기념하여 연극협회 속초지부 정기 공연을 지난 5월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총3회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만희 작품으로 공연 작은 "불 좀 꺼 주세요"이다. 속초연극협회에서는 이만희씨 작 "돼지와 오토바이" 강원연극제에 출품한 바도 있으며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연극제에서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현재 활동중인 극작가 중 가장 역량있는 작가로 평가되어진다.

이 작품 『불꺼』는 평소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표현한 속 모습의 나인 분신이 등장한다. 분신을 통하여 일상과 일상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본능적 아름다움을 표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배어있는 작품이다.

캐스트는 박영미, 정경숙, 이해경, 김귀선, 최문복, 최철혁 등이 출연하였고 박영근, 정승균, 송재희 등이 스태프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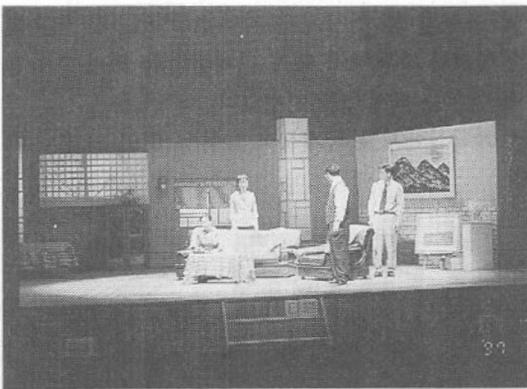
특히 본 공연 후 수입금 70만원 전액은 "북한

어린이 돕기 쌀 보내기" 기금으로 설악신문에 기탁하여 '한민족 동포애와 동질성 회복에 지역 예술인이 앞장섰다'는 지역민으로 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제8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주관으로 6월1일 오후2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청소년 건전가요제를 개최하였다. 지난4월 27일 예심을 거쳐 13개 팀을 선발한 학생들로 지난해 대비 최고상을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상을 신설 시상규모를 대폭확대 격상시켰다.

제8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선 진출자 명단 및 수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본선진출자 전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주어졌다.



번호	성명	학교	곡명	시상내역
1	송지현	고성고	기억해줘	장려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장학금 7만원
2	강미라	동광농고	널 보낸 후에	은상 : 속초예총회장상 - 장학금 10만원
3	이창익 이현성	양양고	잃어버린 너	
4	남우용	설악중	프리스	
5	임주영	속초중	널 보낸 후에	금상 : 속초시장장 - 장학금 15만원

번호	성명	학교	곡명	시상내역
6	김지현	동광농고	라일락이 질때	
7	강옥희 장은정	설여중	운명	인기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장학금 5만원
8	김영민	동광농고	그대와 영원히	
9	장선무	양여고	애송이의 사랑	장려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장학금 7만원
10	최희영	속여고	후회없는 사랑	대상 : 사단법인한국연예협회 이사장상 - 장학금 20만원
11	조영순	속초상고	키작은하늘	
12	최종국	방통고	천일동안	노력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13	정보라	속여중	난 널 사랑해	동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장학금 8만원

▶ 학생미술 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

지난 5월 23일 설악한화 프라자에서 개최한 제8회 학생미술 실기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 시상식이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6월 2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입상작 전시회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7일까지 6일간 이어졌다.

전년에 자매시 국제아동 미술교류전과 함께 전시된 사업을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전시실 협소관계로 부득이 사업을 분리추진 순수 지역학생미술 입선작만을 전시했다. 전시작은 250여 점으로 미술실기 참가자, 지역미술교사, 특히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전시기간 내 많은 관람을 하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 제6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강원연극발전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표현력, 발표력, 화술, 행동예절, 협동심, 성취감,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 및 무대연출, 연기, 음악, 무용, 미술, 문예창작 등의 분야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 계발하고 청소년 예술 교육의 장으로써 심성교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6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였다.

6월9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1일 1개교 당 오후4시, 7시, 2회 공연,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계속된 본 대회에는 특히 제1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강원도 예선대회를 겸해서 추진되었다.

공연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학교 당 무대제작비로 속초연극협회에서 50만원씩 지원하였다.

공연일시	공 연 학 교	공 연 작	원 작	지도교사
6월 9일	강릉여자고등학교	불타는 별들	윤대성	이 숙
6월 10일	춘천실업고등학교	유치원에서 생긴일	윤학철	조은주
6월 11일	성수여자상업고교	불타는 별들	윤대선	이도현
6월 12일	철암고등학교	헤더웨이집의 유령	존머리	최정하
6월 13일	황지여자상업고교	뜻대로 생각하세요	피란델로	김정숙
6월 14일	속초상업고등학교	관광지대	박조열	조수현
6월 15일	강릉문성고등학교	어머니 7티 괴시리 업세라	정의돈	정의돈



협회 강원지회장인 김경태, 한국연극협회 이사이며 현 극당 '전망' 대표 심재찬씨가 맡았다. 6월 15일 강릉문성고교 공연직후인 오후 8시30분 공연장에서 시상식이 이어졌다.

백성희 심사위원장은 6회째를 맞는 강원청소년 연극제가 장래 강원연극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지난 수회의 심사위원을 맡아본 결과 나날이 발전함을 피부로 느낀다면서 지도교사 및 출연학생들의 그간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각급 기관단체장 및 시민, 공연참가학생 및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성대히 시상식이 거행되었으며 수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번 대회의 심사는 전 국립극장장이며, 한국연극협회 부 이사장 이었던 백성희, 전 한국연극

시상내용	학교명	수상자	시 상 자	시상금
최우수상	황지여상	-	강원도지사	50만원
지도교사상	황지여상	김정숙	강원도 교육감	20만원
우수상	성수여상	-	속초시장	30만원
장려상	문성고교	-	연극협회 강원도지회장	20만원
	강릉여고	전지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성수여상	홍미숙		
	황지여상	함희선		
연기상	문성고교	최은영		각10만
무대미술상	속초상고	-	속초예총 회장	10만원
무대기술상	속초상고	-	협찬단체장	10만원



▶ 제2회 속초문화 예술인 친선체육대회

지난해에 이어 속초문화예술인 친선체육대회가 6월 21일 속초시 문화회관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대회에서는 속초시 문화회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문화회관 및 회관 내 사회단체가 연중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며 지역 문예발전에 대한 현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 및 의견도출로 지역문예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지난해 문화회관에 이어 순연 차례인 예총주관(회장: 김영복)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한달 간 계속된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평가회"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도 함께 부여된 대회였다. 속초문화원 이사 및 회원 예총소속 지역예술인 및 가족, 문화예술담당 공무원, 기관단체장, 지역연인 등 200여명이 참가, 장기자랑 및 지역문예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레오페레에서 대회참가자 기념품 일체를 후원하였으며 한백광고에서 현수막 기타 여러 단체에서 본 행사에 후원하였다.



▶ 97-3차 간사회의

97-3차 간사회의가 7월 2일 오후6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속초시 문화제 전문위원 추천 건

-음악협회 사무국장(원영백) 추천키로 함.

▶최구현 사협고문 예총내 예우 건

-역대회장단과 같이 예총사무실에 사진을개침 예우키로결정

▶대한민국 예술상 추천건

-예총사무국장 개별신청키로 함.

▶복사기수선 및 T 테이블 구입 건(소요자금 총액 90만원)

-각협회 회비 지원금으로 충원키로 결의.

▶ 제1회 설악청소년 음악회

제1회 설악청소년 음악회가 7월8일 오후7시 30분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협회(지부장: 심연홍)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지난5월 24일 개최한 제5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수상자를 선별해 발표회의 성격을 띤 공연으로서 발표회 준비로 출연자들이 많은 연습과정 등을 통해 무대에서고 감상학생들에게도 촉진효과 등을 유도, 지역청소년 음악발전에 이바지함이 다대할 것으로 사례되어 지난해부터 사업을 구상 전격 추진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대규모 음악발

표회 개최한 예는 드문 사례이다.

성악-정혜운, 고혜수, 임혜영, 피아노-정혜신, 김우영, 최예지, 성지윤, 배슬기, 플루트-정한솔, 첼로-김지영, 바이올린, 송수정, 등이 출연하였으며 공연직후 출연자 및 학부모 지역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영랑정에서 축하의 밤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 그레삼 시장 내방

속초시 자매시인 미국 그레삼 대표 일행이 7월 9일 오후5시 예총사무실을 내방했다.

시장일행이 민간 사회단체에 방문일정을 잡은 것은 예총이 유일하며 간접적으론 국제화시대에 상응하여 예총의 입지가 그만큼 강화됨은 물론 역할증대의 필요성 인식되어지는 사례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는 95년 연극협회가 미국 그레삼

시민에게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데 대한 고마움의 답례와 당시의 우의를 재확인코자하며 이날 줄곧 예총 임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함께 나누었다.

다음날인 10일 12시 당 대표일원 전원을 초대 오찬을 연극협회가 설악가든에서 대접하였다. 이날 그레삼 시장은 '속초예총 및 연극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속초예술인들의 만남이 이번 방한 중 가장 인상적인 만남이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 하며 향후 우호협력 증진과 문예교류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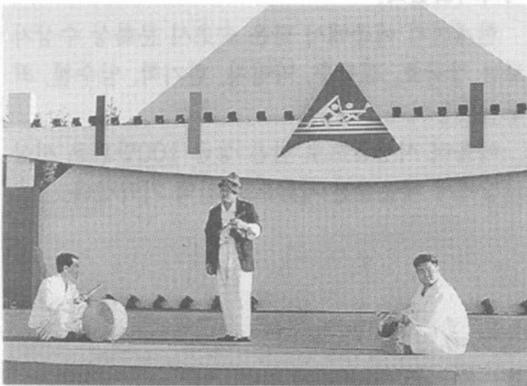
▶ 4인 기타 콘서트

7월17일 음악협회 도레미 예술기획(대표 : 원영백)주관으로 영북지역 음악발전과 클래식 기타의 진수를 감상기회를 부여코자 4인 기타 콘서트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기타리스트 안승범, 김영술, 배장흠, 박종대씨가 출연하였다.

김영술, 안승범씨는 각기 한국기타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배장흠은 손영성, 신인근 등의 사사와 수원시향 협연 등을 가졌으며 박종대씨는 허병훈, 노근영씨 사사와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8년 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다.

이날공연에 F. Sor 의 "위안" R. Dyens의 "하늘의 탕고" F.Chopin의 "왈츠 OP.64 ~ NO.2"와 전통민요의 "아리랑" 등을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 품바초청 공연

삼척시 지방자치제 출범기념으로 속초연극협회가 초청되어 8월10일 8월17일 양일에 걸쳐 삼척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품바공연을 했다. 장규호, 김귀선 등이 출연하였으며 연 관람객 1,000여명이 관람하였고 속초연극의 우수함과 연기력을 과시한 공연이었다.

▶ 97-4차 간사회의

97- 4차 간사회의가 8월16일 오후1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제32회 설악문화제 추진 건

—민예총과 중복된 행사는 예총이 주가 되어 추진, 설악문화제 기념 문예행사에서 향후 민예

총 단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호히 대체키로 함.

설악문화제에서 민예총 사업을 인정할 시 문화제소속 위원 전원이 사임키로 결의.

▶ 지역언론사 편파보고에 대한 대처 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적절히 대처키로 함.

▶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기념 품바공연

제7회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 기념공연 품바공연을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주관으로 9월 5일 오후6시 영랑호 카누선수권대회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장규호, 김귀선, 홍성태 등이 출연하여 우리 근·현대사의 가난한자들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린 전통 해학극인 품바를 공연하여 대회참가선수단들이 서로 어울려 흥겨운 놀이판이 벌어졌다. 특히 배우 김귀선씨의 즉흥으로 장기자랑을 유도, 망중한을 즐기게 함은 물론 대회기간에 문예행사가 절대부족한 가운데 치러진 관계로 더욱 돋보이는 공연 이었다.

문 화 제



▶ 바리톤 이무웅 초청독창회

바리톤 이무웅 초청 독창회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9월20일 오후7시30분 예총의 후원 하에 음협도레미(원영백)주관으로 개최하였다. 바리톤 이무웅은 이태리 Perusia 국립음악원을

졸업 독창회 5회, 일본, 미국, 아시아 각국 등 외국공연과 국내 굴지의 음악회에서 공연한바 있으며, 현재 한국음악회 부회장, 이태리가곡회 이사, 아시아 오페라 상임단원, 관동대 성악과 주임교수로 활동중이다.

관동대 예술대 교수인 이희주교수가 피아노반주와 강릉대재학생 심영은이 찬조 출연하였다.

프로그램은 주옥같은 우리가곡 “가고파” “기다리는 마음” “동심초” “고운 님 여의읍고” 등이였다.

▶ 속초가요제 예심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시민노래사랑 예심이 9월25일 오후1시에 속초시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제32회 설악문화제 예총예술 문화행사 ■

제32회 설악문화제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속초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예총6개 협회지부가 협회별로 1개 사업씩 총6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세부 사업은 아래와 같다.

금번 설악문화제에서는 속초시예가 협회창립을 목적으로 미술협회에서 추진코자 한 '속초시 예조명전' 사업이 예산관계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예총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에 선출됨과 아울러 예술축전 외 예총회원들이 타 추진위에서의 활동 또한 두드러진 대회였다.

▶ 제9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

제9회 속초시 문화상 문화예술부문에 속초예총 수석부회장 겸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인 김광희 지부장이 받았다.

시상식은 10월 2일 오전10시 제32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장인 동명항 특설무대에서 거행되었다.

김광희 수상자는 48년 속초생으로 20여년간

속초일원에서 후진양성과 각종 미술대전 및 미술, 서예대회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국규모 지도표창 (주한인도대사, 내무부장관, 국회문공위원장, 홍익대, 이화여대 학장 등)을 17회 수상한 바 있고, 서예예술에 힘써 92강원서예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대한민국 서예대전(예협), 월간대전 등에 입선하고, 강원서예대전에서 우수상, 특선 2회 등 다양한 수상경력과 속초시민 중 최초로 강원도 서예대전 추천작가가 되어 속초시 서예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향토미술 및 서예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현재까지 예총에서 받은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로는 장규호, 김광수, 박명자, 한기학, 임수철, 최구현씨등이다.

아울러 시상금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은 시상식장에서 예총발전 기금으로 전액 기탁했다.



▶ 97 제2회 거리 시·화전

제32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2회 거리 시·화전이 설악제 기간인 10월2일부터 4일까지 수복탑 놀이마당에서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권정남, 김승기, 김영미, 김종현, 김춘만, 박명자, 박용남, 박화, 사상철, 서귀옥, 이선국, 이성선, 지영희, 채재순, 최명길, 최월순 등이 30여점을 출품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전시효과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에게 찾아가는 예술작품전을 추진, 기획된 사업이었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미술협회에서 그림을 그려 협회와 협회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인과 문학인의 만남의 장이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업으로서 재전시 요청이 쇄도하기도 한 훌륭한 전시회로 평가되어진 사업이었다.



연극협회 정기공연

연극협회와 소속 극단굴렁쇠(대표 : 김귀선) 주관으로 10월3일 4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극공연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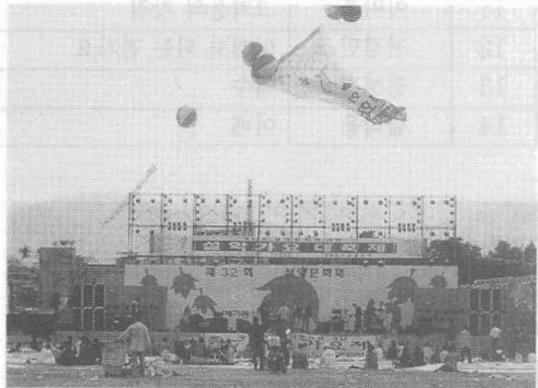
공연작은 마르코 카몰레티 의 "한남자 세여자"이며 연출은 연극협회지부장(장규호)가 맡았다.

본 작품은 지난해 설악문화제에 공연된 "그여자 사람잡네"(R. 토마) 와 같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지난 10여년간 계속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공연되는 급세기 최고의 희극으로 프랑스에서만도 200만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연극이다.

빠리 올러리 국제공항 부근에 베르나르라는 청년이 살고있고 베르나르는 공항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스텐어디스 3명(미국, 프랑스, 독일) 과 연애중이다. 비행시간에 맞춰 교대로 만나던 중 하루는 시골에서는 친구 로베로가 찾아온다.

우연히 그날 스텐어디스들의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예정보다 빨리 도착하여 3명의 아가씨들이 동시에 도착하는데 시골의친구 로베르가 세아가씨와 벌이는 숨바꼭질이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프랑스 특유의 낭만과 기질과 기상천외한 표현기법과 극적구성으로 관객의 폭소를 자아내는 연극이다.

캐스트는 베르나르-문일완, 로베르-김귀선, 자크린-최보미, 자넷-이혜경, 주디스-정경숙, 에르타-박영미 등이 출연하였고 스텝에는 최문복, 박영근, 백용기, 남상진, 정승균, 김만영씨 등이 참가하였다. 오후4시 7시 연4회 공연으로 400여명이 관람하였다.



97 속초가요제

속초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에서는 건전한 대중가요 보급을 통한 대중예술 진흥도모와 설악산을 찾은 단풍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홍보 극대화 추구할 목적으로 32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97 속초가요제를 10월3일 오후5시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하였다.

지난달 25일 개최한 예심자들로 구성된 본 대회에 우리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 노래솜씨를 건주어 시민과 어우러진 한마당 큰잔치를 펼쳤다. 심사는 연예협회 자체에서 위촉하였으며 최미화, 엄계록, 김동주, 등이 찬조출연을 하였으며 사회는 전문 레크레인 강사 지경림씨가 보았다.

출연자와 시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번호	성명	곡명	시상내역
1	박종국	연상여인	장려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시상금 10만원
2	유영희 조광녀	뱃 노래	인기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시상금 10만원
3	박현성	상처	금상 : 예총회장상 - 시상금 20만원
4	김경숙	가버린 사랑	장려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시상금 10만원
5	김경연	청춘열차	
6	이미정	당신의 뜻이라면	
7	김순원	창부타령	
8	정미숙	사랑	
9	임 훈	연인의 길	은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시상금 15만원
10	김현이	바보같은 여자	
11	이미옥	그겨울의 찻집	
12	전경민	이래도 되는 건가요	대상 : 속초시장상 - 시상금 25만원
13	권성정	애수	
14	김덕용	어매	동상 : 연예협회지부장상 - 시상금 10만원



▶ 제1회 전국서예 백일장

속초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에서는 10월 4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서예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본 백일장 개최 취지는 전통서예 연구생들에게 현장 휘호의 장에 직접 참여시켜 평소 연마한 서예 실기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서예인구 저변확대 와 강원도 서예교육의 발전 및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심성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었다.

한글부 서제는 각기 초등부-천리길도 한걸음에, 푸른하늘 흰구름때 중등부-남해는 번쩍이는 승리의 바다 충무공 맹서 하던 울도 한산도 대학 일반부-두류산 양단수를 예두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초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하노라. 한문부 서제는 초등- 恩高如天 德厚似地, 孝當竭力 忠則盡命, 중·고등부 - 容止若思 言辭安定 篤初誠美 慎終宜令, 대학·일반부-十里無人響 山空春鳥啼 逢僧問前路 僧去路還迷 이며 사군자는 중·고등부-菊花, 일반부-菊 이었다.

심사위원은 시백 안종중씨가 심사하였으며, 시백 안종국씨는 국전심사위원, 현재 강원서예협회 부위원장, 강원원목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시상은 대회직후인 오후6시에 속게 되었으며 전체 대회참가자 126명 중 대상3명, 최우수상5명, 우수상10명, 장려상30명, 기타입선 등으로 시상이 결정되었다.

초등부 대상에는 교동초등6학년 공든답이 장장과 부상10만원 36만원상당의 벼루를 받았고, 중등부 대상은 설악여중 1년 심여해 학생으로 선

정되어 상금15만원 40만원상당 벼루, 일반부 대상은 조인선씨로 20만원의 상금과 46만원상당의 벼루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3,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주어지는 등 전체 시상금 및 시상품으로 326만원이 지급되어, 강원서에 백일장에서 시상 규모가 가장 큰 행사였다.

제1회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등 외지에서도 다수가 당 대회에참가함은 물론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서예백일장 중 대회참가자 가장 많은 대회로, 주관협회에서의 전체적인 사업운영과 홍보 등이 돋보이는 대회로 강원최고의 서예백일장으로 발전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제6회 속초사진 협회전

제32회 설악문화제를 맞이하여 97년도 2회 정기회원전인 제6회 속초사진협회전을 사진협회(회장 : 최이권) 주관적으로 10월4일부터 1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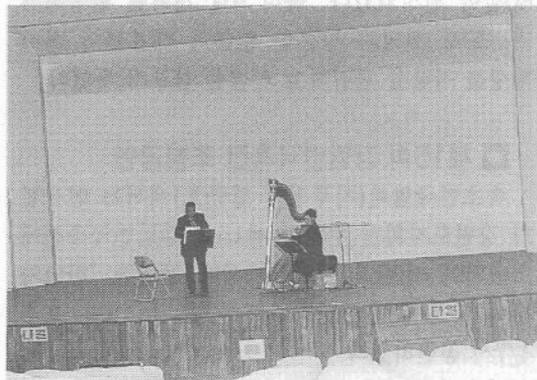
32회 설악문화제에 민예충 사진전과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 전시회라 의미가 크며 향후 설악문화제 사진전은 예충 사협이 주가되어 추진되리라 판단된다.

출품은 최구현, 최이권, 최홍영, 김영걸, 원춘택, 최낙민, 황병진, 김호정, 황동석, 문훈, 김성학, 추교선, 진금봉, 장규호, 김동만, 김성호, 최선호 등이 37점을 출품하였다.

특히 본 전시회기간에 환동해권 거점도시 성상회의가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전시실이 귀빈실로 꾸며져 7개국 외국시장들과 외국귀빈들에게 우리지역의 천혜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알리고 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는 시 국제담당부서와 유기적 업무연락과 상호협조로 설악문화제 추진 이전부터 예충에서 사업을 추진, 외국 대표단에게 우리시의 그늘진 사회고발성의 작품보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의 전시가 보다 효과적이란 객관적인 평가를 사전에 교감해서 이 같이 좋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사려된다.

아울러 설악문화제 기간에 국내의 관광객이 집중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본 예충사진협회가 주축이 되어 전시회를 개최함이 설악문화제 문예행사 개최 목적에도 부합, 상당한 설득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회를 관람한 일본 요나고 시장이 작품 1점을 즉석에서 구입했다.



가을 콘서트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흥)의 도레미예술기회 공동주관으로 플루티스트 김동수 초청 가을콘서트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0월5일 오후 4시에 개최되었다.

김동수씨는 서울대음대를 졸업하고 파리에서 실내악연주자 과정과 국립음악원 수퍼리얼 1등으로 졸업하였다. 서울심포니, 뉴서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바 있고, 현재 서울대, 경희대, 전남대 등에서 후진양성 중이다.

관동대 조교수인 피아노 김유철, 소프라노 김우순,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임현숙, 알테 플루트 원장인 플루티스트 전삼옥씨가 함께 출연하였다.

이날 주요연주 프로그램은 몰라치의 "스위스 목동" 바흐의 "소나타G장조" 슈만의 "베니스사육제"가 연주되었다.

김명원씨가 지휘하는 속초시립합창단이 찬조출연을 해 베버의 "사냥꾼의 합창" 등을 불렀다.

무료관람이었으며 관람객은 450여명 이었다.

▶ 일본국 자매시 아동미술작품 전시회

일본국 자매시 아동미술전이 10월8일-1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미술협회 주관(지부장 : 김광희)으로 개최되었다.

일본국 요나고시와 사카이미나도시 작품 총 80점이 전시되었다. 특히 9일 개최된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차 방문한 일본국 대표들이 자시 학생들 작품을 관람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제15회 강원연극축전 초청공연

속초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연극협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한 제15회 강원연극축전에 초대되어 제32회 설악문화제때 공연한 "한남자 세여자"를 춘천시민회관에서 10월 12일 오후 4/7시 공연하였다.

아울러 금번축제에는 춘천의 극단굴레, 원주의 우리극패 노뜰, 태백의 극단동그라미 등이 함께 초청되었다. 속초공연 관람객은 200여명이 관람하였다.

♣ 이후부터의 사업은 추진예정 사업임

▶ 도레미콘서트

예총 후원 하에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11월 8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후7시 조

진희 초청 리코더 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진희는 강원대 음악 교육과를 수료,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에서 레코드 및 앙상블 지휘를 공부했다.

유학 및 귀국 후 다수의 국내외 연주경력과 현재는 한국레코더 아카데미 이사 와 강원대 예술대학에서 플루트를 강의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첼벨로 김민정, 강원대 재학생 5명의 레코더가 찬조출연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영국민요 "푸른 옷소매 환상곡" J. S 바흐의 "소나타 바장조"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 제7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 연주회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홍) 주관으로 12월6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 개최된다.

지역음악인들의 최고의 창작발표의 장이자 음협 연중 가장 비중있는 사업은 물론 일년여간 연습해온 작품을 한해 마감하는 송년 음악회이기도 한 제7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제4회 설악아동 연극제

속초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주관으로 제4회 설악아동 연극제가 11월 중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극예술 창작을 직접 경험케하여 연극에대한 이해도 도모 및 지역아동 전인교육의 일환에 목적을둔 본 연극제는 1일 1개교씩 공연예정이며 작품제작비 일부를 참가학교에 연극협회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갈피27집 발간 및 문학축제

속초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주관으로 갈피27집발간 및 문학축제가 12월중 속초문화원문학사랑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갈피지는 20여년간 꾸준히 발간해온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지로 많은 문학인들의 창작발표의 장이기도하다.

▶ 송년 연극공연

속초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97년을 마감하면서 이만희 작 “용띠 위의 개띠” 12월 중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연출은 연극협회 지부장이 맡고 작품내용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삶의 애환과 진솔함을 표현한 하이코메디로서 진한 부부애를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작품이다.

▶ 제13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 회원전

속초예총이 후원하여 개최되는 제13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 회원전이 서예교육연구회(회장 : 이준일) 주최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협회 회원별 소식 (무순)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 최홍영

- '97 무릉서예대전 특선
- '97 강원서예대전 특선
- '97 강원교원미전 동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예협) 입상

▶ 김은숙

- '97 무릉서예대전 입선
- '97 강원서예대전 입선
- 대한민국 서예대전(예협) 입선

▶ 김동하

- '97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선
- '97 강원서예대전 입선

▶ 김광희

- '97 서예대전(월간서예) 입선

□ '97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

□ '97 강원서예대전 추천작가 인준

□ '97 강원연목 10주년기념 서예전개최(춘천)-강원연목 회장

□ '97 강원도 미술대전 실행위원 위촉

□ 강원도 서예가협회장 취임 (97년 11월 ~ 98년 11월)

□ 제2회 환동해권 미술작품 초대전(일본) 초대출품

▶ 정광섭

□ '97 강원도미술대전 초대작가출품 / 시민이선정한 미술상 수상

▶ 김광수

□ '97 강원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출품

▶ 박영근

□ '97 강원현대작가전 출품

▶ 백종숙

□ 미술작품 2인전 개최-캐나다

■ 속초 사진협회

▶ 최낙민

□ 제4회 강원은행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가작

□ 전국사진 공모전 입선 2회

▶ 김영건

□ 제2회 한국·한국인 사진공모전 (공보처) 가작

□ '97 천안사진공모전 입선

▶ 김호정

□ 속초시여성회관 사진교실 강사활동 중

▶ 원춘택

□ 월간 사진 추대작가 위촉

♣ 기록: 속초예총 사무국장 박종성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97년 활동 소개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이하 속초민예총)는 97년 한해 동안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엄상빈 지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과 4개 분과위원회별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속초민예총의 정기활동은 크게 3가지로 봄철 종합예술제 성격의 민족예술제와 8월 15일 통일문학제 그리고 설악문화제에 맞춰 개최되는 경축문화 행사를 꼽을 수 있다. 올해는 이 가운데 설악문화제 경축문화행사를 제외한 두 건의 행사가 예정대로 추진됐으며, 설악문화제 경축문화행사는 설악문화제 예술추진분과위원회와의 마찰로 독자적인 행사를 개최했다.

97 민족예술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민예총 회원과 예술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열린 97년 민족예술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학, 사진, 연극, 풍물 등 속초민예총 산하 4개분과 회원들이 모두 참가했다.

5월 1일 저녁 6시 풍물위원회의 민족굿 한마당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민족예술제는 1일부터 4일까지 문학위원회의 시화전, 6일부터 10일까지 사진위원회의 여섯사람 사진전 그리고 10일과 11일 이틀간 연극위원회의 <직녀에게> 공연 등이 연일 펼쳐지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

1일 저녁 6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속초시 문화회관 광장에서 펼쳐진 풍물위원회 소속 <백두대간> 풍물패의 민족굿 한마당은 97 민족예술제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내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구경하던 주민들도 흥겨운 사물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4일간 열린 문학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 시화전은 재활용품과 잊혀져 가는 옛 생활도구들을 이용한 이색적인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민족예술제(96 민족예술제)에서 시낭송을 시도했던 문학위원회는 시인이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시를 읽어주고 이해를 구하는 형식의 시낭송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문학 활동을 모색하던 중 이같은 기획을 하게 됐다.

‘재활용품을 이용한 시화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번 시화전에서 문학위원회의 최고 어른인 이상국회원은 명석, 지게, 문짝 등 과거 농경문화가 중심이던 시절 널리 사용되던 생활도구들 위에 붓글씨로 자신의 시편들을 쓴 화선지를 부착하는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농촌출신인 이씨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농촌이며, 농경문화가 현대문화의 모태임을 강조하고 잊혀져 가는 농경사회에 대한 진한 향수를 드러냈다.

문학위원회의 시화전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사진위원회(위원장 전태극)의 사진전은 <여섯사람의 사진이야기>란 제목으로 김정일, 김홍수, 박영철, 박재영, 엄상빈, 전태극 회원 등 사진위원회 소속 회원 전원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정일 회원은 ‘고성산불 342일후’란 주제로 건국 이래 최대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산불 이후의 생태계의 변화를 담았다. 김씨는 특히 시커멓게 타 버린 소나무 기둥 사이에 신기하게 피어난 갖가지 꽃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존재의 사라짐과 탄생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지역내 대학에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홍수, 박영철, 박재영 회원 등 3명은 각기 독특한 사진기법을 선보여 특히 관심을 모았다. 김홍수씨는 장기간 노출을 통하여 동해안 바닷가의 정경을 연한 푸른색이 감도는 환상적인 분위기로 담아내어 컴퓨터 프린트를 이용해 뽑아 냈으며, 박영철씨는 물을 중심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영상을 담아 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박재영씨는 인

공재배된 관상수를 흑백필름으로 찍은 뒤 이를 칼라링화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10일과 11일 이틀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극위원회 소속 극단 <파람불(대표 임상호)>의 13회 정기공연을 겸해 무대에 올려진 <직녀에게(유화량 원작, 양정순 각색, 조수현 연출, 황헌중 기획)>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현과 울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겪는 이산의 아픔을 조명한 작품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녀에게>는 그동안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수차례 공연되면서 문화예술계 안팎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킨 작품으로 이번에 분단현실의 최전방인 속초지역에서 무대에 올려지면서 속초민예총 회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제2회 통일문학제

8월 15, 16일 이틀간은 민족 분단의 슬픔을 달래고 통일의 날을 염원하는 제2회 통일문학제가 <마음을 나누자 밤을 나누자>란 주제로 속초시 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백기완, 김규동 등 민족문학계의 원로와 도내 문인 및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예총 강원도지회(지회장 이상국)가 주최하고 민예총 속초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첫날 풍물패 <백두대간>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통일염원 고사, 대화사, 학생작품 공모 시상식, 시낭송, 조성실 무용단의 살풀이 춤 공연, 백기완 선생의 <참통일이란 무엇인가> 강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행사 뒤에는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막걸리를 나누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 시간이 진행되고, 이틀째인 16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6·25와 분단



관련 기록필름이 무료 상영돼 분단의 아픔을 상기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통일문학제는 단일 장르로는 속초지역 최대의 예술행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앙문단과 도내 문인들이 대거 참가하고, 의식있는 지역 인사들이 관객으로 자리를 가득 메워줌으로써 민예총의 세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97년 가을의 썬썬함

제32회 설악문화제 전야제가 열린 10월 2일 속초신협 4층 전시실에서 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97 가을문학의 밤'과 '97 강원사

진의 오늘전' 등 두 건의 문화행사가 그것이다.

속초민예총 문학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주최한 '97 가을 문학의 밤' 행사에는 이상국시인 등 8명의 회원이 나와 자작시를 낭송하며 가을 밤의 정취를 돋구었으며, 속초지역 연극의 대부분으로 널리 알려진 연극인 신원희씨가 연사로 나와 속초지역의 초창기 연극활동과 향후 문화예술 활동의 나아갈 길에 대해 연설했다.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사) 한국사진가연합 강원지부의 정기 사진전을 겸해 열린 '97 강원사진의 오늘'전은 동우전문대 박영철교수 등 회원 9명의 독창적인 사진세계가 선보였다.

최광호(속초민예총 사무국장)



속초향토사료관 건립에 즈음하여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 尹弘烈

인간은 삶을 위어가는 과정에서, 그 필연적인 현상의 하나로 살아 오는 자취를 남기면서 오늘 날까지 이어져 왔다. 인류의 생활 흔적을 문화라고 일컫는 견지에서 본다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삶을 꾸려가기 시작한 지, 45억 년 또는 50여억 년이라고 하는 데 그 기나긴 세월동안 문화를 쌓으면서 살아왔다. 여기서 간단히 문화를 쌓으며 살아 왔다고 적었는데, 이 문화라는 어휘의 개념이 조금 다양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데의 편의상, 그 복잡한 개념을 조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적일 것 같다.

문화란 자연을 자연 상태 대로 놔두지 않고 인간의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일정한 생활목표의 달성에 쓸모있게 작용 하도록 노력 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문화 활동이라고 일컫는 분야다. 그리고 민족 또는 부족과 같은 일정한 인간공동체가 자신들의 생활 방편을 자연상태 또는 야만적인 상태 대로 멈추어 두지 않고 그 자체의 특정한 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서서히 형태를 잡아가면서 이어져 온 생활의 방식과 그 여러가지 표현을 문화재라고 한다.

이와같은 생활 표현에는 의(衣) 식(食) 주(住)

를 비롯하여 학문·예술·도덕·종교 등 물질 양면에 걸쳐 생활이 형성되면서 필요한 양식과 향상된 내용을 추구하면서 이어져 왔다. 즉 물질적으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그리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신적인 수련을 거듭하여 살아 온 것이다. 인류가 보다 나은 내일의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취를 남긴 것이 문화재인데, 이 문화재의 개념을 다시 나누어 본다면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로 가를 수 있다.

유형 문화재란 글자 그대로, 형상이 있는 문화재라는 뜻이다. 이것은 조형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물, 서화, 조각, 공예품, 옛서적 등인데,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것들 이어야 한다.

무형 문화재란 연극, 음악, 공예기술 등이다. 이 분야도 유형 문화재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그 가치의 객관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간문화재가 있다. 이것은 중요 무형 문화재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상은 문화라는 어휘개념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흔적도 미



래형적인(조상의 문화유산)일 수 있다. 다만 예술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 받을 만한 수준의 자취일 때 <미래형적 조상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렇듯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육체적으로 편리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조상들의 성실하고 진실된 삶의 흔적인 좋은 문화 유산을 물려 받은 덕택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미래형의 조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문화 유산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후손들이 달갑게 이어받을 만한 문화재를 남겨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그 후손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거울이 될 것이며 건실하고 건전한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을 물려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하여는 항상 조상들의 일을 가까이서 만나고 본받고 해야 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조금만 있는 나라들은 거의 빠짐없이 박물관과 민속사료

관을 설치한다. 물론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박물관이란 국내외(國內外)적으로 고금의 고고학의 자료와 미술품,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벌여놓고 일반인에게 보이는 곳을 말하는 데 이 박물관의 설립에는 막대한 자금이 든다. 그래서 박물관은 중앙정부 또는 이에 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아니면 재벌급 기업체에서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상의 문화 유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하는 데에는 박물관 보다는 민속사료관이다. 앞에서 말한 박물관이 동서고금의 고고학적 자료와 훌륭한 고전적인 미술품, 역사적인 유물, 그 밖의 학술적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전시하는 곳이라면 민속사료관이란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 그리고 생업(生業),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일반적인 습관과 이에 사용되던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서민생활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향토예술품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곳이다.

우리들이 민속사료 즉 조상들의 문화 유산을 만날적마다 느끼는 것은 오래된 조상들의 따과

채운을 느낄 수 있다는 호뭇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슬기와 정서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생활의 슬기로 삼을 수 있는 자료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문화 국민의 특징이다.

야생 동물들이라고 하여 생활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형태나 재료의 질적인 변화가 없이 이어져 왔다. 지극히 단조로운, 원시적이랄 수 밖에 없는 형태를 그대로 지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뼈꾸기의 문화라든가 오리의 문화 또는 너구리의 문화라는 말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렀어도 까치동지의 재료나 형태에 변화가 있어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오리동지는 반드시 물가에만 있어 왔으며, 쥐구멍은 땅속에만 있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현상이다. 야생 동물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창의력도 창조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항상 보다 나은 내일의 생활을 추구하는 의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고 현재도 개량과 변천이 진행중이다. 말하자면 인류의 문화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고 오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생활이 변천하여 온 모습, 즉 문화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생활이란, 그 지역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보다 안락한, 보다 보람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인간 정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 또한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며, 같은 서양이나 동양권에서도 또 생활공간이 다른 부족 또는 민족간에서도 문화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질적 풍토에서 생활한 인간의 살아 온 자취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우리들의 고향 속초 지역에는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을까는 상당히 흥미로운 설문이다. 이에 대해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기록이, 속초문화원에서 발행한 <속초의 옛과 오늘, 1997년 9월 10일 발행, 발행인 최용문, 편저자 박영도>에 있기에 다음에 원문 그대로를 소개한다.

《……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는 속초시 지역도 선사시대로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980년 12월, 나기봉사에 의해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磨製石劍) 1점과 돌살촉(石鏃) 6점이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1992년 5월 10일, 강릉대학교 백홍기(白弘基) 교수(박물관 관장)팀에 의해 발굴 조사된, 조양동(朝陽洞·옛 溫井里) 택지 개발 지역 3천여 평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고인들은 1992년 10월 13일, 사적 제376호로 문화부는 지정 고시했다. 이는 선사 대의 살림집 구조,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의 전환기 만주 요령성 문화(遼寧省文化)의 확산 경로 등의 귀중한 자료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조양동 선사 유적과 함께 전남 장성군 장성대도리 백자가마터(白瓷窯址)를 사적 제377호로 지정 고시했다.

강원일보사 김종화(金鍾華) 편집국 부국장은 속초문화(東草文化) 1992년 발간 제8호 특집 "청동 유적지 및 유물"에서 "선사 문화 연구에 획기적 기회를 마련한 조양동 유적지 발굴 조사는 속초 지역 문화에 새로운 뿌리를 내린 것으로 의미해 볼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의 완벽한 집터가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동기 시대의 집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함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B.C. 5세기로 추정되는 고인들 2기 중의 1기는 길이 194cm, 폭 130cm, 두께 19cm, 뚜껑돌 밑에 남북의 길이 172cm, 동서의 폭 60cm, 깊이 32cm의 할석으로 만든 하부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바다 위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 도끼 1점 돌화살촉 등 부장품이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무문토기(無紋土器)가 출토되었다. (註, 속초의 옛과 오늘의 23쪽에서)

지면 관계로 더 많은 자료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는 데, 독자들은 속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를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혹시 독자 중에는 청동기 시대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이나 될까로 궁금해할른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적겠는데 이것도 또한 앞에서 인용한 "속초의 옛과 오늘의 23쪽"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청동기 시대는 B. C. 1천년 경부터 철기 시대의 초창기로 보는 B.C. 약 400년경까지를 말한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 수집되고 하면 우리의 지역사를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최용문 속초문화원장이 별려오던 "속초 민속사료관"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실로 반가운 일이다. 나의 짐작으로는 앞으로 수집될 민속사료들은 이 지역 것이 많겠고, 설령 이

지역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민속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일 것 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속사료관"의 설립을 앞두고, 지난 6월 11일~12일, 즉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선진지 "박물관"과 "민속사료관"을 다녀왔다. 관광 여행이 아니라 견학을 하고 온 것이다. 속초문화원 임원진과 이사진 하여 20여명이 다녀왔는데, 견학한 곳은 롯데월드의 롯데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경기도 박물관, 용인 민속박물관 등이다. 여기서 얻은 상식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궁리하는 중이다.

물 모처럼 설립되는 우리의 민속사료관에, 내용도 충실하고 종류와 수량이 풍부하게,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재로 가득 찼으면 하고 바라는 염원이 간절하다.

束草文化 창간 1984년
4·6배판

그럴 수 있다는 생각



白雲化
(前 教職者)

아직까지 우리의 生活感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儒教的 殘影이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外來의 尺度에 우리삶을 저울질 하면서 價値觀이나 禮節의 基準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傳統的으로 精神面이나 物質面에서 謙虛히 사는 것을 最高의 德으로 삼으면서

나서고 자랑하고 흥정대는 것을 賤스럽게 여겨왔다.

하지만 所有萬能主義가 壓倒하는 變異狀況이 價値를 變化시켰다.

이 같은 現狀은 井然했던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表出시켜 놓았다.

우리는 이 時點에서 個人意識이나 社會風潮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必要를 切感하게 한다.

한 例로 社會倫理의 根幹를 이루었던 信賴性이 그 方向이 점점 弱연해지고 不信하는 경향이 점점 노골화 되어 간다.

젊은 世代들은 先生님이나 父母님한테 또는 社會人事나 先輩로부터 注意를 받으면 특 벨는 소리가 “제가 뭘데” 하는 식이다.

알기로는 렌즈를 꺾어 먹는 수정충(水晶虫)이라는데 있다.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이 不信의 疝別레다 이로因해 反撥과 反抗, 不平不滿, 抵抗感이 싹트고 和숨에 금이가고 混亂해진다.

한때, 어린 孫子와 얼마간 지낸일이 있다.

第三人生엔 自由로운 내 時間 많이 갖는게 幸福하다지만, 함께 生活하기가 負擔되고 근심도 따른다.

하지만 天真스런 모습이 限없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살아가는 맛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얼마되어 發育期 營養을 생각해 우유를 家庭配達로 받아 每日 먹었다.

한데 웬일인지 間或中斷 되기도 한다. 이때면 隣近가게에서 사다 補充하기도 하지만 不便하다.

처음 몇번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겠지 하고 理解도 했지만 거듭되는 無誠意에 한 번쯤은 이야기 하겠다 마음먹고 營業所에 電話로 내 나름의 생각을 傳한즉 젊은 女職員이 대담이 통명스럽게도 “그럴수 있잖아요”였다.



或 直前に 다른일로 氣分이 언짢았던 狀態이었던지 아니면 筆者의 말에 刺戟反應을 일으켰는지 “제가 면대 그런것쯤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이다.

謝過를 받고자 그러한 것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未安해 하고 앞으로 約束도 다짐을 하고 信用을 回復하려는 모습을 보일줄 알았지만 뜻밖에 고객에 대해 항변이다.

不信이 화풀이를 되려 자는 顧客에게 한 셈이다.

작은일에 充實치 못하는 者は 큰일에도 充實치 못하다.

하는 일에 誠實함이 없이 대충 適當히 넘기려면 世上事 제대로 되는 일 없어 社會混亂만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冷嚴하고 緊張된 國際競爭 속에서 信用이 墜落되면 실 땅이 없다.

往往 우리 社會엔 自己責任을 다하지 못하고도 杼우침과 悚懼함이 없이 泰然한 姿勢로 살아가는 闇체族 우리 周邊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그 職場에 그 社會에 또는 同僚에 누를 끼쳐도 無表情하고 無感覺하게 지낸다.

問題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태도이다.

깨끗이 잘못을 是認하고 다짐하고 謝過할 줄 알아야 한다.

잘못이 있어도 杼우치기커녕 反問과 反抗과 挑戰을 일삼는다.

自己 잘못을 合理化하려는 卑屈한 생각 賊反荷杖의 言動이나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冷徹히 省察해보자.

여기서 筆者는 오래된 일이어서 어디서 보았는지는 알길 없지만 只今껏 記憶에 남아있어 紹介하고자 한다.

이웃나라 日本의 경우다.

맥도널드 社의 후지다 社長은 86年 아메리칸 오일社에서 4,300만 개의 나이프와 포오크를 注文 받

았다.

日本の製造는 慣例에 따라 한달 늦게 始作했다.

納期가 3日밖에 남지 않은 切迫한 狀況에서 그는 보잉707기를 전세 냈다.

猶太人 支配下에 있는 오일사와 단 한 번의 約束도 지키지 않으면 絶對信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結局 納品期日을 지키기 위해 30만불의 손해를 보았다.

그 代身 信用을 샀다.

후지다 社長은 日本에 約束을 지키는 명상인(名商人)이라는 認識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貿易에서 成功을 거두었다 한다.

그 社會에선 約束을 어기거나 信用이 失墜한 사람에겐 苛酷하기 그지 없다한다.

여기서 우리의 경우 한가지만 더 言及하고자 한다.

어느날 筆者는 理容所를 찾은 일이 있다.

단골로 調髮 해주던 主人이 안 보인다.

한참 기다리다 다른 從業員한테 理髮을 하는 참이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한 中年婦人이 들어 닥친다.

다짜고짜 主人을 찾는다.

從業員의 말이 他地로 移住를 가고 없다고 한다.

어디로 갔느냐고 再次 물으니 그것은 잘모르겠다 한다.

그제선 辱說을 퍼 부는다.

젊은 녀석이 뭐 할짓이 없어 내돈 떼먹고 도망친단 말인가?

어디두고 보자 난 너한테 돈 떼어도 살지만 넌 내돈 떼어먹곤 못살아 못된 子息하면 上氣된 感情에 어쩔줄 모른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 從業員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한다.

그 婦人은 어이가 없음인지 아무대꾸 않고 문을 콕 닫고 나갔다.

나중엔 안 일이지만 이곳에 오기전 市内 中心街에서 施設이나 技術이 좋아 벌이가 얼마간 괜찮은 使이었다 한다. 그는 性品이 好人이라 親舊좋아하고 술을 즐기면서 일자리를 가끔 비우니 점차 손님이 줄기 始作했다.

따라서, 收入이 감소되었는데도 계속 술 좌석엔 빠지지 않았다.

몇번 外上술도 먹었지만, 거둬되기에 거절당하는 신세가 됐다.

理髮師가 술꾼으로 轉落되어 高利代金業者의 돈을 빌리면서 계속 술타령이다.

눈덩어리 처럼 불어나는 차용금을 감당키 어려워 이곳으로 도망온 셈이다.

같은 市内라 이 자리도 不安해 며칠전 이곳마저 떠나 流浪者 身勢가 된 그는 궁리 끝에 오징어 잠이라도 해 목돈을 쥐어보겠다고 고깃배를 타고 울릉도로 떠났다.

그것마저 失敗로 돌아갔다가는 途中 술로 인해 船上에서 亂動이 일어나 不得已 回航하고 난 뒤 只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 알길 없다는 從業員의 말이다.

이런 式으로 人生을 막 가는 業主나 그럴수 있지 않느냐고 反問하는 從業員의 말이나 良心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苦痛스러운가를 알아야 한다.

人間의 良心이 실종되었을 때, 견잡을수 없는 社會의 混亂을 야기시킨다.

良心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判斷하는 道德的意識이요 善과 惡을 區別하는 最高의 感覺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서 라는 俗談이 있다.

새 時代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새 人物을 찾고 있다.

새 人物은 새 世代에서 求해야 하는데 果然 우리 젊은이가 말을 만한 마음의 準備와 姿勢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問題다.

비록 自己가 지지른 일은 아닐지라도 不當한 일에 젊은 血氣로 公分심도 없고 被害者에 對한 마음을 살펴보고 지퍼봄도 없이 內心 쉽게 同調하고 寬大해 지려는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軌度 離脫者 같다. 한번쯤은 慰勞의 말을 건네야 하지 않을까?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만 젊은 몸이라 값값다는 意志도 보이니 참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고 眞정을 권하는 同情을 보였음직도 했다.

소크라테스는 젊었을 때부터 '다이모니온'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이모니온'이란 自己 마음속 깊은데서 들려오는 眞正한 良心의 소리다.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다. 人間은 저마다 "다이모니온"을 갖는다. 누구든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무디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生活이 허황하여 誠實性이 없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거짓과 속임수가 正直과 眞實을 누르는 病든 社會를 良心의 善藥으로 치유해 나가자.

失手로 남에게 被害를 입혔을 때 未安해하고 悔改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다짐하는 그런 風土를 젊은이의 손으로 가꾸어 보자.

새 술을 새 부대에서 라는 俗談이 있다.

새 時代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새 人物을 찾고 있다.

새 人物은 새 世代에서 求해야 하는데 果然 우리 젊은이가 말을 만한 마음의 準備와 姿勢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問題다.

이제 우리도 先進國에 進入하려고 最善을 다하지만 機會를 놓치면 後悔와 不幸을 自招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서 言及했던 젊은 理容師의 發想처럼 실사 빌린 돈이라도 事情에 따라 約束을 어길 수 있는 법이고 경우에 따라선 못값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큰 罪가 되며 그리 대단한 거냐고 反問한다면 誤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不信을 助長하면서 自己 偏見대로 살아간다면 眞實한 삶은 어디서 대접받고 보상받아야 하나,

서로 믿지 못하는 와중에서 무슨 先進國 云云할 資格이 있는가.

우리는 참과 함께 거짓을 分明히 하고 참에서 움직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의 秩序를 먼저 세워 "참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자".

"참은 永遠하지만 거짓은 잠깐이라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참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信念으로 不信의 벽을 허물고 信賴의 벽을 튼튼히 쌓아 外風을 막자" 썩은 材木으로 튼튼한 家屋이 안되듯 거짓된 마음으로 眞正한 社會建設을 할 수 없다.

眞實만이 幸福을 約束해준다.

"그럴수 있지 않아요"를 그럴수 없게 힘쓰면 훨씬 더 밝은 내고장 되리라.

는개(霧雨)*



李泰亨

- 중고교 교사, 교감, 장학사
- 강원도 민방위대 정신교육 강사
- 동우전문대학 강사 (직업윤리) 문화사 교육학 등 강의
- 속초문화원 이사(현)

대학 야간 강의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니 '는개'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면서 50년 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는개비를 맞으면서 방황했던 그날 밤, 유난히도 머리에 떠올랐다.

'는개'가 내리던 일제 강점기인 1944년의 어느날 밤, 청진 수남동(淸津水南洞)의 모래알 바닥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어 넘긴 밤걸음으로 드문드문 꿈틀대고 있었다. 성에 낀 유리창을 서성이며 수성(輪城)의 봄바람 이는 4월을 손꼽아 기다리던 매마른 나날 한 타래의 만남도 없이 숨을 죽이어서 보낸 침묵의 겨울은 이제 검은 옷자락을 거두며 사라지고 있었다.

구겨진 외투의 깃이 축축하게 젖어든다. 물김서린 보안경 렌즈에 떠오르는 청수(淸水)의 교정은 눈보라에 휩싸인 바다처럼 정겨운 살갓을 지니고 있다.

'는개'의 소리 없는 흘날림 속에 봄의 화사함은 조금조금 다가오고 있다. 옅은 흔적으로 남은 겨울의 자취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며, 언제이던가? 천마령(天馬嶺)에 질게 단풍이 든 늦가을 교우들과 밝은 웃음을 띠며 교정의 잔디밭에 어우러 하모니카를 불면서 청춘을 찬미하던 그 시절이 '고전 음악'을 배우고 싶어 쓸쓸한 밤이면 술한 사연을 신고 흐르는 영화 음악을 감상하고 싶거든.

또한 언제이던가.

하이네 시집을 옆에 끼고 수성천(輪城川) 독을 저녁노을 빛을 받으며 거니는 단발머리 여고생의 환영이 마냥 신비롭게만 보이던 그 시절이—

"그의 시를 읽으면 온통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모든 게 사라져 버려 자신의 존재까지도 말아야."

그리고 또 언제이던가.

개교 기념식전에서 학교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만든 훈제품(燻製品) 품치 두 마리를 받고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 시절이—

"그날 5대양을 누비는 건아가 되라는 송재(誦才)보다 창재(創才)가 되라고 연찬(研鑽)을 강조하신 높은 인격을 지녔던 교장 선생님의 훈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외투의 틀어진 자락 사이로 바람이 차갑게 스며든다. 희미한 수은 등 불빛이 '는개'에 실려 흩어져 날린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피지

배 민족의 서러움을 가슴에 안은 채 실의에 찬 모습으로 걸었다.



속초시 수복기념탑 모자상

오늘도 두 모자는 두고 온 북의 고향을 향해 뛰어갈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어느 쓰러진 주막의 술청에서 지난날 즐겨 부르다 묻어 둔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울밑에 선 봉선화야……”

어두운 골목을 걷는 무거운 발걸음 위에는 ‘눈개’가 뿌옇게 내리고 있다.

50년 전 그곳은 지금—

얼어붙은 산하(山河), 김일성의 최면술에 걸린 산하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겠지, 학정에 시달리는 그곳 동포들의 마음에 꽃동산을 가꾸어 줄 날은 언제 오려는지? 그리고 6·25의 비극 통한으로 실향민들의 가슴에 멍울진 응어리는 언제 또 풀리려는지?

수복탑 정류장에서 내려 수복탑 앞에 섰다. 탑은 희미하게 보이었지만 북녘을 응시하는 모자상(母子像)의 눈길은 고향을 찾겠다는 의지와 신념과 염원이 불타고 있었다. 나는 이미 고향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정화수(井華水)를 떠놓으시며 온갖 정성으로 축원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롱거렸다.

“옛날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와……”

재미있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지금 저승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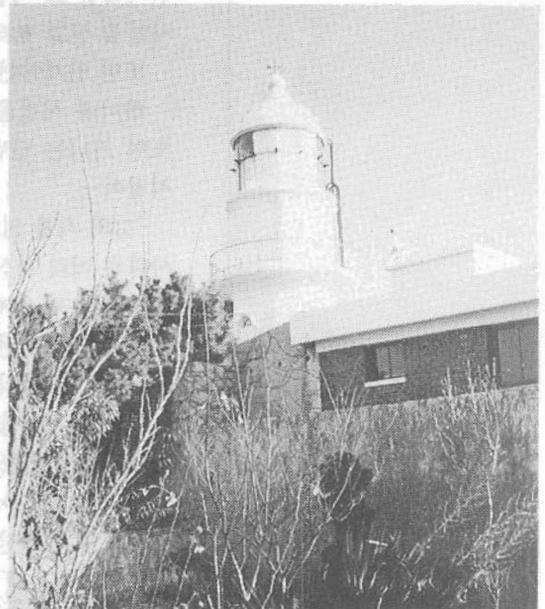
두터운 ‘눈개’ 층을 뚫고 올리는 속초 등대의 무신호 사이렌 소리를 발진 신호로 머나먼 나의 고향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천정(天井)인 마천령(摩天嶺)에 오른 느낌을 갖었다.

“태형아, 태형아 어서 집으로 가자. 그리고 힘내라.”고 나에게 인용의 힘을 주시면서 날아가시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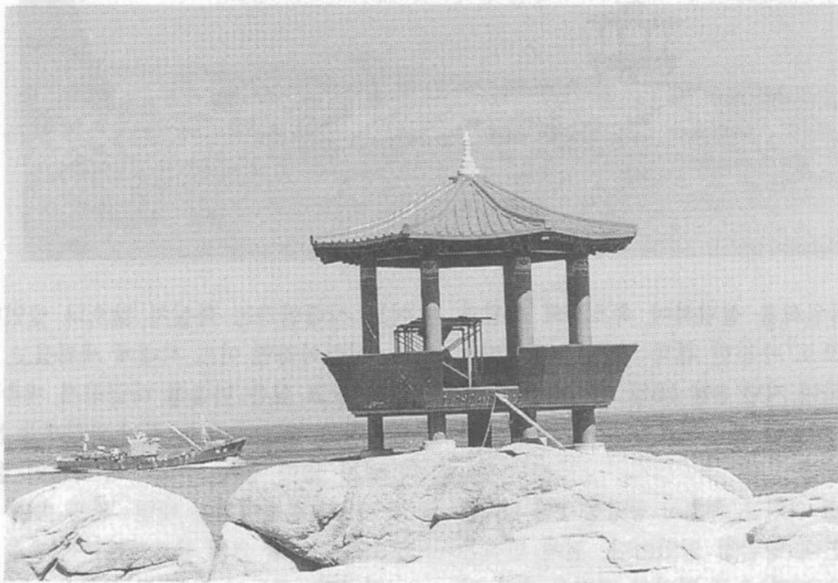
1945년 광복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몰아친 붉은 마수의 폭풍, 그 극악한 공산 치하에서 나의 신변이 위태로울 때 결사적으로 희생적 참사랑을 주신 할머니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훈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통일의 염원, 그 꿈이 실상으로 속히 현실화되기를 고대하면서 더욱 굳세게 살아야 하겠다. 통일의 그날이여, 어서 오너라 영광의 그날이여 어서 오너라.

* ‘눈개’는 안개처럼 부옇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편집자주).



1997년 8월 16일 준공 영금정(靈琴亭)과 해돋이 정자 법고창신의 팔각정



— 글·사진 / 朴永道

속초시 동명동(東草市東明洞)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있는 넓은 암반(岩盤)을 '영금정'이라고 부른다. 원래 이곳은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면은 육지로 돌산(石山)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말에 속초항(東草港) 개발 때 이 돌산을 깨부수어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돌산은 없으며,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이곳을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과거에 영금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유한 것은 아닐 것같다는 것으로 영금정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파도가 석벽에 부딪힐 때면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 데 돌산 위로 오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 소리가

마치 거문고를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목욕을 하면서 신비한 곡조를 들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도 하였다는 것이다.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비선대로 표기되어 있고 신증 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에도 기록될 정도로 절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영금정에 팔각으로 '해돋이 정자'가 세워져 영금정의 유명세를 더해 주고 있다. 동명항(東明港) 방파제 북쪽 100m의 해안 초소와 영금정 아파트 사이 앞 57m 지점인 솟은 암반에 2층 건물 높이로 건립한 정자는 속초시 동명동 개발 위원회(위원장 李正顯 54)에서 영금정 해돋이 정자



건립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여 속초시의 지원과 주민 부담금으로 추진한 결과 '97년 4월 29일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8월 16일, 분수대와 출렁 다리는 아직 미완인 채 '해돋이 정자' 만을 준공 하기에 이르렀다.

정자의 지번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의 189번지, 공유 수면내 영금정 암반이다. 전체 면적은 142.08㎡(42.98평)으로 정자의 면적은 솟은 암반에서 52.89㎡(16평)을 차지하며, 높이 8m50cm로 보통 2층 건물 높이에 정자 정상에 팔각이 모아진 북발에서 보주까지의 높이는 1m30cm로 되어 있다.

푸른 바다를 끼고 잡힐 듯한 새섬(鳥島)이 바라다보이고 오가는 뭇 고깃배들과 속초 1번지 등대는 물론 시원하게 뻗은 방파제와 즐비한 횃집들과 난장 횃전이며, 건어물상이 어우러지는 관광촌을 이룬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을 갖추었다. 바다와 암벽을 끼고 도는 우회로와 함께 먹거리 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큰 구실을 독특하게 치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영금정에 얽힌 이야기들과는 다른 이야기가 동명동 주민들이 전하고 있다. 향토인(鄉土人) 즉 토박이 원로들에 의하면 이곳에 정자가

어느 시대인가는 확실치 않으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어느 시대에 세워졌고 없어진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다급하게 재촉하지만 지금까지는 채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멀지 않아 정자 주위의 꾸미개인 출렁다리와 분수까지 곁들여지는 때면 '관광 속초'의 완전한 명소로 각광을 크게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진다.

영금정 '해돋이 정자'의 건립을 이곳 주민들은 복원(復元)한 것이라고 말한다. 연유야 어찌되었던 옛 것을 연구하여 거기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 오늘에 돌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안목들이 이 고장을 가꾸고 아끼는 바람직한 '관광 속초'의 시민상이 아닐까를 생각한다.



속초시 | 해상관광 유람선에서 필자

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제야 고백할 수 있는 무대의 뒷 이야기들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연극인 / 張奎皓



1970년대 초반부터 속초의 성인 연극이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극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편의 연극이 막이 오를 때면 슬며시 다가 오는 어떤 불안이 있다. 그것은 배우의 연기나 관객의 반응, 혹은 흥행의 성공 여부 같은 직접적인 결과나 내용 때문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거의 매년 빠짐없이 되풀이되는 악몽 같은 실수, 그것도 무대 위에서 고백하거나 발표할 수도 없는 무대 뒤의 실수들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한편의 막이 오를 때면 슬며시 엄습(?) 해오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건이...?” 하는 마음으로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연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강박관념이 언제나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공연때 저질러진 실수를 대표적인 것만을 골라서 이번에 실토해 보기로 하겠다.

1977년 7월 속초 성인연극의 모체랄 수 있는 청봉극회(속초 청년문화 연구회 소속)의 창단 공연인 [세바위 의착각](신원하작, 연출)이라는 작

품을 막을 올릴 때 었다.

무대소품중 산에서 잡아온 산토끼를 아버지로 나온 김모 배우(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렇게 호칭하기로 한다)가 극중의 딸에게 잡아온 토끼를 건네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스텝들이 공연이 임박하여 구해 온 토끼가 산토끼와 색이 비슷한 회색빛 토끼인데 그 토끼가 죽은 토끼가 아닌 살아 있는 토끼가 아닌가?

공연 전에 죽일 수도 없고 해서 두 남녀 배우에게 당부하기를 토끼가 살아 있으니 건네줄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받아서 빨리 무대뒤에 가져오라고 했다. 두배우는 알았노라고 대답하고 공연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중 그 토끼를 건네줄 때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남자배우가 건네주는 토끼를 여배우가 받는 순간 토끼가 갑자기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여배우가 그만 토끼를 놓치고 말았는데 그 다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무대 위에 떨어진 토끼가 무대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폭소는 접어 두고라도 그 녀석을 잡아야겠는데 그렇다고 무대 뒤의 스텝들이 무대에 등장할 수도 없고…… 등에서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연극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무대 위 토끼의 향방에만 시선이 모아



지고 있을 때 남자배우가 그 토끼를 잡으려고 다가 갔다. 헌데 그 토끼가 이젠 객석으로 뛰어 내려가는 게 아닌가? 객석은 온통 난리가 났다.

무대 위의 연극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토끼를 잡아내야만 공연이 재개 될 판이다. 모든 관객은 오직 토끼에게만 시선이 집중되고 무대 위의 배우도 그냥 정지된 상태로 토끼만 바라보고 있을 때 소품을 담당했던 이모 군이 용감하게(?) 객석에 들어가 본격적인 토끼 물이가 시작됐다.

그런데 관객들은 토끼를 잡을 생각을 않고 토끼가 가까이 오면 전부 발을 위로 치켜들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오직 용감한 이모 군만이 한참을 객석을 헤집고 다니다 문제의 토끼를 잡고 의기양양(?) 하게 무대를 바라보며 공연을 계속하라는 시늉을 하며 퇴장을 했다. 그제서야 배우들의 공연이 재개되었는데 어떻게 연극이 끝났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공연 치고는 악몽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짐을 했다.

다음부터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살아 있는 것은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토끼는 연극을 모른다는 사실을.

1977년 10월 제12회 설악제(당시는 설악문화제가 아니었다)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의 유일한

문화 공간인 일북문화관에서 [나는 방관자가 아니다](박현숙작,신원하연출)라는 작품을 막을 올리는 날이었다. 오후 4시 공연시간이 되어 관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남자 주연 배우인 신모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조금 늦으려니 하고 기다렸지만 공연 20분전, 10분전, 5분전…… 소식이 없는 것이다.

당시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오직 당사자가 나타나야만 이 이유를 알 수 있던 때라 모두들 전전긍긍 하고만 있을 따름이었다. 공연시간이 됐는데 주연배우는 소식이 없고…… 가히 죽을 맛이었다. 4시 10분… 20분… 30분… 연출선생은 아예 사색이 됐다.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서서 안정을 시켜 드리고 관객에게는 공연 취소를 알리고 환불하여 주고 저녁 7시 공연에 오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의 배우가 나타났다. 눈은 충혈이 되어있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보니 상황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지난 밤 간단하게 한잔한다는 것이 새벽에 끝났고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그냥 마음놓고(?) 잠들어 버린 것이다.

반가움보다는 울화가 치밀었다. 어차피 낮공연은 취소 됐고해서 그 배우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그고 무작정 패기 시작했다. “임마,연극은 관객과의 약속이야”하고 한대 퍽! “그 약속이 무너지면 연극은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거야.”

또 한대 퍽! “그따위 정신력으로 무슨 연극을 해!” 퍽!

화장실 밖에서는 난리가 났다.

연출선생이 문을 두드리다 급기야는 일북문화관 관장님과 함께 화장실 문을 부셔 버리고 들어온 것이다. 주연배우는 속된말로 표현해서 눈은 밤탱이처럼 부었고 저녁 공연마저도 취소될 상황이 된 것이다. 헌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환불해서 돌아가야 할 관객들이 배우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제

자리에 앉아서 막이 오를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1시간 이상이 지체되었는데도…… 아뿔싸! 이럴 줄 알았다면 배우를 패는 게 아닌데…… 패더라도 공연이 끝난 후에나 하는 건데 하는 후회가 드는 것이다. 그러나 저질러진 일, 스텝 한사람이 와서 어쩌면 좋으냐고 하기에 그 배우에게 물어 보았다.

공연할 수 있는냐고…, 그랬더니 뜻밖에도 하겠다는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부랴부랴 분장을 시키고 1시간 이상 지연된 연극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관객의 시선은 전부 주연배우의 부어오른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모두들 우리(?)와 같은 박수로 배우들을 격려 해주었고 극장을 나서서 돌아갈 땐 미안해서 풀이 죽어있는 주연배우의 등을 두드려주고 저녁 공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배우의 책임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았다.

아, 난 그때 깨달았다. 우리 속초에는 1시간 이상이라도 기다리는 눈물겹도록 고마운 관객이 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1978년 10월 제13회 설악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연습은 9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 당시에도 지금보다 사정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배우난에 허덕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돌아오다] (국지관작, 신원하연출)이라는 작품을 대원극장에서 막을 올

리기로 하고 맹연습하며 공연 7일전까지 왔고 시내 도처에는 공연안내 포스터도 부착이 되고 바야흐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아, 또다시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공연을 꼭 7일 남겨놓은 날 저녁 극중에 등장하는 두 남자배역(그 연극은 남자배우가 두사람 여배우가 세사람등장하는 연극이었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연습실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두배우가 주머니에서 무슨 종이 쪽지를 하나씩 꺼내 놓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 펼쳐보니 다름 아닌 입영 통지서였다. 두남자배우는 1년전 신체검사를 받은 후 이제나저제나 하고 입영날짜를 기다리는 대기병력(?)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입영이라니…… 날짜를 보니 입영 날짜가 바로 공연 전날이었다. 당시는 대부분 한달 전쯤에 입영통지서가 통보되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7주일 전에 통보라니 당장 난리가 났다.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는 연출 선생께 내가 긴급 제안을 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배우를 기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린 관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연출 선생이 내게 물었다. "대안이 있나?" 난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이 작품의 성격과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연출 선생님과 조연출인 나뿐입니다. 따라서 본연극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연하기 위해선 연출 선생님이 아버지 역으로 그리고 내가 아들 역으로 대신 출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10분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드디어 연출 선생이 결단을 내렸다. "해보자" 그리하여 연출 선생과 나는 본의 아니게 일주일



짜리 배우가 된 것이다.

지금껏 30여 년간을 연극을 한답시고 살아왔지만 내평생에 그렇게 바빠본적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리라. 난 조연출이었지만 당시에는 조명,음향을 혼자서 하든 시절이라 무대에 서기 위해선 새로운 조명,음향의 담당자가 필요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무대미술을 담당했던 고모 군에게 조명,음향을 맡기기로 했다. 연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속초 경찰서에서 야간 통행증(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다)을 특별히 교부받아 새벽 3-4시까지 강행군이었다.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여배우뿐이었다. 군에 입대할 남자 배우들은 큰 죄를 지은 죄수처럼 연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온갖 심부름은 다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연출과 조연출의 화려한(?) 무대등장이 이뤄지고 공연도 무사히 끝났다. 아, 연출 선생과 나는 우리 대한민국 연극사에 길이 빛날 대기록을 세웠다.

최단 연습기간 및 공연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을 세운 것이다. 비록 등허리에 진땀은 났을 지라도... 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연출자와 조연출자는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대기 배우라는 사실을

1981년 3월 신춘기념 공연으로 [겨울만 사는 사람들] (본인의졸작이었다,신원하연출)을 공연할 때의 사건을 밝혀 보고자 한다.

1월부터 연습에 들어가서 3월경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이번 공연은 별 이상 없이 막을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명도 틀은 갖추었고(비록 제일극장 무대위 천장에 기어올라가 직접 설치 하긴 했지만) 음향도 그런 대로 만족스럽고, 다만 주연 배우가 첫무대라 조금은 마음의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주연을 맡은 강모 군은 대단히 열심히(?) 연습을 했다.

막이 오르는 첫날 모두들 컨디션은 좋았고 이



제 남은 것은 관객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뿐인데 오후 4시 낮 공연이 시작되기 30분전부터 이상하리 만치 많은 관객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공연 첫 날 첫 공연은 40-50여명의 관객이 오는 것이 그때까지의 관례였고 또 배우들도 적은 관객 앞에서 첫 공연은 총연습 같은 기분으로 공연을 해 오던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대낮부터(?) 몇백 명의 관객이 몰려오고 있으니 우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심 기분은 좋은데 웬지 스쳐 가는 좋지 않은 예감, 그래서 배우들에게 정신 집중을 당부하고 막은 올랐다. 그 공연은 예정대로라면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적당한 시간대의 공연이었는데(책으로는 약 30장 정도의 분량) 열심히 공연에 열중하던 주연배우가 한 5장정도 분량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20장 정도를 뛰어넘어 25장째부터 대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니 상대 배우도 25장째부터 같이 대사를 따라 가는데 수밖에...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10분만 지나면 연극이 끝날 판이었다. 모든 스텝들은 난리가 났다.

열심히 대본을 들여다보며 조명, 음향을 준비하던 스텝들이 무대 위를 향해 온갖 손짓발짓으로 신호를 보냈건만 그 주연배우는 열심히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아, 이제 절망적이다. 30분도 안되는 연극을

본 관객에게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나는 환불해 주는 상상을 하면서 맥이 빠져 있을 때 마지막 2장 정도의 대본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주연배우가 상황을 알아차린 것이다. 주연배우의 묘한 표정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오금이 저려 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연배우의 횡설과 수설이 시작됐다. 횡설로 가다가 수설로 가다가…… 그러기를 1분여.. 그 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다시 원대 복귀(?) 드디어 넘어 버린 처음 5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라도 넘어가 다오 제발 30분 짜리 연극은 만들지 말아 다오”라고 빌면서…… 결국 그 연극은 2시간 짜리 연극이 되고 말았다. 관객은 본의 아니게 어떤 장면을 두 번이나 보게 되는 행운(?)을 맞은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온 주연배우의 물결은 한마디로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다.

그토록 추운 3월에……

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빨리 감기와 되감기는 비디오 테이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에도 있다는 사실을……

1983년 7월 중순쯤 이었다. 연극계 선배이신 신원하 선생님께서(떼아트르)라는 식당겸 카페를 중앙동에 마련하고 조그만 소극장을 겸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업 기념 공연으로 프랑스의 대표적 추리 희극인 [그 여자 사람 잡네] 라는 작품을 연습하여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공연을 가졌다.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오락성으로 인해 많은 관객이 몰려들었고 날이 갈수록 구전된 선전으로 종반의 공연은 성황 속에 막을 올리고 있었는데… 아, 또다시 사건은 일어났다.

극중의 여주인공인 박모양이 권총으로 떠돌이 화가를 쏘아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배우는 가짜 권총으로 쏘는 시늉만 하고 무대 옆의 스텝 한사람(지금은 중견이 된 김모군) 이 화약을 바다에

놓고 망치로 두드려 터뜨려 주는 것으로 효과를 내는데 그 상황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여배우가 공연 도중 화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에잇”하는 소리와 함께 “탕”하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어라! 총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배우가 다시 한번 “에잇”…(조용) 떠돌이 화가는 밖을 향해 도망치다가 총에 맞고 쓰러져야 하는데 총소리가 나지 않으니 계속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총에 맞아 죽어야만(?)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도망 갈 수도 없고… 화가와 여배우는 다급해 졌다. 급기야 화가는 임기 웅변으로 나가지 않고 총을 향해 돌아섰다. 일부러 총에 맞기 위해… 아, 그래도 총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때였다. 갑자기 여배우가 화가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누고 큰소리로 “탕!” 그러자 쓰러지는 화가…… 객석은 온통 웃음바다였고 우리 모두는 울상이 되었다. 급히 무대 뒤로 달려가 보니 김군은 사색이 되었다.

때는 한창 더운 여름이 라지만 장마철이라 습기가 많고 더욱 공연 장소가 지하인지라 준비해 놓은 화약이 공연 초반에는 잘 터져 주었는데 한 열흘 지나자 습기가 스며들어 터지지 않게 된 것이다. 터지지 않는 화약을 들고 나를 쳐다보는 김군의 눈초리가 처절해져 있었다. 그것은 화약이 아니라 수약(水藥) 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공연부터는 미리 터뜨려 보고 매일매일 새것으로 사다가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입으로 쓴 총에도 사람은 죽는 다는 사실을……

1984년 3월 우리는 연극협회 속초 지부의 이름으로 전국연극계 강원도 예선 대회에 속초시를 대표하여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작품은 속초 출신 극작가이신 이반(현 숭실대교수)선배님의 [그 날 그날에]라는 실향민의 애환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다.

당시 속초시 에서는 출전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었고 아울러 시청 전용 차량인 중형25인승 버스(출고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차량)를 내어 주면서 필승을 기원했고 더욱 당시 문화공보실장이신 김모실장님(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셨지만)이 우리와 춘천까지 동행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천군만마의 지원을 얻은 의기양양한 기세로 춘천에 입성(?) 했다. 다른 시, 도 대표단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으며... 춘천 시립 문화관에서 치러진 대회는 무사히 마쳤다.

우리 팀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 이라고 생각했던 춘천 대표 팀의 공연도 보았고... 배우들은 내심 우리가 강원도 대표가 될 것 같다는 들뜬 심정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시, 군 대표 팀이든 마찬가지로이겠으나 서로들 자기들의 작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들하고 있기 마련인데 특히 우리 속초인들의 기질은 남에게 진다는 것에는 대단한 자존심 문제가 작용하여 종종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역시 속초인의 기질이 결국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결론부터 고백하자면 그때는(84년 3월)우리 팀이 아무리 잘했어도 전국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때였다. 왜냐하면 한국연극협회의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의 가칭 속초 지부 였기 때문에 설사 1등을 한다 해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속초 지부는 84년 11월에야 정식 인준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 위원들은 고심 끝에 우리 팀에게 2등상을 수여했는데 그런 이유를 모르는 단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것이다. 시상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전 단원들이 단상을 향해 소리지르고..... 단상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 강원도 기관 단체장들이 앉아 있고 주관 텔레비전 방송 사는 녹화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수 상을 수상하러 올라간 단원 김모군이 상장을 받아 들자마자 단상에 내 팽개쳐 놓고 내려오고 말았다. 시상 식장은 이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 경찰이 동원되어 현장이 수습된 후 동

행하셨던 공보실장님과 상의 끝에 그 날밤으로 속초로 전부 데리고 내려오기로 결론을 짓고 셋트 철거 인원 3명만 춘천에 남겨 놓고 전부 버스에 태우고 속초로 향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울고불고 하는 단원들을 춘천에 하루더 묵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취한 조치였다.

홍천을 지나고 인제에 가까이 오자 그제서야 단원들이 조용해 졌다. 나 역시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울고 고함 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그들이 내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 이였는지도 모른다. 원통을 지나 한계령에 접어들자 어라,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운전기사과 실장님과 의논했다 별로 많이 올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체인을 친후 넘어 가기로 했다.

체인을 친후 천천히 운전하여 정상에 가까이 오르자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퍼부었다. 그래도 조심하며 올라오는데 대형 트럭들은 확휘 거리며 추월하여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트럭이 간 자리를 따라 살살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 뺨이 넘는 정도의 눈이 쌓인 길을 꼬불거리며 한계령의 중간 정도 내려 왔을 때였다. 내리막길의 우회전 커브를 트는 순간 약 20여미터 앞에 트럭이 정지해 있는 게 보였다. 순간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차는 탄력이 붙어 그냥 미끄럼 타듯 내려 가는 게 아닌가? 눈앞이 아찔 해 왔다 무심결에 소리 질렀다. "모두 꼭 잡아" 우리 버스는 활을 떠난 화살처럼 달리는 것 같았다. 그냥 그대로 저 앞의 트럭과 부딪치면 기사와 앞에 앉은 실장 님은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기사가 갑자기 차를 우측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자 차량이 약간 우측으로 돌면서 기사만이 정면으로 앞트럭에 부딪친 것이다.

운전기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쳐도 자기만 다치겠노라고..... "퐁"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기사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 보니 앞에서는 연기가 뿌옇게 피어오르고 기사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 댔다. “내다리… 다리가…” 뒤쪽에 있던 우리들이 황급히 앞으로 나가 보니 기사는 핸들에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실장님은 다행히 다친 데는 없고 기사를 핸들과 시트 사이에서 빼어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남자 단원들과 합세하여 핸들을 제치려 애쓰는데 기사가 소리 질렀다. “피, 피가 흘러요” 겁이 덜컥 났다. 그래서 기사의 허리 밑을 더듬어 보니 무엇인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얼른 손을 빼내어 보니 피는 아닌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문혀 보니 역시 피가 아니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앞유리 세장 액이 터져 기사의 다리 위로 흘러들어 갔는데 기사는 핸들에 끼어 볼 수가 없으니 피로 생각했던 것이다. 기사에게 피가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파이프 같은 것을 찾아서 핸들 사이에 끼인 기사를 꺼냈다.

그런 와중에도 실장님은 계속해서 기사에게 묻는 것이다. “이기사, 거긴 괜찮아, 응?” “어디 말이에요?” “거기...가운데 말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사를 빼내어 뒷의자에 눕히고 나서 앞에 서있던 트럭에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니 그사이 벌써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견인차를 부르거나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앞이 막막했다. 한계령 정상에 제설차가 있는 것을 보았기에 실장님과 나는 정상에 구원을 요청하러 올라가기로 했다.

열심히 걸어도 1시간 이상은 죽히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발목 이상 빠지는 눈을 밟으며 실장님과 염모균과 셋이서 한계령 정상으로 뛰다시피 걸었다. 눈은 어느새 그치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같이 올라가던 염모균이 “선배님, 눈은 뒤의 달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는데요” 아, 부럽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염모균의 배짱이 부럽다. 한계령 정상에 올라 구원을 요청한 후 사고 장소에 내려와 견인차에 버스를 끌고 내려와 속초 시내 공업사에 차

량을 입고 시키고 나니 아침 10시가 넘었다. 그리고 시청에 들어가 보니 또다른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춘천에 남겨 놓고 온 셋트 철거 인원들이 밤새도록 억울함(?)을 참지 못하다가 새벽 4시경에 강원도지사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소동을 벌인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새벽에 기습(?)을 당한 도지사는 급기야 속초시에 당사자들의 신원 조회를 하달했고 한계령 사고로 지칠 대로 지친 공보실장님은 또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으니…… 겨우 겨우 해명과 사과를 하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모든 것이 없었던(?)일로… 그 사건으로 인해 관계 공무원들이 무척이나 괴로웠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서야 그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당시에는 아무말도 못하고 지내야 했던 우리들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때 우리는 다짐을 했다.

이번 사건을 보상하는 길은 오직 전국연극제에 가서 1등을 하는 길 뿐 이라고… 그 다짐은 결국 몇 년후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당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만에 하나라도 덜을 수 있었다.

그 사건은 우리 속초 연극인들에게 어떤 오기를 심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른다. 우리 속초 연극인들이 난관에 부딪히면 더욱 분발하는 습성이 그때부터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우리들은 공무원들의 참된 봉사 정신을 보았다. 상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운전기사며 속초 연극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시 말서까지 써야 했던 공보실장님 같은 분들의 소리 없는 희생이 오늘날 우리 속초 연극의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연극협회 인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마치겠으며 연극협회가 정식으로 인준을 받은 84년 이후의 사건들은 다음 호에 계속 투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청 사자놀이(무형문화재 제15호) 속초를 울지 못하는 사자(獅子)

인간문화재 제84호 김수석옹 타계에 부쳐

李仁鐵(속초문화원 부원장)



인간문화재 제84호인 북청사자놀이(무형문화재 제15호)의 기능보유자 金壽石(91)옹의 사자 울음은 이제 속초를 울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0월 19일 오전 속초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기 때문이다. 金翁은 1907년 북청읍 주평리에서 대농가(大農家)의 7대 독자로 태어나 북청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열세 살부터 사자춤을 추기 시작하여 열아홉 살 때에는 남들 앞에서 '애원성(哀怨聲)'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쌓았다.

1951년 소위 '1·4후퇴' 시에 마흔넷의 나이로 단신 월남하여 이발사, 어부 등 각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사자놀음을 멈추지 않고 혼신을 다한 金壽石翁은 북청사자가 속초에서 울 수

있도록 온몸으로 지켰던 사람이다.

북청사자놀이(北靑獅子)은 함남 북청 일대에서 정월 보름에 사자로 가장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춤을 추어 잡귀를 쫓는 민속놀이로 1967년 중요무형 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옹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면서 속초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옹도 어려운 생활에서 연금으로 지탱하면서도 북청사자놀음을 오늘날까지 지켜 왔던 산 증인이요 오직 한길을 걸어온 기능보유자 인간문화재 제84호로 그리 화려하지는 못했어도 결코 누추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

翁과 함께 근년에 이웃으로 속초시 영랑동에서 같이 살았던 朴永道씨에 의하면 언제나 잔잔한 미소와 함께 조용하게 살았으며 겨울이면 동네 꼬마들과 바다가에서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꼬마들의 연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응하는 등 천진함까지 지녔었다고 말하고 있다.

만년에는 朴錦珠(72) 여사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북청사자놀음이 이제 어떻게 전승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 북청에 이 놀음이 전승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상황으로 보아서 전승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시점에서 전승발전을 위한 모색이 시

급하다.

고인이 생전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놀음의 전승이었다.

술옹은 월남민이 제일 많고 또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놀음이 전승된 속초에서 북한문화를 전수 발전시켜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북청사자가 오늘도
속초를 울고 있다

정월 보름달 떠오르면
통소 소리에 온 마실이 들썩이고
밤 이슬토록 꿩가리가 흥겨웠지

잊혀지려는 눈빛 잘라내며
온몸에 헌 그물 올 풀어
옷 지어입고
뒷발로는 땅치며 울부짖어도
떨리고 기침이 날 뿐

청초호 얼음장이 풀려도
그냥 추운 속초,
속초를 울고 있다
난리통에 떠밀려온 이 땅에서

유난히도 아린 겨울,
겨울나기.

위의 시(詩)는 '북청사자놀음'을 드물게 시에 담은 채재순 시인의 '북청사자' 전문(全文)이며 아래는 옹이 열아홉 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애원성'의 노래를 실어 영전에 부치고자 한다.

'애원성'은 제1마당 두 번째 거리로 그 사설(辭設)은 임과의 이별, 고달픈 살림살이, 유랑만의 애환 등을 소재로 담고 있다. 높은 음으로 질러 내는 부분이 많고 장단은 '자진타령' 장단 또는 굿거리이다. 그 사설은

"술 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 없는 천지엔 영웅도 우노라. 에 일사 좋다. 얼닐닐 너리고 상사되야. 살살 바람에 달빛은 밝아도 그리는 마음은 어제가 오늘이라."

—부분 사설.

지면관계로 짧게 실으면서 기회가 닿으면 '이렇다'에서 좀 더 발전한 상세함으로 가깝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기능인의 타계 앞에서 안타까운 것은 전승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또한 전수할 젊은이들의 탄생이다.



1958년에 김수석옹이 만든 북청 사자탈

꽃이 나에게 준 선물



林在順

윤선꽃꽃이 영복지부장
(속초문화원 꽃꽃이
교실 강사)

가을이 되면, 들에 핀 보라색 국화를 한 아름 꺾어다 책상위 작은 단지에 가득 꽂고는 그 향기 속에서 가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마도 꽃을 좋아하기 때문일 게다.

꽃을 좋아했기에, 꽃을 이야기하는 꽃 선생이 되었고 꽃으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하며, 남편의 시선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일, 하나 뿐인 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키울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꽃이 나에게 준 귀한 선물이었다.

아들 철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문갑 위에 놓여진 꽃을 바라보며 무엇이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살며시 만져보기도 하며 꽃바라보기를 즐기며 자란 아들이가 색칠을 시작했을 땐 예쁜 색을 선택해서 그림을 밝게 그리곤 하였다. 꽃이 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다.

어느 날 문갑 위에 꽃이 없으면 퇴근한 남편의 말 한마디. “꽃꽃이 안했어?” 모양이 틀려진 화형에 꽃았을 땐 “저 긴 가지는 쓰러졌나?” “이 꽃은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야?” 남편의 관심은 우리집의 저녁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이것이 꽃이 준 또하나의 선물이었다.

마음이 상해서 화가났다가도 묵묵히 앉아 꽃을 다듬어 새롭게 꽂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니... 내 마음은 이미 평안을 찾은 뒤였다. 이 마음 또한 꽃이 전해 준 또다른 선물일게다.

우리 엄마는 꽃꽃이 선생님이라며 친구들에게 신나게 자랑하는 자신감 찬 아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보았고 꽃이 전해준 편안한 마음 덕분에 혼자 큰 아이답지 않게 잘 자라준 아들을 바라볼 때 이 또한 꽃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젊은 시절 꽃을 다루며 마음을 안정되게 가짐으로 인해 아주 먼 훗날 온화하게 늙어져 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모습 또한 꽃이 전해준 귀한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다.

생활이 조금씩 윤택해지면서, 꽃은 우리들의 생활 공간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고 기쁠 때나,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꽃은 마음을 전해 주는 전령이 되었다. 또한 꽃꽃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가는데 추세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조건과 쉽게 선택해서인지, 쉽게 포기하는 회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꽃꽃이만을 짚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시작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었고 자기와의 약속인 것이다. 그 선택과 약속을 지키며 사느냐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본다면 더 이상의 좋은 교육은 없을 것이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 대부분 노후를 편안히 살기 위해 노후 연금을 착실히 저축하고들 있다. 그렇다면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로. 젊은날의 시간을 조금씩 쪼개어 취미 생활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머느리 앓혀 놓고 고스뚱치는 일은 없

지 않겠는가? 엄마의 김치 담그는 솜씨가 딸에게 전해지듯, 엄마의 꽃꽂이 솜씨가 딸이 흉내내는 생활 속에 꽃 문화가 형성된다면 꽃이 전해 주는 좋은 선물을 받고 사는 이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꽃은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고자 하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리울 뿐이다. “이 가을에 꽃이 주는 선물을 함께 받아보지 않으렵니까?”



원고를 널리 모집합니다

본원에서는 '東草文化' 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속초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원고로 논단·문화재에 대한 것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속초문화에 대한 생각도 좋습니다.

그외 수필, 현장에서 느낀 것을 담은 글도 좋으며,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한 장의 귀한 사진도 좋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지명이나 소식 등을 보내 주시면 귀하게 신겠으며 원고는 꼭 반환하겠습니다.

'東草文化' 지는 여러분이 만드는 문화지입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더욱 알찬 문화지가 되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7 東草書友會展

終南曉蒼：迢遰見層城北
窻斷幽夢雨餘涼氣生
端居頗岑窄好鳥相和鳴
聊復蒔篁菊適我遺世情

湖亭朴鶴聲

柳仁瞻古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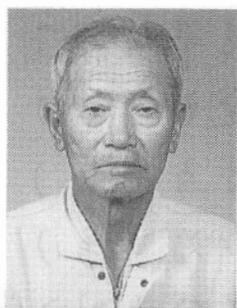


湖亭 朴鶴聲

東草書友會 會長

東草市議會 內務委員會 委員長

漢詩 / 속초도서관(가나다 순서)



金鍾 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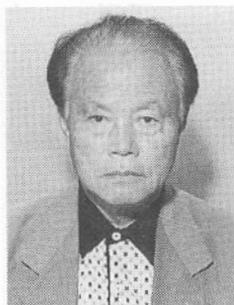
子規詩

曉眠未覺聞鶉啼	효민미각문견제
蜀道險難何以來	속도험난하이래
一別古宮萬里外	일별고궁만리의
孤魂羈鳥鳴東西	고혼기조명동서
血流哀訴知人少	혈류애소지인소
衰弱冤禽不復歸	쇄약원금불부귀
錦繡江山時有盡	금수강산시유진
子規怨恨絕無期	자규원한절무기

자 규 시

새벽잠이 깨지 않았는데 두견새 우는 소리 들으니
 촉나라 길이 험난한데 어쩌게 왔고
 한번 고궁을 이별함에 만리밖이요

외로운 혼 떠도니 새는 동서에서 우네
 피를 흘리며 슬피 호소하겠만 알아주는 사람적이고
 쇠약한 원통한 새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누나
 금수강산 다하는때가 있겠지만
 자규에 원통한 한은 끊어질 기약이 없다네



문낙준

晚秋咏詩

萬壑千峯秋色深 (만학천봉추색심)
 鴈鴻一陣羽南尋 (안흥안진우남심)
 宵寥蟋蟀悽涼感 (소요설蟀취량감)
 露濕蟋蟀惻隱心 (노습정蟀측은심)
 綠竹蒼松青畫幅 (녹죽창송청화폭)
 丹楓黃菊綿間林 (단풍황국무늬간림)
 寒霜長夜不成睡 (한상장야불성수)
 獨坐燈明詩賦吟 (독좌등명시부음)

늦가을에 읊은 시

만학 천봉에 가을이 깊으니
 기러기 한떼 남으로 날아가네
 고요한밤 귀뚜라미 소리 처량하고

이슬젖은 잠자리 측은 하구나
 푸른대 푸른솔 푸른 화폭에
 단풍 황국이 사이마다 수놓았네
 찬 이슬 긴 밤 잠이 오지않아
 홀로 불을 켜고 시를 읊고 있네



朴益勳

雅會五色

春濃和氣滿洞天 춘농화기만동천
 破寂清溪蒼海連 파적청계창해련
 南北親知恨歲月 남북친지한시월
 東西詩友吟風煙 동서시우음클연
 下山觀客離壘後 하산관객이후
 斜日主僧香佛前 사일주승향불전
 五色情懷大小事 오색정회대소사
 文章各已律中傳 문장각기율중전

오색에서 시회

질은봄 화창한 기운은 하늘에 가득하고
 적막을 깨고 흐르는 물 창해로 이어지네
 남북으로 흩어진 친지들은 세월을 한탄하고

동서에서 모인 시우들은 풍월을 읊는다네
 산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거의 떠난 뒤에
 주승은 불전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색에서 느낀 크고작은 일들을
 문장들은 제각기 율시로 전한다네



尹 益 鉉

晚春山景

百尺瀑河落九天 (백척폭하낙구천)
 晚春一色綠波連 (완춘일색록파연)
 雨晴萬壑奔流激 (우청만악분류강)
 錦水清漪柳岸煙 (금수청漪류안연)
 危路懸梯攀上崑 (위로현계반상고)
 身飛鸞鶴遶雲前 (신비가학후운전)
 杜鵑雨後啼啼呼 (두견우후제제호)
 未發青山翠畫傳 (미발청산타권전)

늦은 봄 산경치

백척되는 긴 폭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하고
 늦봄일색은 물과 풀이 같이 어우러졌네
 비개인 산골짜마다 물이 넘쳐 흐르고
 비단 같이 맑은 물결위에 고운 물안개 서리네

험한 길 사다리 밟고 힘들게 산에 오르니

이몸이 학을 타고 구름을 앞으로 밀며 나는 것 같네
 두견새야 너는 무엇이 슬퍼서 울고만 있느냐
 네 울음 소리에 청산에 못 다 핀 꽃송이 다 떨어
 진다 전하노라

晚秋野遊

天高萬里晚秋晴 (천오만리만추청)
 地闊連雲心快生 (지闊연운심쾌생)
 五穀金波與樂酒 (오곡금파흥락주)
 滿風熟粟笑顏明 (만풍숙粟소안명)
 清風蕭瑟染蒼日 (청풍소소라蒼일)
 啼會野燕嘯欲聲 (기회야연호역성)
 九月霜寒黃蕊盡 (구월상한황각진)
 一壺復盞醉身穩 (일과부잔취신穩)

늦 가을 놀이

하늘은 높고 늦 가을 날씨는 맑은데
 넓은 땅에 풍년이 계속드니 마음이 상쾌하네
 오곡이 황금물결을 이루니 흥겨운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익은 과실 살펴보고 밝은 얼굴로 웃어데네

맑은 바람 솔솔 부는 화창한 날에
 즐거운 모임에서 시 노래소리 들려오네
 구월달 찬 서리에 단풍잎은 떨어지고
 이몸은 일배 일배 부일배하니 술이 취해 쓰러졌네



李起煥

新涼雅遊

漸退夏炎日氣晴 (관희 하염 잊기창)
 循環節序又涼生 (순환 절서 우량성)
 未知西郭稻木馥 (미지 서막 도화복)
 不覺東峰掛月明 (불각 동봉 매월명)
 耿耿高飛螢奔露 (경경 고비형 분무)
 雍雍鳴鳥去來聲 (응응 명조 거래성)
 清秋百景詩題詠 (청추 백경 시제영)
 田裡薔花夕照穠 (전리 곶화 석조홍)

서늘한 가을 맑게 놀다

여름더위는 점점 물러가고 일기는 맑고
 절서가 순환하니 또 신량이 생기네
 서쪽 넓은 들에 벼향기를 알지 못하고

동쪽 봉우리 밝은달 걸친것을 깨닫지 못하였네
 반짝반짝 반디불 높이 날아 분주히 춤을추고
 웅웅우는 새소리 오고 가며 우네
 맑은 가을경치 좋은데 시를 읊우고
 반가운데 메밀꽃 저녁빛이 비졌네

霜菊

霜菊依標香甚奇 (상국 의표 향심기)
 晚秋自態美芳形 (만추 자태 미방형)
 庭園粧飾方門艷 (정원 장식 방문영)
 籬下不雙每值馨 (리하 불쌍 매치馨)
 觀客牽心恒徬樂 (관객牽심 항등락)
 黃花爾愛趣緣經 (황화 이애취緣經)
 此風景見又過惜 (차풍경견우과석)
 何日更歸是早停 (하일경귀시번정)

서리를 때에 핀 국화

서리에 의지한 국화 향기는 더욱 무성하니
 늦가을 국화자태 그향기 아름답고
 정원을 가꾸고 분장하니 문안이 곱고

울타리 아래 매양잡지고 불변없이 향기롭다
 관객은 항상 별다른 마음으로 질걸음을 얻으니
 너의 국화 사랑의 취미의 연고로 지니네
 이 풍경을 보고 또 지나기가 애석하고나
 어느날 또다시 이해가 돌아와 머물지



黃在權

探訪陳田寺址
 陳田寺址層階齊
 地勢秀佳繞映輝
 此處定基大刹偉
 高僧慧眼自籌惟
 伽藍傳說雪無積
 林鳥翻飛獸各棲
 南澤鴨迷閒浴戲
 山川絕勝便忘歸

탐방진전사지
 진전사지층계제
 지세수기위영희
 리허정기대찰위
 고승혜안자조유
 가람전설설무적
 임조번비수각서
 남택암구간옥희
 산천경승편망키

진전사지답사

진전사에 오르는 층계는 가지런하고
 산세는 빼어나 밝은 빛이 나는구나 이곳에 위대
 한 절을 지었으니 성현들의 긴 안목에 존경심이

난다. 전설에 의하면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하여
 겨울이면 못 짐승이 찾아와 놀았다고 하네. 남쪽
 언뿔에는 오리떼가 짝지어 노는 것을 보니 산천
 이 너무나 좋아 문득 돌아갈 길을 잊고 있었네.



속초도서관

여운포* 갈대밭

(양양군) 김 영 미

김 영 미(설악문우회)

은빛 물살 튀기며
 먼 바다로 나간 고기떼
 흩어진 음절들
 갈대의 성긴 머리털을 세우며
 물기없는 울음을 울고, 종일
 마른 대궁 속 꿈없는 잠에는
 아무 향기가 없네

오, 아가 저 먼 알래스카 베링 해를 누빌
 내 혼의 지느러미여
 물이 풀리는 날
 이 여울로 기운차게 올라와
 내 노래 속에 헤엄치기를

그 날, 생의 여백을 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르는 새 떼
 이 들판을 흔들며 깨우고
 마른 대궁 속 밤새 밀어올린
 새 숲의 노래도 나부끼리니
 여운포 갈대밭에 새봄이 오면
 서걱거리는 나의 노래에도 혼김이 들고
 굳어진 삭신을 내려 놓겠네

* 양양군 여운포리

은빛 물살 튀기며
 먼 바다로 나간 고기떼
 흩어진 음절들
 갈대의 성긴 머리털을 세우며
 물기없는 울음을 울고, 종일
 마른 대궁 속 꿈없는 잠에는
 아무 향기가 없네

오, 아가 저 먼 알래스카 베링 해를 누빌
 내 혼의 지느러미여
 물이 풀리는 날
 이 여울로 기운차게 올라와
 내 노래 속에 헤엄치기를

그 날, 생의 여백을 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르는 새 떼
 이 들판을 흔들며 깨우고
 마른 대궁 속 밤새 밀어올린
 새 숲의 노래도 나부끼리니
 여운포 갈대밭에 새봄이 오면
 서걱거리는 나의 노래에도 혼김이 들고
 굳어진 삭신을 내려 놓겠네

청호동으로 가는 배

(최우영(崔宇映)의 시집)

지 영 희(설악문우회)

네에게 내린 줄을 당기고 싶다는 건
내게로 오려함이였다.

뱃전에 달라붙는 소외된 냉기쯤
더 아플 것 없는 청호동 바람에 흩어내고
가끔 큰 배가 지나칠 때마다
물결사이로 솟구치는 유혹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네가 왜

먼 바다에까지 외등을 밝히고
밤마다 서성이는지 알아야겠다.
갈고리에 끼운 쇠줄
힘껏 당기어
네 가슴 한가운데를 끌어내는데
내 먼저 가고 있는 건
발 먼저 내달아지는 건 무슨 까닭인가

바람 속 너를 끌어안고 싶은
오늘
내 가슴 한가운데로
굵은 쇠줄 하나 내리고 싶다.



- '94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 <갈매> 동인, 영북문학회 회원
- 현재 고성 오호초등학교 재직

꿈은 단오

(김승환 시, 김소월 시) 김 소 환

장 일 선(물소리 시낭송회)

가슴을 열어
속 살이 비치게
한류와 난류의 분기점에서

한류와 난류의 분기점에서
속살이 비치게
가슴을 열어

흑색 철갑의 보호속에서
빨갭게 영글어 가는
붉은 마음

흑색 철갑의 보호속에서
빨갭게 영글어 가는
붉은 마음

아 향긋한 내음

아 향긋한 내음

유월의 보라성계의 향은
하늬바람을 타고
물로 물로 퍼져 나간다.

유월의 보라성계의 향은
하늬바람을 타고
물로 물로 퍼져 나간다.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가슴을 깨는 아픔을 참으며

오이의 꿈

(최숙자(물소리 시낭송회) 작)

최 숙 자(물소리 시낭송회)

배란다 작은 화분에
오이 몇 포기 심어
욕상으로 줄사다리 놓아 주었다.

배란다 작은 화
분에 몇 포기 심
어 욕상으로 줄사
다리를 놓아 주
었다.

비실 대던 며칠 동안의
몸살을 털고 일어나
여기서 물러 설 수 없다
좁은 땅에라도 뿌리를 내린 이상은.

비실 대던 며칠
동안의 몸살을
털고 일어나 여
기서 물러 설 수
없다.

누가 먼저랄까
팽팽하게 줄을 댄지며
일제히 고개를 지켜 들고
욕상을 향해 오르고 있다.

누가 먼저랄까
팽팽하게 줄을
댄지며 일제히
고개를 지켜 들
고 욕상을 향해
오르고 있다.

열매 맺기 위해
창백한 꽃잎하나 지을때마다
그 고통이야 말못하지만
좀 더 하늘 가까이서
불타는 저녁 강노을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열매 맺기 위해
창백한 꽃잎하
나 지을때마다
그 고통이야 말
못하지만 좀 더
하늘 가까이서
불타는 저녁 강
노을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죽기 살기를 기를 쓰며
폭염 아래서 투혼을 다하여
오늘도 밭줄을 잡기위해
무한려공에 손을 휘젓는다.

기다림

아버지 무덤곁에
 산초나무 한그루 있어
 솔새 눈알 닮은 잎사이로
 까막 열매가 익었다.

별 좋은 한나절 논배미에 섰다가
 육철 낮 들고 가꿈 산소에 오르신다는
 어머니, 아카시아 가지 베러갔다
 두 지루나 넉히 산초열매를 따
 이고 오셨다며 말려서

산초가루를 내라
 산초기름을 짜라
 쓸쓸히 되짚어 오는 음성

산초가시에 찢린 아릿한 마음
 산초향기에 취한 그리운 마음

턱고인 가을 창가에
 걸어 두고 보는
 눈붉은 하늘의 끝머리

기다림도 구월도 가다.



장원/김 미자

산초나무 한그루 있어
 솔새 눈알 닮은 잎사이로
 까막 열매가 익었다.
 별 좋은 한나절 논배미에 섰다가
 육철 낮 들고 가꿈 산소에 오르신다는
 어머니, 아카시아 가지 베러갔다
 두 지루나 넉히 산초열매를 따
 이고 오셨다며 말려서
 산초가루를 내라
 산초기름을 짜라
 쓸쓸히 되짚어 오는 음성
 산초가시에 찢린 아릿한 마음
 산초향기에 취한 그리운 마음
 턱고인 가을 창가에
 걸어 두고 보는
 눈붉은 하늘의 끝머리
 기다림도 구월도 가다.

기다림

가을 햇살아 설악에 머물다가
단풍나무가지에 그리움 업고
백두대간 달려 달려
남쪽바닷가 고향 마을 가다오

회색아파트 유리창에 기대어
텅빈 운동장 마냥 허기진 마음밭에
나무등걸 거친손이
가을 햇살되어 앓는다고

지는해 바쁘다고 허리펼세 없어라
검정약콩에 사위사랑 싹고
밤한되박에 손주사랑 담아
한껏 말린 태양초에 딸사랑 넣고 온다더니

천리길이 얼마먼데, 이리 벌써 오셨나
설악의 따사로운 햇살이 기다림의 소식되어
굽은허리 펴지도 못하고 가을 담아 오셨나
보고픍에 굽은허리 사랑으로 퍼드리리.



호

기다림

속초문화원

지 차상/한 명 옥

속초문화원

계절의 기다림

한때 꿈으로 무성했던 여름나무에
단풍이 드는 자연스러움으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쉽게 쉽게 이루어진다
봄날 애꿎게 그리던 싸리꽃 멍을
한스러이 바라보지는 않을래지
그리 짧게 피었다 저버렸단
원망도 길지는 않았으리.

철없는 짝사랑처럼 그렇게
오래 그리워한 사연들이
오는듯 가버렸듯이
여름내 기다리던 가을이
도둑고양이처럼 밤새 기어들어
수풀이 사라진 황량한 마음밭에
연보라빛 썩부쟁이로 흐르는구나.

차하/김 증 희

한때 꿈으로 무성했던
여름나무에 단풍이 드는
자연스러움으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진다

봄날 애꿎게 그리던
싸리꽃 멍을 한스러이
바라보지는 않을래지
그리 짧게 피었다
저버렸단

원망도 길지는 않았으리.

철없는 짝사랑처럼
그렇게 오래 그리워한
사연들이 오는듯
가버렸듯이

여름내 기다리던
가을이 도둑고양이
처럼 밤새 기어들어
수풀이 사라진
황량한 마음밭에

연보라빛 썩부쟁이로
흐르는구나.

기다림

그래에 그랬심더
허구 많은 날
파도만이 헛노락질해대는
바다를 향해
까무러치지 않을만큼
소릴 질렀지예.

그 먼곳 어딘가에서
듣고 제실 당신을 떠올리며
그리움이란 그리움들을
다—
쏟아 부었니이더

바람불면 우야겠노
비가 오면 우찌할꼬
노심초사로 단잠 한 번 못 주무시고
고된 숨만 돌리시던 내 어무이

금쪽같은 내 새끼들
이마를 닦아 주며
울 어무이도 이래 좋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데예.

다 된 저녁에
걸레질을 하다 말고
무심코 들여다 본 거울 속
내 얼굴은 간 데 없고
어무이 얼굴이
예전 그대로 남아 있심더

기다림은 차하/정오찬 순
기다림은 차하/정오찬 순

밤 깊어져
꿈 길이 또 열리면
한 걸음에 달려 오셔서
목양목 치맛자락에
곱게 싸오신 감홍시를
끄집어 내서
손수 껍질을 벗겨 주시겠지예.
기다림은 차하/정오찬 순

가 정

함께 하고픈 마음으로 보듬어진 작은 등지
 그속엔
 지푸라기 만큼이나 많은 우리 삶이 숨어있네
 강산도 변하는 10年 세월에
 바쁘게만 달려온 시간이지만
 문득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널려진 내 헤진 그림자들
 넓고 밝은 하늘만 바라보며 꿈꾸듯,
 높이 날을날만 기다리는 새끼를 가꾸면서
 순진한 마음은 바람속에 무디어가고
 그 마음 만큼 미음도 생겨났네
 등지를 어루만지고 다지면서 믿음도 다져지고
 그것이 人生이라는 지혜도 배웠다네
 내 마음의 파랑새를 그리며
 또 다른 파랑새를 키우면서
 이 세상 끝날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은 언약 지키며
 슬기롭게, 내 자리에
 이렇게,
 등지를 지키고 있다네.

장려/김 현 주



나의 여고시절

부푼꿈과 희망이 가득찼던 나의 여고시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걸로
 믿었던 여고시절...

그러나 여고1학년때 존경하는 아버님께서 젊
 으신 연세로 돌아가셨다.

하루아침에 난 엄마만 계신 아이가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참 열심히 사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난 모든 집안일을 아무
 불평없이 해 나갔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도시락 싸고 걸어서 언
 덕위의 하얀집인 상고로 갔다.

공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걸어서 집으로와
 공부좀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난 동생들도 다 챙기고 방위받던
 오빠 뒷바라지도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장사하시느라 매일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막내동생과 붙들고 많이도 울었다.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것만이 나의 여고시절에 보내는 노력이라 생
 각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도 가고 싶었고, 남들이
 하는 미팅도 하고 싶었지만 같이 어울리지도 못
 하게 되니 난 자꾸만 외
 톨이가 되어갔다.



장원 여정은

그러나 그런것들에 얽
 매이지는 않았다.

왜냐면 아버님의 소중한 모습을 다시금 느꼈기
 때문이고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께 효도라고 생각
 했다.

다른 친구들은 문제야

로 낙인이 찍혀 선생님들께 야단도 맞았지만 나
 와는 먼 일 같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교훈도 얻었다.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곤
 하였다.

그 덕분에 나의 여고 3학년때는 모든 급수를
 다 땀다. 혼자서 노력해서.....

어머니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눈시울이 다 뜨
 거워 지셨다.

취직할때가 되어서 담임선생님께서 서울로 가
 라고 하시는걸 집안 살림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속
 초라는 곳에 주저 앉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그 여고 시절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무척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고 공부한 덕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 둘을 낳았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 너무나 뼈저리게 울고 또
 울었던 일은 어머니마저 돌아졌던 것이다. 아버
 님 돌아가신지 5년후에...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아버님 뭇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고생만 하시던 나의 어머니께서
 말이다.

이제는 어엿한 주부가 되었지만 항상 꿈이 컸
 던 나의 여고시절이었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학
 교와 집만 알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지는 않는다.

외롭고 가슴이 다 탈때는 인자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혀
 흐른다.

지금 나의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나의 부모님을 처럼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
 도 가슴속 깊이 내가 생각하는 여고시절처럼 느
 끼고 생각하게 해주고 싶은데, 나의 욕심인가?

내 고장의 가을

차상 강명화

주일 아침 일찍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친후 장로님의 광고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여러광고중 한 대목을 발견했다. 10월 7일 여선교회 설악산 등반대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순간 야! 좋다. 이 가을에 등반 대회를 가정 주부로서 아직 초등학생 3학년 7살 유치원 어린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마음만 간절하고 수시로 텔레비전에서는 올 가을 단풍이 그렇게 예쁘게 물들거라는데 들을때마다 야! 멋있겠다. 마음만 있었는데... 이 소식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애들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고 어른인 나도 집에 아내가 없으면 허전하다면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는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때 가야되지 않나 싶어 이제 애들도 많이 컸으니 학교에서 돌아와 각자 자기 할일 찾아 스스로 해야되고 엄마가 일 때문에 또 형편에 따라 그때 그때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나면서 설득하려 무단히 애를 썼지만 확실한 예스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 설악산 등반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설악산 등반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 갔다. 9시출발 설악산 양폭을 등반하려는 사람은 대형버스 한대에 가득 9인승 봉고에 가득, 각자 자기용 동원, 이리하여 일행은 설악산의 가을 단풍과 상쾌한 공기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 등 새소리 물소리 형형색색의 물든 아름다운 단풍을 그

리며 설악산을 향했다. 관광철이라 길은 많이 막혔다.

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긴 기차처럼 보였다. 비선대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기로 하고 갖가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점心和 간식을 들고 한걸음 한걸음 진행을 하던 중 순간 따끔하여 보니 말벌이 내손가락을 쏘고 있는 것이다. 야! 따가와 이게 뭐야 내손을 치자 벌은 도망가 버렸다. 손가락은 금방 옥신옥신 점점 부위 오르고 있었다. 양쪽까지 부지런히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픔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걸었다. 드디어 비선대 도착 맛있는 식사시간을 맞이했다. 비선대에서의 자연의 절경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야! 멋있다. 감탄사가 연발, 참 멋있다. 이렇게 멋있을수가.....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대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앞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나는 감사 감사가 나왔으며 입을 다물수가 없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양폭을 향해 행진했다. 등반은 점점 가면서 힘들기 시작했고 함께하던 일행중 뒤로 쳐지고 중간 중간 쉬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한 여름에도 별로 땀을 흘리지 않던 내가 귀면암까지 도착했을때는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그 기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분은 최상이었다. 잠깐 커피한잔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일행중 한분이 이곳이 귀면암이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죠 하는 것이었다. 아! 그래요.

산을 넘으면 넘을수록 이 가을의 자연의 신비로움은 더해갔다.
 난 곱게 곱게 물든 단풍을 오지못한 이웃을 생각하며 한낮 두낮 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악산의 단풍이 곱게 곱게 물들어 있다면서 보여 주고 싶었다.

그분은 등반하기를 좋아한다. 첫 애기 낳고 백일 되어 대청봉을 다녀왔다 한다. 설악산 곳곳을 무척이나 많이 알고 있었다. 그분의 설악산 등반이 야기를 들으며 양폭을 향해 또 전진 실상 양폭까지 가기가 바빠 주변의 자연을 보기가 바빠다. 몰래 몰래 훑쳐 보듯 가기도 하고 정말 깎아 놓은듯 멋진 절벽 산에 불이 붙어 타는 모습이 단풍 물감을 풀어 놓은듯한 붉게 물든 단풍은 아무리 양폭까지 가야하지만 이 가을은 내발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야! 멋있다. 이렇게 멋 있을 수가 있나 야! 참 좋다. 오기를 정말 잘했다. 집에 일일랑 잠깐 잊어 버리고 대 자연을 내 마음속에 담으니 이렇게 좋을수가 이렇게..... 참 잘왔다. 이렇게 안오면 언제 올 수 있나 양폭 가는 길은 험난했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돌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점점 호흡은 깊어갔다. 산을 넘으면 넘을수록 이 가을의 자연의 신비로움은 더해갔다. 난 곱게 곱게 물든 단풍을 오지못한 이웃을 생각하며 한낮 두낮 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악산의 단풍이 곱게 곱게 물들어 있다면서 보여 주고 싶었다. 마침내 양폭에 도착했다. 먼저은 일행도 있고 지금나와 막 도착하자 뒤쳐져 늦게 도착한자 등등 보이기 시작했다. 양폭의 대 절경앞에 멋있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도 찍었다. 폭포가 양쪽에 두개가 있어 양폭이라 한다. 고향이 주문진이고 속초에온지 6년째 이지만 양폭은 처음이었다. 이 가을이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이다.

여기 저기 삼삼 오오 무리를 지어 양폭의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앞에 등반하여 흘린땀과 함께 화사한 얼굴로 10년이나 젊어보이는 행복한 모습들로 사진을 찍었다. 몇몇 일행은 맑고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며 올라오느라 애쓴 발을 시원케 하였다. 곧장 하산이 시작됐다. 양폭까지 등반했다는 기쁨을 앓고 날아갈듯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10년이나 젊어진 기분으로 내려왔다. 그러던중 짐 걱정이 되고 남편의 노여움이 생각났다. 재미있었고 즐거웠었고 기쁨이 충만했지만.....

아이들은 이웃에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별 것별 것 다 물어 봤어요. 너가 학교 갔다오니 엄마가 계셨니 등등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점점 다음 전화에 불안 했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고 조심스럽게 어떤 말이 나올까 했는데 "여보세요?" 응, 잘 다녀왔어 다리는 안 아파 속으로 나는 휴! 다행이다. 나는 괜찮아 너무 좋았어 단풍이 너무 예뻐 산마다 붙어났어. 그렇게 멋있을수가 없어 당신도 쉬는날 흔들바위까지라도 운동삼아 다녀봐요. 알았어 좋겠지. 그래 잘 갔다 왔어. 알았어 사랑해 찰가닥 이상 끝이었다. 순간 남편이 고마왔고 멋있었다. 이번 등반을 통해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설악산의 가을 풍경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만큼 아름답고 아름답다. 등반하기까지 가정의 일들을 접어두고 자연을 짝하여 하루를 보낸이 나에게서 생활에 활기가 생겼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수가 있었다. 내가 사는 속초에 이렇게 멋진 설악산에서 올 가을의 단풍을 내 가슴에 담아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속초시민 모두의 마음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내 고장 가을

그 하염없는 대답이 언젠지 해는 벌써 산모퉁이를 넘어도 허리를
 펼줄 모르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밭 귀퉁이 산 밑에 앉아 꺾어든 들국화로
 꽃놀이가 심드렁 해지고 배도 출출해질때면 한입 배어물 매끈한
 가지같은 것 없나 싶어 까실까실하고 두꺼운 가지나무 잎새를
 들추던 내 고장 가을은 그곳.

따스한 가을 햇살에 꽃 봉오리속에 있기 힘들
 었노라고 말 하는 이웃집 가슴 설레는 처녀 처럼
 길 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는 이름 모를 들꽃과 더
 붙어 가을의 향기를 맘껏 발산하고 있다.

마치도 제 짝 찾기전 자유롭던 처녀 총각의 자
 유로운 몸짓 처럼 들녘에도 산 모퉁이에도 심지
 어는 집안 마당에도 크고 작은 색색의 가을 꽃들
 이 피어나 꽃들의 천국 같다.

지금 끝 남쪽 내 고향 가을도 코스모스와 하얀
 들국화의 진한 향내음이 산자락에 넘나들 때면
 어머니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쓰고 광주리를 옆에
 긴채 가을 햇살에 달아 익은 석류 같은 새빨간 고
 추를 따시거나 파아란 배추밭, 어물어 가는 무 밭
 에 호미를 들고 앉아 계시곤 하셨다.

“엄마! 이젠 집에 가면
 안돼?”

“조금만 더 있다……”

그 하염없는 대답이 언
 젠지 해는 벌써 산모퉁이
 를 넘어도 허리를 펼줄
 모르시는 어머니를 기다
 리며 밭 귀퉁이 산 밑에
 앉아 꺾어든 들국화로 꽃
 놀이가 심드렁 해지고 배

도 출출해질때면 한입 배어물 매끈한 가지같은
 것 없나 싶어 까실까실하고 두꺼운 가지나무 잎
 새를 들추던 내 고장 가을은 그곳.

빨간 고추 밭과 마당안의 주홍빛 감나무에서
 시작됐고 까치밥만 남은 감나무에서 찬바람과 함
 께 가을이 끝나 가곤 했다.

들녘의 벼가 익어가고 어머니가 따시던 그 빨
 간 고추가 가을빛과 시샘을 할 때면 이곳 속초에
 도 내 고향 가을의 모습위에 하나 더한 가을의 향
 기와 모습이 있다.

여기 저기 줄을 메고 말리는 오징어 말림이 바
 로 그것이다.

피서 차량이 몰려가고 바닷가에 한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갯 잡아온 싱싱한 오징어를 새벽
 녘에 부둣가 까지 나가 바케스며 대야 하나 가득
 이고 들고 아파트 공터와 자그마한 단독의 마당
 가 햇살 드는 곳에도, 자동차 뽕뽕 달리는 도로변
 의 가로수 사이에도 온통 줄을 메고 오징어를 말
 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름하여 나는 그것을 '사랑의 줄' '사랑의 내
 움' 이라고 칭해본다.

잡조름한 바닷 내음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벗
 삼아 말라가는 오징어의 다리며 귀를 일일이 손
 질하여 오징어 형태가 잘 나오도록 말려가는 손



차하 안점 이

을사상도사

며칠을 그렇게 말렸던 오징어는 대청봉을 필두로 아래로
아래로 하강하는 단풍의 고운 색채와 바닷 바람과 어우러져
손짓하는 가을 꽃들의 향기까지 살포시 담아 포장한채
우체국 마당안을 온통 오징어와 가을 꽃들의 향기를
남기고 먼 곳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길에는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의 모습과 멀리 나간 딸 자식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다듬는 손길엔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된다.

며칠을 그렇게 말렸던 오징어는 대청봉을 필두로 아래로 아래로 하강하는 단풍
의 고운 색채와 바닷 바람과 어우러져 손짓하는 가을 꽃들의 향기까지 살포시 담
아 포장한채 우체국 마당안을 온통 오징어와 가을 꽃들의 향기를 남기고 먼 곳으
로의 여행을 떠난다.

반가움과 고마움과 그리움을 함께 담고서.....

설악의 단풍이 고운 내 고장 가을은 이렇게 나눔의 계절이 되어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고소하고도 짹짹한 오징어 맛과 생생한 바닷 바람의 향수까지
선사하며 받는 이들의 마음까지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면서 따스한 겨울을 준비하
게 한다.

코스모스 향기 가득하고 빨갛고 노오란 단풍으로 물든 내 고장 가을은 추수하
여 곡간 가득 쌓아가는 풍요만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 情을 나누는, 나눔의 가을이
있다.



이 화 문 초 주 정 음 판 부 주 문 선

김승환 작

내 아이들의 학교 등교 내 남편의 출근, 내 주위의 청소

이 모든일이 끝난후의 여유있는
 오후 세삼스레 되씹고 싶지않은 옛 일들이
 왜 생각났는지 씩씩하다.

신통하게 잘 따라준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세월의 빠름도 알겠지만 빠른 세월속에 놓인 깊은 함정은 얼마나 두려웠던가 용케 잘 참은 아이가 대견스럽다.

고추대공에 매달린 잠자리의 날개짓은 불행한 5년전의 삶을 깨끗이 털어주고 있었다.

내 아이들의 학교 등교 내 남편의 출근, 내 주위의 청소 이 모든일이 끝난후의 여유있는 오후 세삼스레 되씹고 싶지않은 옛 일들이 왜 생각났는지 씩씩하다.

고추밭지 앞에 꾸그리고 앉았던 나는 일어나 빗자루를 찾았다. 마당 해 잘드는 곳을 찾아 고추를 널어야 하는데 이 구석 저 구석 한참을 찾았지만 눈앞엔 잔뜩 안개만 낀다. 연실 손등으로 닦아내는 수고는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주무룩 떨어지는 눈물줄기에 콧등도 눈두덩이도 빨갛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래”

“가을 닷이야”

“내가 왜 하늘을 보았을까?”

내 고장의 가을

장려상 차길자

비가 내리려다. 정말 떠나도 되는걸까? 많이도 망설였다. 산 밑에 살면서 그산의 모습을 바라다만 보고 살고 있다니? 그것도 내놓으라는 명산을…… 나의 사랑 나의 남편은 몇번씩 만류했다. 변변치 못한 마누라 다칠세라 그러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수가 없다. 이려다 정말 영원히 가볼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여보 내일은 내 생일이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딱 한가지, 나 올케하고 대청봉에 오르기로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게요. 그래서 었을까?

남편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것 같은 새벽임에도 한마디 잔소리가 없다. 오색을 향하는 길 닥치는 차창으로 약간씩의 가랑비가 내렸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 처음 가보는 길인데 그것도 높은 산 여자들 차를 운전하는 남동생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누나가 아이인가? 아니면 제 처 때문이겠지? 누나 비가 많이오면 포기하고 와요. 절대로 중간에서 줄지 말고 줄다가 떨어져 죽을수도 있어요. 몇번째? 다섯번도 더 했나보다. 그러나 무서울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출발 입구에 내리는 순간 깨끗이 사라졌다. 관광 버스 한대가 울긋 불긋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있다. 너무도 반가웠다. 야! 종찬아 걱정말고 돌아가 우리는 손을 흔들면서 산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 900m까지 산을 세워놓은듯 급경사, 추우리라는 생각은 멀리 사라지고 잠바를 벗어 베낭에 넣었다. 아직도 어찌다 물든 나무들에 눈에 들어올뿐 단풍이 여기까지는 한창이 아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요. 산속에서

만난 이들이라서일까 너무도 반가워한다. 이제 시작인데 다리는 자신을 들어올리기를 거부하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아 배고파 오이를 한 개 꺼내 씹어본다. 형님 잘 모시고 다녀오라는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 못오시면 업고라도 올게요. 하던 올케 어데쯤에 있는 걸까? 보이지 않는다. 높이 오를수록 나무들은 곱게 가을 옷으로 단장을 했다. 한발자욱이라도 적게 걸으려고 경사진 곳을 네발로 기면서 난 마음속으로 이야기 한다. 하나님 길자 이대로 떨어지게 버려두진 않겠지요?

힘들지만 너무 아름답네요. 드디어 정상이 300m지점 벌써 바람이 세차다. 수고하십니다. 하는 젊은 한쌍 얼마나 남았어요. 예 300m쯤 아주머니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아니요 베낭에 잠바 있는데……

꺼내 입으세요. 저 위는 너무 추워요.

그럼, 더 수고하세요. 손을 흔들면서 멀어져 가는 젊은이…….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손은 시리다. 드디어 정상 군사시설이 있고 조금을 오르니 대청봉이라고 쓴 돌비석이 눈에 들어온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모자를 쓰면 멀리 날아가 버릴것만 같다. 내앞에는 사람들이 없어 내가 제일 먼저 인줄 알았는데 어느사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너무 높은 곳이라서 일까? 큰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어느사이 작은 나무들이 그 잎새를 떨구고 별거벗은 모습도 많이 있다. 키작은 철쭉만이 그 잎새를 누르고 붉게 물들이고 있다. 이곳까지 오는데 5km 내려가는 길은 가장 먼 비선 대쪽을 정했다. 5km를 11km로 길게 늘려 놓았으

니 조금은 완만 하겠지?

그러나 출발부터가 그렇지가 않았다. 급경사, 바윗돌 겁이 났다. 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길자 잘 갈수 있게 해주셔요. 이것쯤 이기지 못한다면..... 전 엄마이거든요. 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웬만한 돌계단은 뛰었다. 처음은 무릎을 다치지 않을까 겁도 났지만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험하고 먼 길 회운각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는 양쪽 산장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철제계단 저편에 푸른 하늘 아래 깎아지른 웅장한 절벽 그 절벽에 소나무가 푸르게 하늘 향해 팔을 벌리고 자라고 있으며 단풍나무 또한 그 절벽에 한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아래 절벽에는 물줄기가 하얗게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키고 흘러가는 물에는 나뭇잎이 떠가고 있다. 하나님 저긴 "그 옛날 선녀가 목욕을 했

나봐요" 이렇게 나혼자 생각에 젖어 가끔은 겁이 나서 앉아서 바위를 내려오기도 하면서 산길을 걸었다. 생각과는 달리 나이가 꽤 많이 드신분들도 이길을 오르고 있다. 양쪽 산장을 지나 비선대에 이르니 수학 여행을 다니러온 학생들이 왁자지껄 하다. 아직도 갈길은 멀지만 이쯤에서 쉬어가자. 어데쯤에 있을까? 나의 올케는..... 중청봉에서 싸가지고온 도시락을 먹었음에도 아 배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것만 같다. 그러나 참자, 눈으로 가슴으로 심신으로 하늘이 내게 준 이 좋은 산, 계곡, 폭포 그리고 나무 거기다 좋은 이들을 만났으니.....

돌아가면 내 사랑 내 남편에게 말해야지, 조금도 힘들지 않았노라고..... 체중이 많이 나가 힘이야 들겠지만 나혼자 보고 느낄수만은 없음으로.....

한 장의 사진을 찾습니다.

본원에서는 문화은행에 보관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문화원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문헌 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
- 사진 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옛 구조물 등을 찍은 사진
- 음향 자료 : 강연, 연설, 기타

속초문화원 전화 (0392) 32-1231

전송 (0392) 32-1241

제8회 속초종합예술제 학생백일장

초등학교 고학년부 산문/장원

용돈

영랑초등학교 4학년
신은영

흰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12월이었다.

하루하루 나는 조금씩 내 저금통에 동전밥을 땡그랑 땡그랑 먹이고 있었다.

얼마전 엄마와 시장에 갔는데 '애완동물'이란 글자가 눈에 띄었다.

"엄마. 나 저것좀 보고 올게요."

"그러렴"

반짝반짝하게 닦은 유리창 속으로 귀여운 애완동물들이 보였다.

그중에서 조그만 흰 햄스터 한쌍이 보였다.

맛있게 사과를 아삭아삭 먹고있는 모습이 아무 불행도 없는것처럼 보였다.

"엄마. 나 저 햄스터 사고 싶어."

나는 배추를 고르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졸랐다.

"지금은 돈이 없어 양돼 내가 돈모아서 사렴."

이런 엄마에 말씀에 나는 용돈을 절약해 저금통에 몇주일 부터 저금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 귀여운 흰 햄스터 한쌍을 산다는 희망을 갖고 딸그랑 딸그랑 소리를 내며 저금통에 동전을 넣었다.

군것질도 하지 않으며 저금통에게 밥을 배불리 먹이던 날이 지나고 한달이 되는 날이었다.

다음날이 시험이여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는데 내 뺏속에서 소리를 냈다.

"꼬르륵"

"우리 은영이 배고프구나. 엄마가 뭐 좀 사다 줄게"

내 뺏소리가 너무 컸던지 엄마는 가벼운 웃음을 입고 나가셨다.

"아함, 졸려"

올백 맞으려는 의지를 죽이려는지 졸음이와 창문을 열었다.

"휘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람이 내의 밖에 안 입은 내 몸을 감쌌다.

"이거. 너무 추운데"

나는 겨우 기어올라 오돌오돌 떨며 바람을 창문으로 닫았다.

창문을 닫으니 금방 따듯한 온기가 돌았다.

그리고 불현듯 웃웃만 입고가신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의 웃이 보고 싶어 큰방에 가 장롱문을 열었다.

내 새 장롱과는 달리 낡은 장롱은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끼이익"

나는 아빠옷과 함께 있는 엄마옷을 끄집어냈다.

빛이 바랜 목도리 털실장갑 몇 켤레. 군데군데 기운 외투 두벌과 낡은 모자뿐이었다.

이게 살을 깎는 바람막는 것이라니.

행복한 겨울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예쁜 외투, 장갑과 모자, 아기자기한 양말이 수북히 쌓인 나와는 판판이었다.

"또각또각"

복도 저 끝에서 엄마의 구두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엄마옷을 잡아 넣고 공부를 하였다.

다음날 버스비와 함께 그동안 모은 용돈을 들고 시내로 갔다.

애완동물집에 가보니 햄스터가 더 귀엽게 자라 있었다.

순간 햄스터를 살까? 엄마것을 살까? 하고 고민했다.

'햄스터를 사자. 귀엽잖아.'

'무슨소리. 엄마것을 사야해.'

내맘속에서 두개의 싸이 아웅다웅 싸웠다. 그러나 싸움은 곧 그쳤다.

엄마것을 사자는 쪽이 이겼기 때문이다.

나는 옷가게에 가서 고르기로 했다.

예쁘지만 외투, 장갑, 목도리가 너무 비쌌다.

한참 뒤져보니 나의 눈에 하나의 물체가 집혔다. 빨강 장갑이었다.

빨강 장갑을 엄마가 끼면 어울릴것 같아서였

눈 덮인 마을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다.

가격은 팔천원이었다.

계산기옆에 팔천원을 놓고 포장지로 곱게싼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해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옆에 살짝 꾸러미를 놓았다.

잠시후 엄마가 깨서 꾸러미를 보시고는 궁금해 하시며 풀어 보셨다.

엄마 장갑을 보고 기뻐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햄스터보다 소중한것 햄스터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다.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엄마에게 큰기쁨이 될 줄은 몰랐다.

저금통은 망가졌지만 햄스터는 사지 못했지만 그 용돈으로 큰 아주 큰것을 산 것이다.

용돈을 이제부터 아끼겠다고 쓸데없는 것은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음과 하였다.

내마음의 기쁨처럼 밖에는 희고 고운 눈이 평평 내리고 있었다.

눈 덮인 마을 풍경

눈 덮인 마을 풍경

속초문화원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崔龍文	속초시 동명동 250-5 5/4	33-3969	33-3233	대일레미콘이사
부 원 장	李仁鐵	속초시 교동 동부A 102-1306		33-2177	영북지구합복도민회장
이 사	姜哲勳	속초시 영랑동 163 5/6	31-5675	32-0188	강동건설사장
	高在陽	속초시 교동 780-60 15/3		33-4931	
	金光洙	속초시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원장
	金鵬海	속초시 동명동 450-39 4/2	33-2021	33-3411	합동문화인쇄사사장
	金雲天	속초시 교동 현대1차A 104-202		31-0448	속초여고교장(전)
	金鍾圭	속초시 동명동 72 2/4		33-4472	시의회과장(전)
	金喆燮	속초시 교동 현대1차A 103-1103		31-2292	속초신협이사
	金鎬應	속초시 동명동 250 5/4	32-1231	33-3674	문화원사무국장(전)
	盧光福	속초시 중앙동 468-142	32-8907	32-9014	장안슈퍼대표
	董文星	속초시 동명동 450-22 4/4	33-3171	33-3721	속초시장
	朴相福	속초시 교동 627-130 20/2	33-7168	33-3888	의료보험대표이사
	朴政基	속초시 도문동 177-1 4/5	636-7667	636-8738	기자유통상사대표
	宣玉南	속초시 교동 664-102		33-0245	속초여고총동창회장
	安東燮	속초시 노학동 619-5 2/3	636-0955	32-0909	승익건설대표이사
	吳允根	속초시 교동 656-5 13/2	32-5357	33-8817	청운독서실대표
	尹淑子	속초시 교동 627-42 19/5	33-4014	33-4014	설악유치원장
	李泰亨	속초시 동명동 523 10/3		33-3618	동우전문대교수
	林鎬成	속초시 노학동 159 1/2		33-2178	시의회의원
	全福植	속초시 교동 삼환A 108-1004	(02)407-9520	31-7130	대우장회장
	全錫圭	속초시 대포동 산33-1 3/1		635-1248	대포초등학교장(전)
	崔敬順	속초시 중앙동 496-55 1/4	33-3668	32-6590	화신상회대표
	崔顯植	속초시 교동 664-164 2/2	(0396)672-2448	33-2632	낙산사기획실장
감 사	鄭然泰	속초시 동명동 104-2 3/1		32-8859	교육행정자문위원
	崔泓順	속초시 동명동 469-33 9/2		33-3671	행정동우회부회장
사무국장	朴永道	속초시 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C-805	32-1231	32-4913	
간 사	張銀善	속초시 교동 나하나2차A 301호	32-1231	33-2253	
음향기사	崔捧河	속초시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32-1231	31-5298	
				635-8428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세계 기록문화유산 지정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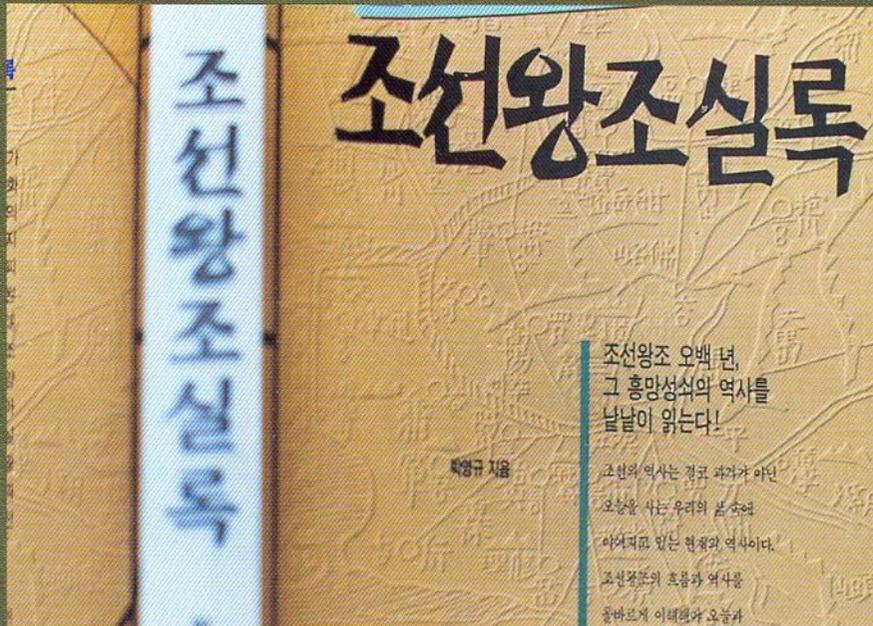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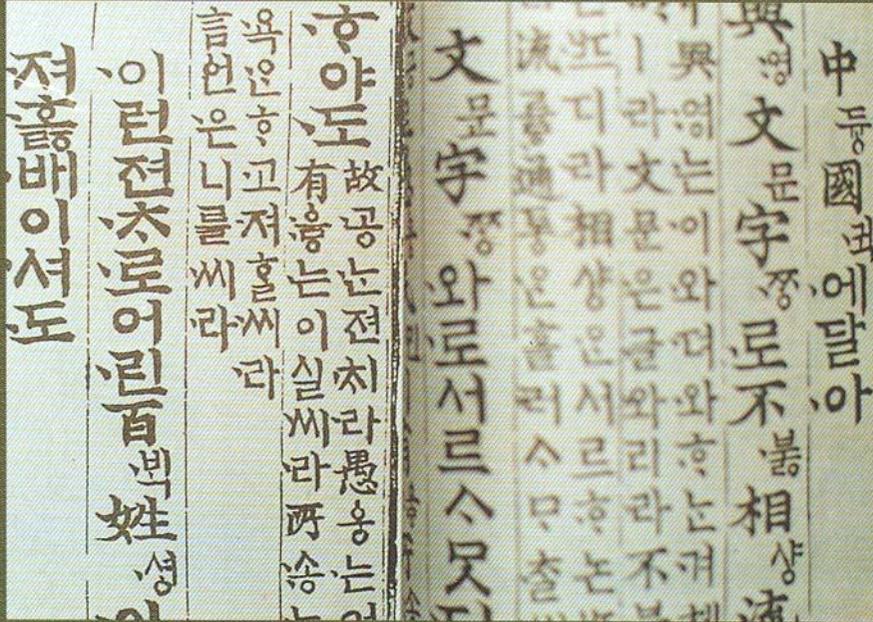


'97 문화유산의 해

훈민 정음(訓民正音·1책)과 조선 왕조 실록(朝鮮王朝實錄·277책)이 세계 최초의 세계 기록 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지정,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문화재 관리국은 '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자문 위원회가 훈민 정음과 조선 왕조 실록의 문화적 사회적 미적 가치의 희귀성을 인정하여 최초의 기록 유산으로 선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기록 문화 유산 위원회는 우즈베크 수도 타슈켄트에서 세계 32개국이 등록 신청한 54건의 기록 문화 유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 기록 문화 유산 제도는 인멸과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록 문화 유산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올해 마련되었다.



조선왕조 오백년,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낱알이 읽는다!

조선의 역사는 결코 과거가 아닌
 오늘날 사는 우리의 본존역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역사이다.
 조선정운의 흐름과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해와 오늘날

대한민국 지음

통일 · 복지 · 문화의 중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 화 / 0392) 636-7044
팩 스 / 0392) 636-7556